금주의 법구–〈숫타니파타〉
허풍 떨면서 실천하지 않는 사람
상대방의 결점을 노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참된 친구가 아니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25 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11월 6일) 2018년 12월 12일 수요일

“선생님도 어렵다”는 교과서 內 불교 서술

조계종 불교사회硏 세미나서 일선 교사들 토로

신성민 · 윤호섭 기자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살펴보니 국정교과서 시절 〈국사〉와 불교 서술이 별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관성적 서술로 검정교과서에 올라오니 어려운 불교한자용어가 그대로 사용됩니다. 현재 한글 전용 세대에게 한자용어는 그냥 외계어입니다.”

현재 역사 교과서에서 불교 관련 서술은 과거 국정교과서에서부터 이어져 온 관성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특유 한자 용어는 암기요소에 불과해 학생들이 불교를 어렵게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원철)는 김영주 국회의원실과 함께 12월 5일 ‘중 ·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불교관련 서술체재와 내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조왕호 대일고 역사교사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고기홍 동국대부속 영석고 역사교사는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분석해 발표했다.

조왕호 교사는 고교 역사교과서 불교 서술이 지나치게 관성적이고, 어려움을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든 것이 통일신라기 서술이다. 대부분 교과서들이 원효 · 의상 등의 사상들만을 기술하고 있으며, 이는 오랜 관성의 산물이라는 게 조왕호 교사의 주장이다.

조왕호 교사는 “화쟁 사상의 경우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교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화쟁 사상을 한국사 교과서에 서술해야 한다면, 이것을 학생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줘야 한다. 이는 교사 개인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중관 · 유식 등 전문적인 불교용어 역시 학생과 교사 모두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한글 전용 세대 학생들에게 이 같은 용어는 암기사항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학생들에게 ‘불교는 어려운 것’ 이라는 인식을 심어준다”고 지적했다.

중학 역사교과서를 분석한 고기홍 교사는 교과서마다 서술의 소재, 내용 등이 천차만별이며, 이 같은 편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럼에도 현재 학생들에게 교과서 내 불교는 여전히 ‘어려운 종교’ 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돼야 함을 분명히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선 교사들은 교과서 집필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종단 차원의 자료집과 교사들의 교육 참고 자료 발간 · 배포와 관련 교사 연수 프로그램들을 제안했다.

고기홍 교사는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역사 관련 기관에서도 풍부한 콘텐츠로 교사 연수를 진행하지만, 불교문화재 관련 연수를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불교학술단체에서 불교문화재에 대한 연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사들의 불교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나리 동대부속고 교사도 “관성적 불교 기술 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며 “종단 차원 교육 자료집을 제작해 일선 교사들에게 배포하고 이를 참조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교과서 불교서술 수정 등의 활동을 펼쳐온 전문가들도 한자 중심의 표현을 교과서에 풀어쓰는 게 당장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따라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사들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작해 현장서 용어의 이해를 돕는 게 순서임을 강조했다.

오랫동안 교과서 불교서술을 바로잡는 데 힘써온 김형중 동대부여고 교장은 “예전에는 정혜쌍수나 돈오점수 같은 표현을 당연한 듯 썼지만 사실상 요즘 청소년들에게는 거부감을 준다. 암기형식의 표현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실정”이라며 “교과서 집필진이 표현을 풀어써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용어해설집 등을 종단 차원서 마련해 출판사에 배포하는 단기적 계획부터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 역시 “한글반야심경의 해석을 놓고 여전히 분분한 것처럼 교과서 내 불교 고유 용어를 한글로 바꾸기엔 무리가 따른다. 다만 지도안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불교서술은 비단 역사교과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다양한 사상을 담아내야 하는 윤리교과서 또한 비슷한 문제에 직면한다.

이에 대해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는 “윤리 분야에서는 철학적 개념이 많아 학생들이 어려움을 호소한다. 친절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교과서 집필자 중 불교전공자는 전무한 상황”이라고 교과서 집필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교육현장에서는 교사들조차 불교가 어렵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을 위한 참고자료 제작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화쟁 · 중관 · 유식 등 전문용어
교사 · 학생 모두 이해 어려워
“한글 세대에 한자는 외계어
‘불교 어렵다’ 인식만 가중돼”
사상 중심 윤리도 마찬가지

집필자 · 교사 위한 자료 시급
종단 차원 연수 · 자료집 개발
일선 지도교사에게 제공해야



100년 뒤 다시 볼 찬란한 고려문화 이웃서기 918년 건국된 이래 474년간 한반도서 왕조를 이룬 고려. 불교를 중심으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고려의 문화재가 총집합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기획한 ‘대고려 918 · 2018’ 전이다. 고려 건국 1100주년을 기념해 국내서 최초로 열린 이 전시회를 다시 만나려면 100년을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사진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도종환 문체부 장관, 배기동 국박관장, 국박 홍보대사 배우 정일우 씨가 전시된 고려문화재를 감상하는 모습. 글=윤호섭 기자 · 사진제공=조계종 홍보국

전법연구 산실 ‘불광연구원’ 사라지나

불광사 사찰운영위 해산 결정… 12월까지만 운영 예정

36차례 연찬, 7회 전법상 운영
교과서 · 명상전법 등 분야 개척
전법 · 포교연구 업적 상실 위기

전법 포교 연구에서 독보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불광연구원이 문을 닫게 됐다.

불광사는 지난 10월 경 사찰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불광연구원 해산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불광연구원은 12월 말까지만 운영된다.

불광사 법주 지오 스님은 “재정적인 이유로 해산을 결정했다. 불사 채무에 대해 대각회 측에 원금 상환 유예를 요청한 상태”라며 “내부 직원들도 다른 방식으로 업무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퇴원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현재 불광연구원은 해산 절차를 밟고 있으며, 서재영 책임연구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해고 통지를 내린 상태다.

불광연구원은 그동안 기존 불교계가 접근하지 못한 전법교화 영역을 개척해왔다.

불광연구원은 △광덕 스님의 사상과 업적 연구 △현대적 전법교화학 정립을 취지로 2010년 출범한 이후 36차에 걸친 학술연찬회를 열었다. 그 범주는 ‘초중고 역사교과서의 불교 서술체제’, ‘한국 종교지형의 변화와 불교미래’, ‘치유명상을 통한 신행의 확장과 전법’ ‘불교발전을 이끈 우바이들의 삶과 신행’ 등 다양했다.

총 7회까지 진행된 전법학술상도 학계의 지평을 넓혀왔다는 평가다. 전법학술상 수상자를 보면 군포교 분야의 함현준 군법사를 비롯해 불교복지포교 분야의 권경임 박사, 방송포교 분야의 최원섭 박사, 중국전법 분야의 김진무 박사, 대만전법 분야의 전영숙 박사 등을 비롯해 해외 렉소 쏘모 스님과 태국 프렘 소운사뭇 박사 등 원로와 소장, 국적을 불문하고 전법교화학 발전을 위해 노력한 학자들을 새롭게 조명하는데 노력했다.

함께 발표된 논문들은 사회 속 불교 방향을 진단한 특별기획과 함께 〈전법학 연구〉를 통해 총 13회 대중에게 소개됐다.

여기에 불광연구원은 최근 태국 출라롱콘대학 태국학연구소와 학술교류 협정을 맺는 등 해외 전법 모범사례 연구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었다.

불광연구원이 이처럼 전법교화학 분야를 홀로 개척해 온 것은 불광사를 창건한 광덕 스님의 유지에 따른 것이었다. 광덕 스님은 생전 ‘바라밀연구소’ 설립을 통해 다양한 사회현상에 대한 연구, 전법교화와 불교발전에 대한 의지를 밝혔고, 불광연구원은 그 뜻을 계승했다. 연구원은 광덕 스님 선양에도 앞장서 최근 광덕 스님 육성법문을 편집해 유튜브 채널을 신설했다. 여기에는 100편의 법문 영상을 13개 재생목록으로 분류해 사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효율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갑작스런 연구원의 해산 결정에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불교계 안팎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그간의 연구성과 때문이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는 “그동안 불광사는 전법연구 분야에서 대표적인 사찰로 불교계 안팎에 위상이 높았다. 자연스럽게 전법교화에서의 광덕 스님과 불광법회의 면모를 알리는 효과가 컸다. 다시 정상화돼 위상이 회복됐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김경집 진각대 교수도 “불광연구원은 그동안 불교계가 주목하지 못한 학문과 대중불교를 아우르는 영역을 개척했다. 전법학 연구는 선대 조사들의 포교방법과 원력을 밝히는 작업을 통해 후학들에게 지남(指南)이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부산 천태불자 관음정진 현장 A5 | 함께가요 강의실 – 불교미술로 본 붓다의 세계(도현 스님) A6



청소년을 위한 최초의 해설!
고등학생을 위한 금강경
고등학교 교과서에 『금강경』 수록!
현직 고교 교장선생님이 고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그 핵심을 간결하게 해설, 정리하였다.
김형중 지음/신국판/184쪽/값 11,000원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깨달음 논쟁
깨달음에도 종류가 있는가?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은 무엇인가? 지역과 학파와 종파를 아우르는, 깨달음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폭넓은 고찰!
불교학연구회 엮음/신국판/452쪽/값 25,000원

생활 속의 명상 안내서!
명상 매뉴얼
명상에 대한 이론적인 측면과 함께, 누구라도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 수록!
명상도 과학적, 체계적 훈련이 필요하다.
배철진 지음/국판 양장/296쪽/값 15,000원/자유문고

도서출판 운주사 | 자유문고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길바닥 종회’ 태고종, 또 ‘내홍’

집행부–反집행부 대결구도, 2015년 내홍 재연 우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한국불교태고종이 또다시 내홍에 휩싸였다.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과 이를 비판하는 중앙종회 및 지역종무원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2015년 초 前총무원장 도산 스님과 반대파였던 비상대책위원회가 벌인 폭력사태와 같은 내분이 재차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태고종 총무원(원장 편백운)과 중앙종회(의장 도광)는 12월 5일 서울 사간동 태고종 총무원사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136회 정기중앙종회를 놓고 마찰을 빚었다. 이날 총무원 측은 중앙종회의원들의 청사 출입을 제한했으며, 결국 중앙종회는 청사 앞 골목에서 노상 회의를 개원했다.

총무원 측은 “종회 일정을 연기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나 종회가 이를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종회의장이 연기 요청 사실을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정기회 대신 3원장과 종회 분과위원장, 총무원 부장단 연석회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종회 측은 “한 달여 전부터 종회 일정을 공지하고, 집행부 내년도 예산안 제출을 요청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종회를 연기해달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적의원 53명 중 39명이 참석한 종회는 △종무특별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 및 증빙 보고 △종법 제·개정 △호법원 사무처장 임명동의 △징계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하지만 2017년도 종단 세입세출 결산안 재심의 건과 2019년도 예산안 심의 건은 총무원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다루지 못했다.

12월 5일 제316회 중앙종회
총무원 청사 앞 도로서 열려
현 집행부 행정절차 문제제기

집행부 예산안 제출하지 않아
회기 내년 3월까지 연장 결의
집행부 “면책특권 위한 수단”

종회는 교육기금 전용 시 종회를 거치지 않은 집행부 행정절차를 비롯해 각종 특별감사 결과를 두고 집행부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정기회 회기를 내년 3월 15일까지 약 100일간 이어갈 것을 결의했다. 일부 종회의원들에 대한 총무원 규정부의 소환을 예방하자는 취지에서다.

종회의장 도광 스님은 “집행부와 종회간의 불편한 관계 속에서 창종 초유의 불미한 사정이 생긴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집행부의 예산안이 준비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해 다루겠다”고 말했다.


서울 사간동 태고종 총무원사 앞 이면도로에서 중앙종회가 제316회 정기회를 개원한 모습.

이 같은 노상 종회와 관련해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편백운 스님은 종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서 “종회의 문제제기는 이미 앞서 이뤄졌다. 특히 서로 규정부와 검찰 고발이 얽혀 현행법에 따른 결과가 나온 뒤로 일정을 연기하자고 요청한 것”이라며 “총무원이 보낸 공문을 종회의장이 받지 못했다고 거짓말하면서 일방적으로 회의를 열었다”고 주장했다.

편백운 스님은 이어 종회가 회기를 100일간 연장한 것에 대해 “초심호계원에 계류 중인 종회의장이 면책특권을 장기간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며 “총무원은 결코 종회의원을 무차별적으로 소환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갈등의 주체는 총무원 집행부와 중앙종회였지만 현재 태고종은 사실상 집행부와 반집행부의 세력대결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앞서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이 선출직인 대전종무원장 법안 스님을 직권면직하면서 한 차례 논란이 불거졌으며, 법안 스님 상좌인 연수 스님에 대한 봉서사 주지 해임 등으로 내홍이 깊어졌다. 현재는 지역종무원에서도 집행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 각 사안에 대한 입장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개개인의 고소고발이 잇따르면서 태고종의 내홍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조계종 승려복지제도 나아가야할 방향은?

12월 17일 정책토론회 개최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오는 12월 17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서 ‘제36대 총무원 승려복지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서는 △종단 승려복지제도의 발전 방안(박종한 승려복지회 사무국장) △제19교구본사 승려복지 시행 내용(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고령사회를 맞이하는 불교계 전략(이진호 동국대 의료원장) 등의 글이 발표된다.

토론자로는 미수 스님(동화사 기획국장), 묘장 스님(중앙종회의원), 지현 스님(대치노인복지센터 관장), 원묵 스님(백년대계본부 사무국장), 청아 스님(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김포시지부 사무국장), 김명순 부천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윤호섭 기자

“비구니회 특별교구, 필요성부터 진단”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회서 공청회 공감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비구니회 현안인 종법기구화와 특별교구 설립에 대한 필요성 진단에 나설 전망이다.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회(위원장 혜원)는 12월 4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서 제26차 회의를 열고, 오는 1월 예정된 집행부 워크숍에서 이와 관련해 논의키로 했다.

이는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전국비구니회 종법기구화와 비구니 특별교구 설립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우선적으로 비구니회의 전체 의견을 물어 찬반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회의에는 118명의 위원 가운데 위임 포함 75명이 참석했다.

전국비구니회 기획실장 효탄 스님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사안은 전국비구니회 의지만으로 추진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고, 집행부 내에서도 아직 의견을 조율하지 못했다. 1월 워크숍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면서 “비구니스님들 내에서도 찬반의견이 나뉘기 때문에 과연 필요한 제도인지 전체 대중 의견을 묻는 방법을 고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비구니 종회의원 진명스님은 “총무원장스님께서 비구니들을 위해 공약을 발표하셨지만 구성원 모두가 원하는지 의견을 묻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포럼이든 공청회든 전체 의견이 모이는 것에 맞춰 종회의원들의 활동도 달라질 것으로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비구니 종회의원 정관 스님 역시 “다방면으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고, 비구니회 내에서 TF팀을 꾸려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에 비구니 종회의원 보궐선거와 차기 회장선거가 있는 만큼 심도있게 논의해 비구니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운영위는 회의서 백천문화재단과 함께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원 인증교육 프로그램에 내실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비구니 종회의원 선거로 인해 공석이 된 부실장을 새로 임명했다. 기획실장에 서울 심택사 주지 효탄 스님, 교육부장에 포천 화원사 총무 유화 스님, 사회부장에 인천 청련사 주지 혜성 스님이 임명됐다.

윤호섭 기자



성운 스님의
보리수 아래서

12월은 거울입니다

12월입니다. 2018년 12월도 반을 살았습니다. 한 해를 잘 살았나 돌아보면서 확인하고 다시 새해를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踏雪野中去 不須胡亂行
今日我行跡 遂作後人程
‘눈덮인 들길을 걸어갈 때
행여 아무렇게나 걷지 말라
오늘 남긴 내 발자국이
뒤에 오는 이의 길이 되리니’

서산대사의 선시 ‘눈길을 걸을 때’입니다. 이 시는 우리가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왜 자기성찰을 해야 하는지, 왜 정도(正道)를 걸어야 하는지를 일러줍니다. 발자국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업이 그대로 찍힌 업경대입니다. 올 한해 자신의 발자국을 뒤돌아 보면 자기업의 무게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살았나. 이웃에게 보시를 했나. 계를 잘 지켰나.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주는 말을 하지 않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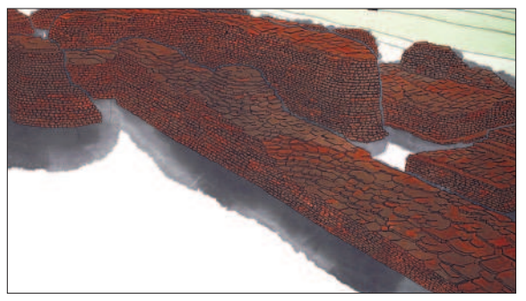
이렇게 업을 떡가루 치듯 체로 걸러내면 올 한해 삶의 손익 결산서가 나옵니다. 그 손익은 내년을 잘 살게 하는 밑천입니다. 선업은 더욱 북돋우고 악업은 마음을 바꾸고 행이 달라지면 선업이 됩니다. 12월은 반성과 참회와 감사 속에 신년계획을 세우는 달입니다.

* 12월을 송년모임의 달로 여겨 이 모임 저 모임 분주하게 다니면서 모임의 횟수를 과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들뜬 연말 분위기에 상대적으로 외로워 하거나 경제적으로 힘든 이들도 많습니다.

송년모임은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끼리 조촐하게 갖고, 외롭고 추운 곳에 온정을 나누면서 올해를 마무리 하면 새해가 따뜻하고 밝게 시작될 것입니다.

인디언의 달력을 보면 부족에 따라 12월을 침묵하는 달, 무소유의 달, 나뭇가지가 뚝뚝 부러지는 달이라고 부릅니다. 침묵은 마음속의 생각이 멈추는 것입니다. 마음의 여백이 확장되는 비움입니다.

소유에 얽매이지 않고 가진 것을 덜어내는 무소유도 침묵과 다르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고 마음도 물건도 비우는 자리입니다. 시시비비도 떠나고 갈애도 내려놓은 빈 마음입니다. 빈 마음으로 뚝뚝 부러지는 겨울나목을 바라봅시다.


반조하는 거울 그림 · 조향숙

발자국 비춰보며 송구영신
참회 감사 용서로 관계 원만
“들뜨지 말고 온정 나누자”

* 12월은 1년을 총체적으로 반조하는 거울입니다. 참회의 달이고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는 행주좌와 어묵동정을 도량삼아 몸과 입과 뜻으로 행복도 만들고 불행도 만들었습니다.

그 업을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 손익계산을 하면서 내가 지은 허물을 참회로 말끔히 씻어내어 업장이 소멸될 때 올 한해 총결산이 마무리 됩니다.

나홀로 참회가 아니라 미안한 사람에게 사과하고,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 감사합시다. 나를 불편하고 섭섭하게 한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합시다. 이들에게 연말에 연하장이나 전화로 진심을 담아 인사하면 관계가 원만해지거나 더욱 돈독해 집니다. 지금까지의 나와 인연있는 모든 존재들에게도 감사합시다. 여기서 내 삶은 다시 새로워 집니다.

12월의 거울을 맑게 닦아 청정심으로 2019년 새해를 맞이 할 때 진정한 송구영신이 됩니다.

〈삼천사 회주 · 동국대 석좌교수〉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자동승강장치 특허
자동승강장치 특허
절첩식 연등 특허
LED 전구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 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대불련 "대학생 포교, 영역 확장 필요"

조계종 포교원 주최 12월 5일 포교종책연찬회서

예비대학생 · 군장병 포교영역 확대
새 청년신행 문화 맞춰 변화 시사
기다리는 포교서 찾아가는 포교로
종단 차원 법사교육 등 지원 필요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청년 포교를 위해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의 활동영역을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12월 5일 '대불련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포교종책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서는 대불련의 영역을 재조정하고, 청년 포교의 방향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불련은 1963년 삼군사관학교를 포함한 서울지역 17개 대학이 참여해 만든 연합회다. 현재 18개 지부에 127개 지회가 등록되어 있다. 대불련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190여개 지회를 자랑할 정도로 청년 포교의 핵심역할을 담당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활동력이 감소하고 있다.

조용석 대불련 지도위원장은 달라진 청년층의 신행문화에 맞춰 포교방식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지도위원장은 "과거에는 포교대상과 영역을 지회, 대학교 불교 동아리로 국한했다면 최근에는 예비대학생, 20대 또래청년, 복학하게 되는 군종병과 군장병 등으로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예전처럼 동아리에 오게만 해서는 청년포교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지도위원장은 이를 위해 청년 신행거점을 위한 지역사찰과의 연계, 파라미타, 군종교구 등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조계종 포교원이 진행한 종책연찬회서는 대학생 포교의 영역확장과 포교기구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조 지도위원장은 "학교에 불교동아리가 없는 개인법우들과 동아리 활동을 원치 않는 청년불자들을 위해 거점사찰을 연계해주고, 예비대학생인 고등학생의 신행을 담당하는 파라미타, 군장병의 신행을 담당하는 군종교구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불교신행의 연속성을 지닐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종단 차원의 지도법사 스님들의 역량강화와 확충, 네트워크 강화에 따른 사무국 인력 확충에 대한 후원 등을 요청했다.

이밖에 이날 연찬회에서는 기독교계의 한국대학생선교회(CCC)와 같이 대학생 포교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법인의 필요성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불련 총동문회 부설 사단법인 '대불'의 최승태 대학전법지원단장은 "대불련은 청년포교에서 학생들이 중심이 된 연합체"라며 "대불련과 함께 동문조직, 종단을 아우르는 지도기구가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청년포교의 큰 그림을 그리고 범종단 차원의 네트워크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지원단장은 "CCC의 경우 전국 253개 대학에 CCC선배들로 구성된 1500명의 간사단을 파송, 캠퍼스 선교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동문조직의 역량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상위기구의 필요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포교종책연찬회에서는 문지영 대불련 제주지부장, 정세환 대불련 충북지부장, 도운 스님과 효록 스님 등 관계자가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다.

달라이라마 헌정할 '지구헌장' 공개된다

생명탈핵실크로드순례단(단장 이원영)은 12월 13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체칠리아홀서 '지구생명헌장2018서울안 및 후반기 생명로드 일정 발표행사'를 개최한다.

이원영 단장은 12월 6일 기자들과 만나 행사와 관련해 "2017년 5월 부처님오신날 서울을 출발했던 생명로드 순례단이 10개국 4천 여km를 걷다가 인도서 중단된 바 있다. 올해 동지에 재개될 후반기 순례에 앞서 달라이라마에게 헌정할 지구헌장을 12월 13일 공개한다"고 말했다.

지구생명헌장2018서울안은 2016년 여름부터 2년여 동안 순례단이 준비해왔다. 순례단은 상반기 순례때 멈춘 지점부터 약 950km를 걸어 다람살라에 도착한 후, 달라이 라마를 친견해 서울안을 헌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안에는 △생명존엄 △생명 연계 △생명공동체 △인류의 책임 △핵폐기 △생명침해 중단 △실천 의무 등 7가지 조문과 종교인을 향한 제언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지원 기자

"불교계가 앞장서 일본 사죄 받겠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 故김순옥 할머니 조문


원행 스님(나눔의집 원장)이 고인을 향해 조의를 표하는 모습. 사진제공=광주나눔의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순옥 할머니가 별세한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장례식장을 방문해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12월 5일 오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서 故김순옥 할머니를 조문, "불교계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일본의 사죄를 받기 위해 앞장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원행 스님은 이 자리서 유족들에게 "일본의 공식사죄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할머니를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다"며 "고인이 머무르던 나눔의집 원장으로서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전했다.

또한, 스님은 장례식장서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과 만나 고령의 생존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부탁했다.

스님은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피해할머니를 위한 집중 돌봄과 피해자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 인권교육을 위한 추모사업과 기념사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바란다"고 말했다.

故김순옥 할머니는 향년 97세로 12월 5일 오전 건강 악화로 타계했다. 고인은 2005년 나눔의집에 입소한 이후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및 증언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김지원 기자

佛국가서 이주 급증… "佛다문화 복지를"

조성희 순천향대 교수, 불교사회복지대회 포럼 발표

축적된 국제구호개발사업 경험
전국 사찰 네트워크 등 활용해
정책 사각지대 완화 역할 기대



불교문화에 친숙한 국가 출신의 이주자 유입이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불교계가 다문화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해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원행)이 12월 6일 개최한 제20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 포럼서 조성희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사진>는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불교사회복지 활동의 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불교복지가 다문화 영역에서 담당해야할 역할을 제언했다.

조 교수는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일본 순으로, 불교 문화가 익숙한 곳에서 이주한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불교복지는 급변하는 이주동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다문화 영역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교수는 "내년부터 추가 수탁운영 예정인 2곳을 포함해도 조계종복지재단이 수탁운영 중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전체 217개 중 6개로 2.8%에 불과하다"면서 "정부 사업의 위탁 · 운영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불교와 관련성이 높은 국가 출신이 포함된 이주자집단의 욕구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조계종이 추진해온 몽골드림센터, 라오스드림센터유치원 등 다양한 국제구호개발 · 해외긴급재난구호 사업 경험 등을 재단의 강점으로 꼽았다.

결혼이민여성에만 집중된 현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최근 급증한 유학생, 외국인 노동자 등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 있어 국제사업 운영 노하우가 도움이 된다는 게 조 교수 설명이다.

또한 "다문화 영역의 사회복지는 단기간에 급속도로 성장했지만 지역적 특색을 배제한 사업 중심이라는 한계가 있다"며 "복지재단은 전국 25개의 교구 본사를 아우르는 장점을 살려 이주자들이 모국과의 친근함을 이어갈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조 교수는 덧붙였다.

다문화 불교복지활동을 위한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는 △기본방향 및 정책의 제 설정 △다문화 관련 기관 확대 △대상자 맞춤형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개발 △다문화 전담 불교전문인력 양성 △다문화 사업 운영 재원 마련 △다문화 관련 연구 확대 등이 제시됐다.

한편 홍달아기 원광대 가정아동복지학과 교수(익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김영희 중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실무자 대표로 토론에 참여했다.

홍 교수와 김 센터장은 앞서 진행된 발제 내용과 관련 "공공 영역인 다문화 지원센터에서는 종교적인 접근의 한계가 있으니 장기 정착화를 대비한 다문화 복지방향을 설정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지원 기자 jayjace@hyunbul.com

국회 정각회장 강창일 의원 재추대



국회 불자모임인 정각회 명예회장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 사진)이 회장으로 재추대됐다. 19대 국회 후반기 정각회장을 지낸 강 의원은 20대 국회서 명예회장으로 추대된 후 2년 만에 다시 회장을 맡게 됐다.

강 회장은 12월 6일 국회서 열린 정각회 정기총회에서 20대 국회 후반기 정각회장으로 추대됐다. 강 회장은 취임 인사말을 통해 "19대 국회에 이어 다시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20대 국회 정각회장으로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부처님의 자비를 베푸는 마음으로 앞장서겠다"며 "국회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할 불교 현안들이 있다. 남북불교 교류 차원에서 진행될 북한사찰 순례, 사찰입장료 문제 해결, 템플스테이 예산 확보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20대 국회 후반기 정각회 임원에는 주호영 전임회장은 명예회장, 고문에 정갑윤, 부회장에 이원욱, 간사장에 이헌승, 간사에 오영훈 · 김순례 · 신용현, 감사는 신경민 · 이은재 의원이 임명됐다. 윤호섭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9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어학단기반 모집
•6년 ~ 고3 재학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 (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군입대 연기 가능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학자금 대출 가능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돈암동 83-2)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 (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 (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 (돈암동 83-2)
▶교학처 : (02)511- 2026, 2027
Fax (02)511- 2028
▶총장실 : (02)511- 1080
▶http://www.njutcm.co.kr

조계종, "'신계사 템플스테이' 추진 가능"

민추본, 12월 4일 간담회
사업 협조 요청 사실 공개

금강산관광 20주년행사 기해
北 신계사 관리 상태 점검
조불련에 지원 메시지 전달
내년 3월 사업 가시화 목표

김지원 기자 jayjace@hyunbul.com



조계종 민추본 본부장 원택 스님(오른쪽)이 조불련 소속 신계사 주지 진각 스님(왼쪽)과 신계사 경내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사진제공=조계종 민추본

조계종이 조불련에 신계사 템플스테이 사업 협조를 공식 요청했다. 이에 따라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정부에 제시한 '신계사 템플스테이'가 내년 가시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계종 대북교류 전담기구인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원택, 이하 민추본)는 12월 4일 기자들과 만나 "조선불교도연맹 측에 신계사 템플스테이 사업에 대한 협조요청 의사를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1월 18~19일 북한서 금강산 관광 20주년 남북공동행사에 참석한 총무원 사회부장 덕조 스님, 민추본 본부장 원택 스님, 불교문화재연구소장 제정 스님은 이 자리서 신계사 근황을 전하며 금강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북사업이 활발해질 것을 기대했다.

이번 금강산 신계사(주지 진각) 방문은 2015년 10월 신계사 복원 8주년 남북공동법회 이후 3년만이다. 본부장 원택 스님은 "방북 이틀째 신계사 전체를 세심히 살피고 주지 진각 스님과 환담을 나눴다"며 "3년 전 확인한 것보다 건물 내외 모두 상태가 개선됐다. 스님 등이 상주하며 자체적으로 꾸준히 관리 보존해 우려한 것과 달리 낙관적"이라고 전했다.

일부 기와의 부분 손상 등 약간의 보수는 필요하지만, 별도의 시설 건립 없이도 템플스테이 추진이 가능하다는 게 민추본 측 입장이다. 실제로 제정 스님 등은 이번 방문을 통해 신계사 내 요사채에 50명 이상 최대 1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방 14개를 파악했다.

사회부장 덕조 스님은 "원택 스님이 조불련 소속인 진각 스님을 통해 템플스테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필요사항을 파악해 지원 요청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뿐만 아니라 강수린 조불련 중앙위원장에게 조계종이 적극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원행 스님 친필 메시지도 전달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식수, 전기, 추가 보수용 자재 등 공급을 위해 민간교류가 선행돼야한다는 문제가 남았다고 민추본은 덧붙였다.

종단은 금강산 신계사를 중심으로 대북불사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민추본은 "신계사를 중심으로 템플스테이, 유물 제자리찾기 등을 계속하는 한편 표훈사 등 내금강까지 그 영역을 확장할 것"이라며 "내년 3월 북미회담 이후 정세에 따라 사업이 보다 더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환아 치료중단 막은 익명의 불자 선행 '훈훈'

익명의 불자모임이 경제적 문제로 치료 중단 위기에 처한 환아를 위해 보시행을 행해 미담이 되고 있다.

(사)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는 11월 29일 서울원자력 병원에서 환자 치료비 지원금 전달식을 진행, 후원금 6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생명나눔 이사장 일면 스님, 홍보대사인 배우 김하영,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환아 및 보호자가 참석했다.

해당 기금은 익명의 불자 모임이 생명나눔에 기부한 것으로, 기부모임은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 불자들의 친목모임을 통해 장시간 모아온 돈으로 알려졌다. 기부자들은 지원 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익명처리를 부탁하고, 전달식 불참 의사를 밝혔다.

선정환자인 백지현(여 · 14세) 양은 골형성 부전증이란 골격계 희귀질환을 앓고 있다. 익명의 기부자들은 "평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어린 생명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해왔다"면서 "아이의 성공적인 치유를 위해 모일 때마다 기도할 것"이라 전했다. 김지원 기자

조계종 권역별 교구신도회 간담회 성료

중앙신도회 12월 4일
수도권 지역교구신도회 간담회

탈 종교화 현상서 신도 역할
교구 신도화 활성방안 모색
신도회간 네트워크 추진 초점



중앙신도회는 12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수도권 교구신도회 간담회를 끝으로 2018 권역별 교구신도회 간담회 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날 교구신도회 간담회서는 신도회별 네트워크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계종 포교원이 주최하고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가 주관하는 '2018 권역별 교구신도회 간담회'가 12월 4일 수도권 교구 간담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수도권교구신도회 간담회에서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의 '신도조직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법문과 함께 점점 심화되고 있는 탈종교화 현상에서의 신도 역할과 교구신도회의 활성화 방안 등이 모색됐다.

이기흥 중앙신도회장은 "그동안 권역별 간담회를 통하여 각 교구별 상황이나 지역이 갖는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신도회 운영사례나 사업 등을 공유하며 정보교류의 협력체계를 이어가길 바란다"며 교구신도회 간의 꾸준한 소통과 교류를 당부했다.

2부에서는 최근 주목 받고 있는 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관람료와 관련해 前 환경부 차관을 역임한 정연만 중앙신도회 부회장이 현안에 대한 정부와 종단의 입장과 향후 예상 방향 등을 설명했다.

또 9개 교구 신도회 대표자를 중심으로 신도회 운영 및 사업계획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회향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측은 "4년째 이어온 권역별 교구신도회 간담회는 2015년 전국 24개 교구신도회 완결을 계기로 시작하여 그동안 교구신도회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고민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과 유기적인 연결망을 구축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포교원은 11월 16일 광주 무각사 불교대학에서 약 100여명의 교구신도회 임원 및 말사신도회와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20일 대구 팔공산온천관광호텔에서 영남지역 신도회 대표자 및 임원 약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단 신도조직 현황 공유 및 신도회 중점 사업소개, 교구별 활동 공유와 토론 등을 진행했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The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다 ⑰

김석종 불교호스피스협회 제주지부장

"제주하면 '호스피스' 떠오르도록"



김석종 제주지부장이 호스피스 환우들을 돌보고 있다.

김석종 불교호스피스협회 제주지부장은 제주도에서 '호스피스' 하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는 이다.

그가 호스피스 분야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2005년부터다. 2001년 조계종 관음사 부설 불교문화대학을 2기로 졸업한 그는 '제주목탁소리'라는 신행단체를 결성해 매월 제주도 사찰순례를 진행했다.

그러던 중 그는 정토마을에서 불교호스피스 교육 19기를 졸업한 이에게 소개를 받아 2005년 21기로 호스피스 교육을 받게 된다. 이후 21기 수상스님과 '바라밀호스피스'를 창립해 제주불교자비원, 태고원, 인효원, 제주의료원 등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2010년 제주관음호스피스회를 창립해 불교자비원과 태고원, 정효원, 제주대병원 암병동 등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 지부장은 "제주에서는 제주관음호스피스와 제주바라밀호스피스 두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며 "불교계가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데 호스피스가 가장 적합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부장은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한 어르신과의 일화를 소개했다. "뇌수술 후 사경을 헤메는 상태에서 한 환우분이 고통 받고 계셨습니다. 삶에 대한 끈을 놓치 못해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있어 가족들과 함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기도를 올리니 신기하게 표정이 평온해 지셨어요. 그 후 이틀 뒤 운명하셨는데, 편안하게 운명하셨습니다."

김 지부장은 "이처럼 호스피스활동을 하면서 삶과 죽음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 죽음이 무엇이고 어떻게 맞을 것인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 지부장은 제주에서 불교호스피스는 저변확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2005년 불교호스피스 시작
제주관음호스피스회 창설
"불교사회적 역할에 적합"

김 지부장은 "제주도에서 호스피스를 시작한지 오래됐지만 현실은 여러 어려움이 많다"며 "그 이유로는 불교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도 낮아 인적자원이 제자리 걸음"이라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활동대상 시설에서의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도 낮아 활동상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극복하면서 제주하면 호스피스가 떠오를 정도로 열심히 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는?

말기질환 환자 및 가족들의 생명존엄성을 높이기 위한 불교 호스피스 단체로서 2009년 창립됐다. 각 지역 · 지부 불교호스피스 활동을 총괄하며 조계종 승려연수 일환으로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1기를 모집 중이다.

▶조계종 승려연수교육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승려연수 30점 인증

①임상과 수행의 만남 ②환자의 심리와 욕구 ③영적 대화기법 ④죽음 현상들에 대한 직관 ⑤임종간호와 영적돌봄의 실제 ⑥불교의 생사관과 정토신앙 ⑦불교적 임종의식과 입관의식 ⑧임종시점에서 西歸直指의 방법론

- **교 육 비** | 25만원(법납 10년 미만 및 학인스님 5만원 감면)
- **접수문의** | 052)255-8522, 8524, 8530 / www.kbha.kr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미래의대체의학인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 ~ 6개월 (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과학연구소(소장:처명)

불전부·아함부·반야부
법화부·화엄부·정토부
붓다의 가르침
범본 한글 옮김 근본 육부 경전 정선

불전부 · 아함부 · 반야부 · 법화부 · 화엄부 · 정토부의 순서로 진행될 육부 경전 정선본은 병고 고익진 교수님께서 정선하시고 최봉수 교수님이 번역했다. 이 정선본의 강독은 매년 32강씩 7년에 걸쳐 이어질 계획이니, 많은 불자들이 "붓다의 가르침"을 따라 걸으며 부처님과 호흡을 함께 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 개강 : 2019년 1월 8일(화) 오후 7시 (2개월)
● 제1강(오후 7시) ● 제2강(오후 8시 20분)
● 내용 : 아함부 2 육육법설 법문(16강)
● 과정 : ● 아함 1 : 십이처 십업설 법문(16강)
● 아함 2 : 육육법설 법문(16강)
● 아함 3 : 오온 · 사제설 법문(16강)
● 아함 4 : 12연기설 법문(16강)
● 강의 : 최봉수 교수
● 장소 : 동산불교회관 2층 교육관 ● 문의 : 02)732-1206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반야회
동산불교대학·대학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 동산불교회관
TEL. (02)732-1206~8 FAX. 732-1207 www.dongsanbud.net



삼광사 불자들이 관음염송 천만독 천일정진결사 입재식에서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며 수행열기를 더하고 있다.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광명사 백만독 백일 관음기도. 광명사에서는 400여 불자들이 관음기도에 동참했다.



매주 토요일 진행되는 상월원각조사 오도기략 강의서 불자들이 공부하는 모습.

수행으로 여는 부산 천태불자 관음정토

삼광사 · 광명사, 종단 대표 수행법으로 겨울나기

삼광사 천일관음정진 결사
광명사 백일 백만독 수행
상월 원각조사 뜻 기리며
체계적 강의로 지식 더해
"모든 이들에게 권하고파"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 천태불자들이 관세음보살을 칭명하는 관음정진 수행으로 불퇴전을 각오했다. 불자들은 차가운 바람이 부는 겨울도 정진의 열정으로 녹이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기도 소리로 법당을 가득 채웠다. 부산의 천태불자들이 관세음보살의 불국토를 꿈꾸면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힘을 얻길 간절히 기도하는, 스스로 관세음보살이 되는 순간이다.

천태종 삼광사(주지 세운)는 12월 1일 경내 지관전에서 '국운융창 · 인류평화 · 불국토 건설 관음염송 천만독 천일정진결사' 시작을 알렸다. 입재식은 개회선언으로 시작해 △삼귀의 △반야심경 △법어 봉독 △국운융창기원 △개회사 △법문 △결사문 낭독 △내빈소개 △관음정진 △발원문 순으로 진행됐다.

입재식에서 주지 세운 스님은 결사문을 읽고, 오직 수행으로 이룰 '관세음보살 대자대비 연화정토' 원력을 강조하며 한국불교 역사 가운데 결사가 이룬 성취를 설명했다.

세운 스님은 "오늘날 물질문명의 급속한 발달로 각종 편의와 안락을 누리는 가운데 지혜의 종자와 자비의 씨앗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현대사회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봉암사 결사'를 비롯해 '정혜결사', '백련결사' 등 한국사에 크고 작은 결사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우리 불교사를 이끌어왔다"며 "장구한 결사의 역사와 정신을 이어받아 삼광사 대중을 위시한 천태불자가 천일정진 결사를 결행한다"고 밝혔다.

신도들을 대표해 삼광사 재무 무성 스님은 발원문을 통해 결사의 초심을 잊지 않고 정진에 매진할 것을 발원했다.

무성 스님은 "이 결사를 기필코 성취해 신심을 배가하고 청정생활을 실천하며 회사귀일의 천태법문을 배우고 전하겠다"며 "타락한 시대정신을 바르게 세우고 국가의 발전과 평화통일, 민족번영을 이루는 불국토 건설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서원했다.

수행에 동참하는 불자들의 결심도 굳건했다. 안영희(44) 불자는 "천일 동안 수행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벅차고 기쁘다"며 "지금의 초심을 잊지 않고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미향(67) 불자는 "연화정토를 위한 원력에 동참하고 힘껏 밤마다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며 기도할 것을 생각하니 더욱 환희심이 난다"며 "이런 기회를 마련해준 주지스님께 감사하다"고 답했다.

수행점검을 위해 삼광사는 수행수첩을 불자들에게 나누고 매일 스스로 점검하며 초심을 잊지 말 것을 당부했다.

입재식에는 주지 세운 스님, 천태종 원로위원 정산 스님, 나경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서은숙 부산진구청장, 이헌승 삼광사 신도회장을 비롯해 사부대중 1만 명이 참여해 결사에 의지를 다졌다.



삼광사 천일정진결사에서 천태종 원로위원 정산 스님이 법문하고 있다.

삼광사는 회향일인 2021년 8월 26일까지 매일 오전 9시~11시 30분, 오후 2시~5시 30분, 저녁 8시~11시 30분, 밤 10시~새벽 3시 30분 총 15시간을 4차례 나눠 관음정진을 진행한다.

삼광사뿐만 아니라 부산 천태종 광명사에서도 '관음정진'의 수행 열기가 사부대중의 삶을 뜨겁게 채우고 있다.

광명사(주지 개문)는 현재 관음정진 백만독 수행을 진행 중이다. 지난 10월 22일부터 내년 1월 31일, 100일 동안 관세음보살을 백만 번 부르며 하루 5시간 이상 기도하고 있다. 기도에는 광명사 대중 400여 명이 동참 중이다.

백만독 백일기도 관음정진은 천태종 상월원각조사의 유지를 잇는 종단 대표 수행 중 하나다. 하지만 수많은 천태사찰 가운데 광명사는 특히 신심이 돈독한 불자들이 많아 매년 빠지지 않고 수행정진을 하는 모범사찰로 손꼽히고 있다. 광명사 신도들이 스스로 주지스님을 찾아가 백만독 관음정진을 요청할 정도다.

주지 개문 스님은 "깊은 신앙심을 통해 살아 있는 불교운동을 실천하는 광명사 불자들"이라고 신도들을 높이 평가한 뒤 "모든 대중이 백만독 관음정진을 해마다 스스로 먼저 원하고, 낮이나 밤이나 생활 가운데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며 부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도 수행뿐 아니라 특별강의를 마련해 바른 수행의 길을 일러주는 시간도 마련했다. 이번 정진 기간 동안 매주 토요일 밤 10시 법당에서는 '상월원각대조사의 오도기략' 강의가 진행된다. 강의는 총 13회에 걸쳐 열리며 강사는 금강대 교수인 광도 스님이 담당한다.

오도기략은 천태종 2대 종정 대충 스님이 설명한 상월원각조사의 일대기, 탄생부터 출가와 대각까지 구도여정을 요약정리 한 것이다. 정리는 조명기 前동국대 총장이 담당했다.

광도 스님은 "오도기략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월원각 대조사님이 관음정진을 하며 묘법을 알았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천태종 소의경전이 묘법연화경이고, 25품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고 설명했다.

즉, 관음정진이 중창조인 상월 원각 스님의 수행법이자 관세음보살의 기도 가피를 몸소 체험하는 기도법이란 설명이다.

주지 개문 스님은 "불자들이 실참을 통해 수행의 이익을 알 뿐 아니라 체계적인 강의를 통해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된다"고 강조했다.

수행에 동참한 불자들은 관음정진을 통한 관세음보살의 기도 가피를 몸소 체험한다며 수행 소감도 전했다.

최재일 (74) 불자는 "백만독 관음정진 수행에 5회째 동참하고 있다"며 "기도 중에 바라던 소원도 이뤄졌다. 진심으로 모든 이들에게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춘자(65) 불자는 "매일이 백만독 정진 기간이라 생각하고 기도중이다. 건강이 안 좋았는데 기도 가피로 많이 좋아졌고 발원하던 가정 화합도 이뤘다.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을 정도로 행복하다"고 답했다.

광명사는 관음정진의 수행 이익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광도 스님은 "기도 중에는 번뇌 망상이 그쳐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공부가 된다"며 "또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항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생활 가운데 여러 경험으로 신심이 성장한다"고 기도 가피를 강조했다.

광명사 백만독 관음정진 회향은 1월 31일 밤 10시이며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인도 · 네팔
8대 성지순례 11일
출발일 I 2019년 3월 8일 출발
225 만원

창립30주년특별기획
실크로드·돈황 10일
출발일 I 2019년 4월~10월 (매월출발)
239 만원~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푼힐 트레킹 9일
출발일 I 2019년 3월~4월 중 출발
259 만원~

· 포함사항 - [노옵션] 왕복항공료(유루세, 공항세 포함), 식비, 숙박비, 여행자보험, 관광지 입장료, 팁경비 포함
· 불포함사항 - 개인적 성격의 지출, 짐 포터·룸메이드 팁
· 10명 이상 모집시 출발 (모집인원에 따라 금액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02-720-9600
마음여행 Since.1989 실크로드여행사
상세일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aumtour.com

서울 길상사 일요가족법회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서울 길상사(주지 덕일)은 12월 2일 서울 성북구 길상사서 일요가족법회를 열고, 도현 스님을 법사로 초청했다. 이날 스님은 "불교만다라는 수인(手印), 색상 등의 표현을 통해 불보살의 깨달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강의했다.

정리=김지원 기자

불화 한 장이 품은 '화엄정토' 세계

주제 : 불교미술로 본 붓다의 세계

도현 스님



도현 스님은… 서울 조계사서 해인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91년 사미니계를, 1998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미술전공으로 석사졸업 및 박사를 수료한 스님은 현재 용인 구현선원에 거처하며 동국대 예술대학 등에 출강하고 있다.

인간 형상으로 불상 조성된 이래
부처님마다 대표적 手印 나타나
門 4개 · 壇 8개 만다라 공통도상
동서남북 상하좌우 佛세계 의미

여러분들은 사찰에 들어서는 순간 불교미술과 만납니다. 일주문을 들어오면서부터는 부처님의 세계이고, 건축물과 회화, 단청 등 사찰 내 모든 것들이 바로 불교미술입니다.

불교미술로 표현한 부처님

부처님은 불교미술에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표현됐고, 그 표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찰 일주문을 지나면 대웅전, 산신각 등 많은 전각들이 있습니다. 그 전각 안에 계시는 주인은 각각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모여 대사찰을 형성합니다. 다시 말해 사찰로 들어온 것은 부처님의 세계, 화엄세계에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웅전에 들어가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십니다. 먼저 석가모니 부처님을 그린 불화를 보겠습니다. 사찰 벽화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부처님의 탄생' 장면입니다.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이 세상에 가장 얻기 어려운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 일어나지 않겠다고 다짐한 뒤 삼매에 들었습니다. 참선하는 부처님 왼편에는 마구니의 왕 파순이 그려져 있습니다. 관능적인 옷차림을 입은 화신들을 보내 유혹해도 흔들림이 없자, 모든 마구니들이 활을 쏘고, 번개를 내리며 총공격 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때 살며시 깼다가 오른손으로 땅을 지긋이 누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이 의지하는 이 대지. 움직이는 것이건 움직이지 않는 것이건 모든 것에게 공평한 대지가 나를 위해 진실한 증인이 될 것이다. 대지여, 나를 위해 증언해주십시오."

그러자 대지의 여신이 깨어나 땅에서 솟아오릅니다. 다음 그림은 땅에서 솟아오른 여신이 '부처님은 깨달을 것이니 너희들은 물러나라' 고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하는 장면인이 그림이 곧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마구를 항복시키는 모습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트레이드마크는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 땅을 짚어서 마구를 항복시킨다는 의미)' 입니다. 좌선할 때 손 모양에서 오른손을 풀어 무릎에 얹고, 왼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는 손 모양이죠. 이 수인을 한 부처님 그림을 보면 누가 봐도 석가모니 부처님인 것을 알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다음 3장의 사진을 보면, 석굴암 석가모니불과 부다가야 대탑 본존불, 미얀마 석가모니불이 있습니다. 수인이 모두 같죠? 시대에 따라 부처님 모습은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간 통통하다든가 마르다든가, 표정 등 변화는 있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의 상징인 수인은 바뀌지 않습니다.

불상이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는 부처님 열반 이후입니다. 그렇다면 불상이 나타나기 전 사람들은 어떻게 부처님을 나타냈을까요? 무불상시대(BC6~AD1세기 후반) 부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존귀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인간의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은 것이죠. 부처님 대신 법륜, 불탑, 스투파, 보리수, 불족적, 금강대좌, 산개 등 대표적인 상징물로 표현했어요. 이 시기 불교미술로는 산치대탑, 바르후트탑, 아마라바티탑 등이 있습니다.

AD1세기 경 이후부터 부처님 모습이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부처님 모습의 형상을 불상으로 조성하면서 불교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까지 신행생활은 스투파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불상이 등장한 뒤에는 불상 중심으로 바뀐 것입니다. 바로 이 시기를 불상시대라고 합니다.

만다라 표현에 담긴 의미

저는 불교미술 전공자로서 주로 만다라를 그리고 있습니다. 만다라는 오로지 부처님의 세계를 표현하는 미술입니다. 만다라는 '본질적인 것을 가진 것' '최고 · 최상의 것을 가진 것' 이란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다라의 어원은 인도 고대문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리그베다〉에서는 신에 대한 찬가를 시로 썼는데, 이 시를 묶은 단락을 만다라라고 불렀습니다. 시간이 흘러 만다라란 단어는 일상에서 쓰는 표현이 됐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수행자들이 더 나은 수행환경을 위해 산중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산으로 오게 되면 그곳에 수행자가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표시하는 줄을 치게 됩니다. 산에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수행자가 있는 곳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행자가 수행하고 있음을 알게 됨과 동시에 청정한 신의 세계와 신의 세계가 아닌 곳으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불단 역시 청정한 부처님의 세계와 중생의 세계를 구분해 높여 놓습니다. 이처럼 불교만다라에는 부처님이 계신 최상의 세계란 의미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앉은 이 세계가 중생계, 단이 모셔져 있고 부처님이 계신 곳이 만다라의 세계입니다.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경전에서는 부처님의 세계, 만다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대일경〉에서는 만다라의 집합을 여래의 진실한 공덕이 한 곳에 모인 것으로서,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맛으로서 불성에 비유합니다. 만다라는 모든 불보살이 있는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다라는 표현 방법에 따라 종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법만다라경〉에서는 만다라의 성질에 따라 자성 · 관상 · 형상 만다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형상만다라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형상만다라에는 존상 만다라, 상징 만다라, 문자 만다라, 입체 만다라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존상만다라' 는 부처님의 모습을 그린 회화입니다. 둘째, '상징만다라' 는 부처님을 대표하는 보리수, 상계, 불족적, 도검, 연화, 보주 등 상징물을 그린 경우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상징 만다라라면 보리수 가지를, 지장보살님은 석장 등을 그릴 수 있겠죠. 그 상징만 봐도 어떤 부처님인지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세 번째 '문자만다라' 는 그야말로 범자로 표현한 그림이겠죠? '옴' 자 등 압축적인 글자 하나만으로도 부처님을 뜻하는 문자 만다라가 됩니다. 불자들이 사경을 하는 것 역시 이 만다라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체만다라' 는 목상, 소상, 주상 등과 같이 형상을 입체화한 존상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만다라 표현들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정 가운데 부처님 옆에 또 다른 부처님의 세계가 있는 모습들인데요. 이는 동서남북 좌우상하 모든 세계를 부처님 세계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다라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원을 '화염륜' 이라고 합니다. 화염륜은 내부에 외적이 침입하는 것을 막고 신성한 공간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한 중생의 무지함을 붓다의 지혜(불꽃)로 사라지게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안쪽에 있는 '금강원' 은 차츰 부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표현인데요. '금강저(바즈라)' 는 인드라신의 무기로서 부처님의 금강과 같은 지혜로써 마음 속 어리석은 망상의 분별을 파멸시키고, 지혜광명을 발현하는 보리심을 상징합니다. 그 안에는 연꽃을 표현한 '연화륜' 이 있습니다. 연꽃은 청정한 세계를 의미하며 법계의 본성 자리를 상징합니다.

부처님의 세계를 성(城)의 모습으로 구현한 입체만다라를 보겠습니다. 부처님 세계 내부는 동서남북 4개의 문으로 영역이 나눠집니다. 앞서 부처님마다 고유한 수인이 있어 이를 통해 부처님을 구분할 수 있다고 했었죠? 수인과 마찬가지로 색상으로도 어떤 부처님인지 알 수 있습니다.

중앙에는 대일여래 즉, 비로자나 부처님이 있습니다. 비로자나불을 대표하는 색은 흰색입니다. 모든 곳을 빛으로 비춰준다는 의미입니다. 서쪽엔 적색의 아미타불이 선정인을 취하고 있습니다. 선정인은 애정을 갖고 살아있는 자를 조용히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남쪽에는 황색의 보생불(보배를 낳는 여래)이 모든 것을 다 들어준다는 자세인 여원인을, 북쪽에는 녹색의 불공성취불(일체 원하는 바를 반드시 만족시키는 여래)이 시무외인을, 동쪽에는 청색의 아촉불이 거짓말을 입에 담지 않겠다고 대지의 신에게 맹세하는 자세인 촉지인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세계는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요? 만다라에서 화엄세계를 동서남북 4개의 문으로 표현한 것은 4무량심을 상징합니다. 4가지 한량없는 마음, 자 · 비 · 희 · 사는 수행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4무량심 수행을 해야만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자(慈), 모든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비(悲), 남이 즐거우면 함께 기뻐하려는 희(喜), 남을 평등하게 대하려는 사(捨)를 닦으면 평온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4개의 문 안쪽에는 8개의 단이 주변을 둘러싸고 중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8개의 단은 곧 팔정도인 정견(正見) · 정사유(正思惟) · 정어(正語) · 정업(正業) · 정명(正命) · 정념(正念) · 정정진(正精進) · 정정(正定)을 상징합니다.

결국 만다라는 4무량심을 근본으로 삼고, 8정도를 수행의 기초로 닦는다면 부처님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가운데 본존불에 따라 주변에 그려진 상징물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4개의 문과 8개의 단은 모든 만다라의 공통적인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만다라에 표현된 부처님의 세계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만다라는 어떤 모습인가요? 잠시 입정에 들어 나의 만다라는 어떤 세계인지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명산 대찰 수억대의 복잡한 시설보다

본사의 방송시스템은 앰프다루기 1초! 가격은 1~2백만원대이지만 염불이 아주 편하다는 입소문의 힘으로 영남권 1천여의 시설에도 A/S를 생명같이 하여 17년간 고장 한번 없이 새 것 같이 사용합니다.

(현장 비교시 광고와 추호라도 다를 시 누가 더 손해 망신?)

염불 전문시설 외에도

500명 수용, 악기 연주, 노래산사음악회 / 공양간 노래방
각종 방생용 앰프 구경 ▣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월등한 소리

▣ **상담 구경 조건으로**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백세시대** 박 공희 올림

제 54회 **골굴사 청소년 화랑수련회 겨울캠프**

원효스님의 열반 성지! 신라 화랑들의 기상이 담긴 선무도 총본산 골굴사에서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심신수련을 위한 제54회 화랑수련회 겨울캠프를 개최합니다.
21세기 새로운 리더로서의 자질을 기를 수 있는 신화랑 캠프! 자연속에서 공동체 수행생활을 체험하며, 호연지기를 기르고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청소년 화랑수련회와 함께 하세요.

■ 언 제 : 2019년 1월 6일(일) ~ 1월 12일(토) [1주간]
■ 모집인원 : 60명
■ 대 상 : 초등학생 ~ 중학생
■ 수련회비 : 49만원
*교재비 포함이며 수련비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국민은행 823301-01-476572
(예금주: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
■ 준 비 물 : 세면도구·수건·필기도구·양말·운동복·운동화 · 목도리 · 장갑 등
■ 휴 대 금 지 : 현금, 휴대폰, MP3 등
■ 예약 및 문의 : 054-775-1689, 054-744-1689
■ 홈 페 이 지 : www.sunmudo.com

주요 프로그램

호연지기와 인성함양 프로그램
선무도수련과 힐링명상, 승마/국궁, 나를 찾는 108배, 예절교육
주지스님의 불교 강의와 발우공양 지도



원어민과 함께 하는 캠프
원어민 영어 회화 수업
영어로 배우는 선무도 수련 (원어민 사범지도)



문화유적지 답사를 통한 현장 학습
동경주 유적답사
기림사.감은사지.문무왕릉
역사교육체험-경주국립박물관



※ 본 프로그램은 종교를 초월한 청소년 인성교육을 목표로 합니다
1500년 전통사찰 · 외국인 7천명 이상이 참여하는 템플스테이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 · 선 무 도 화 랑 학 교

茶로 초의와 교류한 지방 관리



박동춘의
초의스님 前上書

㉓ 반계 이용현의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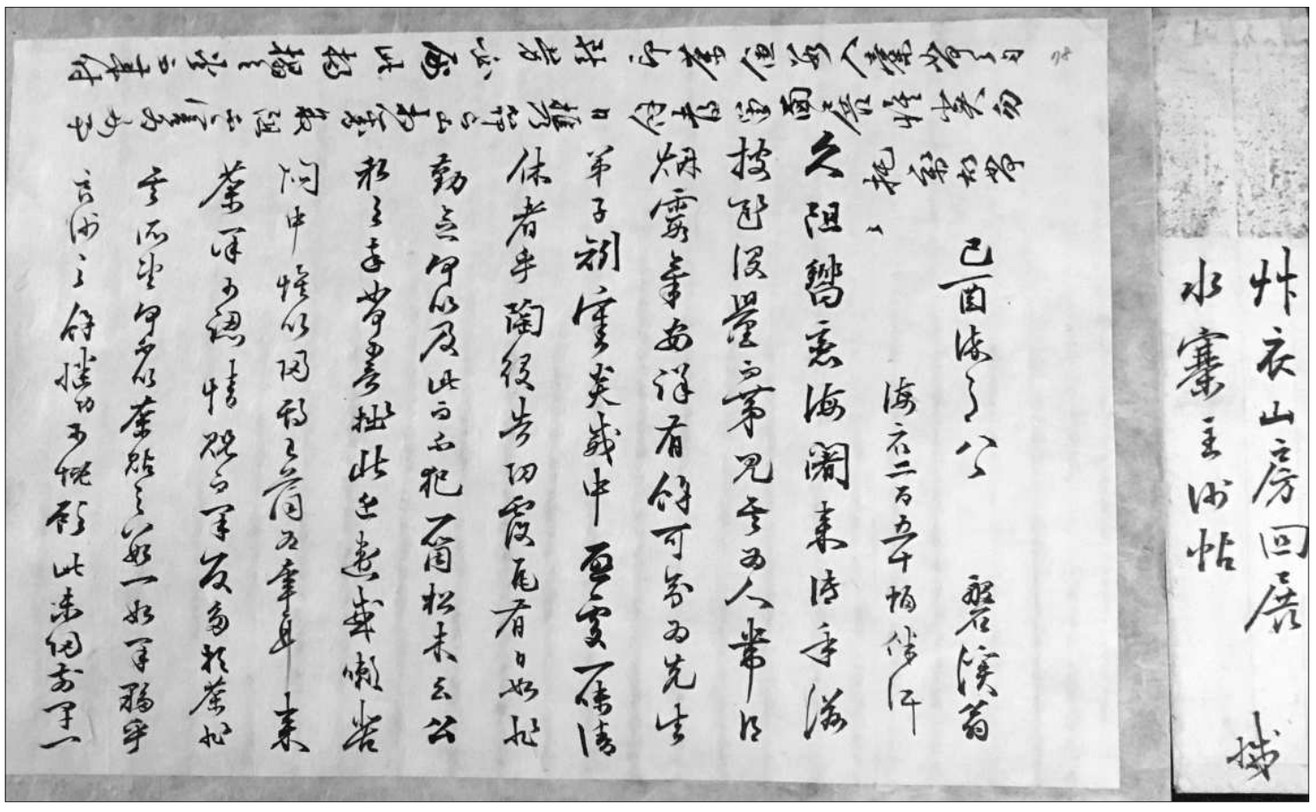
이용현(李容鉉)은 조선 후기의 인물로, 추사 · 초의와 교유했다. 그의 호는 반계(磻溪)다. 그의 행적은 일부분만 알려졌는데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니 〈순조실록〉15권, 1832년(순조 12년) 2월 29일 기사에 "전 선전관(宣傳官) 이용현(李容鉉), 의병장 송지렴(宋之廉) 등과 함께 윤제를 이끌고 동북쪽으로 들어갔는데, 회(灰) 2천여 석을 운반해 한쪽 편에다 쌓아 화살과 탄환을 막고, 겸하여 성을 넘을 사닥다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굴토군(堀土軍) 11명에게는 몸을 막을 수레를 만들어 주어 일시에 아울러 거행하도록 하였습니다"라는 기사가 보인다.

또 〈철종실록〉 3권, 1852년(철종 2년) 12월 10일에 "서헌순 · 이용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서헌순(徐憲淳)을 이조참판(吏曹參判)으로, 이용현(李容鉉)을 경상좌도 병마절도사(慶尙左道兵馬節度使)로" 재임되었음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이용현은 이근주의 아들로, 선전관과 경상좌도 병마절도사를 지낸 관리이며 한 때 전라 우수사와 제주목사를 역임했던 인물이었다.

그렇다면 그가 초의를 만난 건 어느 때였을까. 아마 그가 제주목사로 재임했던 1843년경으로 추정된다. 당시 초의는 추사의 귀향지 제주를 찾았고, 이곳에서 반년을 머물다가 대흥사로 돌아왔기에 이용현은 이때 만났을 터이다.

이보다 앞서 제주목사를 역임했던 인물은 이원조(李源祚, 1792~1872)이다. 그의 재임 기간은 1841~1843년 6월이다. 그러므로 이용현은 이원조의 후임으로 부임돼 1843년 6월에서 1844년까지 제주목사로 재직했던 것이다.

이용현과 초의는 제주에서 만난 이후에도 교유가 이어졌는데 이는 그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에서 확인된다. 더구나 그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2통이 남아 있는데 하나는 1849년 6월에 보냈고 같은 해 윤달에 보냈다. 이 무렵 이용현은 전라우수사로 재임 중이었다. 우선 1849년 6월의 편지를 살펴보자. 이 편지의 크기는 38.1×25.4cm이며 그 내용은 이렇다.



1849년 6월 반계 이용현이 초의에게 보낸 편지. 대흥사 송사 관련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오랫동안 막혀 있어 그리웠습니다. 범해 스님이 와서 전해 준 그대의 편지를 펴보니 위로됨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됨을 보니 연하의 기운을 띠고 있어 찬찬하고 자세하여 여유가 있으니 선생의 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중에도 머문 곳이 일미의 맑고 아름다운 것임이랴. 그릇을 만드는 노역의 성과를 알리고 기와를 덮는 날을 기약하니 만약 부지런한 마음이 아니면 어떻게 여기에 이르겠습니까. 그러나 한 그루의 소나무도 범할 수 없습니다. 공사(公私) 간에 요행을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상황은 근래 감기와 기침으로 고통스럽고 민망한 중에도 오직 돌아가기로 기약한 날이 이미 다 되어 다행이라 여겨질 뿐입니다. 보내주신 차와 과일은 마음으로 주는 선물이라 여깁니다만 과일이 도리어 차보다 많음을 바라던 것이 아닙니다. 어찌 차 봉지 수가 하나같이 과일 덩어리만 못합니까. 정말로 감사하지만 이어지는 공은 탄식할 만합니다. 돌아보니 이곳에서 아직 돌아가지 않을 때이니 어느 날 지팡이를 짚고 하산하시어 서로 보며 막힌 것을 풀어도 해 되지 않는 좋은 일일 겁니다. 비록 힘들겠지만, 반드시 이에 부응하여 의자 쓸어 놓기를 바라며 (스님이)올 때 차를 넉넉하게 포장하여 주머니에 담아 오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나머지는 모두 남겨두었다가 뵙고 말하겠습니다. 오직 병고에 의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1849년 6월 8일 반계옹 이용현. 김 250폭을 땀과 함께 보냅니다.

久阻嚮恋 海闍來傳手滋 披慰沒量 而第見其爲人 帶得烟霞氣 安詳有餘 可知爲先生弟子 剡審炎威中啓處一味淸休耆乎 陶役告功 覆瓦有日 如非勤念 何以及此 而不犯一箇松木云 公私之幸 如何可言 揣狀近患感嘸 苦悶中 惟以歸期已滿爲幸耳 來茶果可認情貺 而果反多於茶 非其所望 何不以茶貼之數 一如果夥乎 良謝之餘 繼功可慨 顧此未歸前早 一日携笻下山 相對叙阻 不害爲好事 雖勞 必副此掃榻之望 而來時印茶 優數入橐 如何如何 自餘都留面展 惟冀勿托病故 如何如何 己酉 流月 八日 磻溪翁 海衣二百五十幅 伴汗

위 편지는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다. 우선 대흥사 사중에서 임의대로 소나무를 벤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그의 편지에 "한 그루의 소나무도 범할 수 없습니다"라고 한 대목이다. 소

추사 · 초의와 교류했던 이용현
전라 · 경사 등 지방관으로 활동
추사의 제주 귀향시절에 조우
"좋은 차 나눠달라" 청하기도

나무와 관련된 송사는 1841년 10월에 소치 허련이 초의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언급된 바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소나무를 해친 것은 단지 소란하게 논할 수 없습니다. 비록 영읍의 도움이 약간에 있다할지라도 승가에서 답하고 행하는 것을 보면 공적인 것을 빙자하여 사적으로 행하여 송추(松楸, 산소 가에 심은 소나무)를 함부로 잘랐고 해변은 엄하게 금하는 것인데 이처럼 함부로 하였으니 약간의 무리가 결코 마음먹은 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바야흐로 결백을 밝혀야 할 때입니다. 하루 저녁 서로 마주 보고 대화를 하게 되면 대수롭지 않게 큰 절이 폐막(고치기 어려운 폐단)에 이를 것입니다.

而松木之亂犯 不可但以駭然論 雖有營邑之許助 看作僧家之應行 憑公行私 亂斫松楸 海邊重禁 若此蔑然 若箇輩 決不可尋常處之 方欲發廉之際矣 一夕陪話於對軒之次 尋常語到大寺弊瘼

소치의 편지 내용에 해변의 방풍용 소나무나 무덤가에 심은 소나무는 마음대로 벨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엄격히 법으로 금지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대흥사에서 소나무를 자른 사건이 발생했다. 이 송사를 무마하기 위한 초의의 노력은 이 편지의 행간에도 드러난다. 아무튼 이 송사를 무마하기 위해 초의는 소치의 인맥을 동원한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소치가 초의에게 요청한 것이 초의차(草衣茶)였다. 이미 초의차는 경향에 이름이 있는 명사가 원했던 차였고 지방 관리도 얻고자 했던 차였다는 것이다.

이용현도 차를 즐겼던 관료였다. 초의가 그에게 차와 과일을 보낸 것에 감사하면서도 "보내주신 차와 과일은 마음으로 주는 선물이라 여깁니다만 과일이 도리어 차보다 많음을 바라던 것이 아닙니다. 어찌 차 봉지 수가 하나같이 과일 덩어리만 못합니까"라고 한 대목이 눈에 띈다. 그러기에 과일보다 차를 더 원하는 이용현의 마음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리라.

또 다른 그의 편지는 1849년 윤달에 보낸 안부 편지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봄이 다 가고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까마득히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설령 일이 많아 번거롭고 바쁘더라도 힘든 정무 속에서도 회상합니다. 마음으로 계획할 즈음에 모든 사정을 알았으니 하물며 손해가 날 것은 없을 것이니 정말로 위로가 됩니다. 다만 생각건대 구운 기와(燔瓦) 만 장은 많다고 생각하여 괴로울 것입니다. 소나무와 잡목을 함부로 벨 수 없고 불쏘시개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이는 관청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이 말을 방심하여 버릴 수 없을 따름입니다. '시냇물은 비파소리요, 송풍은 거문고 소리(澗瑟松琴)라, 여린 푸름, 새가 우네(鳥啼嬾綠)'은 모두 시를 짓는 데 도움이 되는 재료입니다. 걸출한 시구를 하나하나 기록해 보이는 듯한데, 어떻습니까. 단오절에 부채 한 자루를 보냅니다. 파리를 쫓는 도구로 삼으시길. 햇차는 만들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좋은 차의 맛을 자주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흔들리고 빠뜨려 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1849년 윤월 20일 반계

春盡夏啓 漠然無聞 雖在忽劇 懷想政勞 際接心劃 備認爲況無損 良慰 第念燔瓦万張 想多爲惱也 能不犯松雜木 以柴草爲之否 顧此典守也 故不得放心又此說去耳 澗瑟松琴 鳥啼嬾綠 俱助詩料 如有傑句 一一錄示 如何如何 節箑一把送似 以爲揮蠅之資也 新茗想製 優數分味 是望是望 自餘擾漏 不究 己酉 閏月 廾日 磻溪

이 편지는 그가 전라우수사로 재임할 때 초의에게 보낸 것인데, 대흥사에 "구운 기와(燔瓦) 만 장은 많다고 생각하여 괴로울 것"이라는 대목이 보인다. 바로 대흥사에 구운 기와 만 장을 요구한 것이다. 조선 후기 대흥사에 부과된 토공(土貢)은 대개 차, 동백기름 등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운 기와도 공출되었음을 드러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나무와 관련된 송사는 대흥사 사중이 늘 연루될 소지가 많았던 듯한데, "소나무와 잡목을 함부로 벨 수 없고 불쏘시개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이는 관청의 법입니다"라고 한 점이다. 이 밖에도 이용현은 "햇차는 만들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좋은 차의 맛을 자주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당시 초의가 차를 만든 시점이 대략 입하(立夏)라는 점에서 이 편지는 5월 무렵에 보낸 것이라 여겨진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초의에게 시를 요구한 점이다. 당시 선비의 소통언어는 시였다. 그러기에 그도 "시냇물은 비파소리요, 송풍은 거문고 소리(澗瑟松琴)라, 여린 푸름, 새가 우네(鳥啼嬾綠)는 모두 시를 짓는 데 도움이 되는 재료입니다. 걸출한 시구를 하나하나 기록해 보이는 듯한데, 어떻습니까"라고 하여 초의에게 화답 시를 요청했다.

아무튼 이용현의 편지는 전라우수사로서 대흥사에 기와 공출을 요구했다는 점, 소나무와 관련된 관청의 법을 대흥사에 통보했으며, 초의차를 걸명(乞茗)하는 편지였다.

초의에게 보낸 그의 걸명은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걸명과는 결이 다르다 할지라도 차로 우환을 씻고자 했던 이용현의 뜻은 분명했다.

아무튼 그가 지방관으로서 공출과 송사를 언급했지만 초의에게 부채를 보내는 미덕은 훈훈한 인정을 느끼게 한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2019년
제34회
불이상 공고

문 의 burisince1986@gmail.com

불이상 후보자 추천 접수를 시작합니다.
한국 불교 발전을 이끌어 갈 불교계의
숨은 인재를 발굴하는데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不二賞

수상자 발표 및 시상
• 발표 | 2019년 6월
• 시상 | 2019년 7월

시상부문 ※ 각 수상자는 상장과 2천만원의 상금을 받게 됩니다.
연구분야 불교학 및 불교학 인접 분야에서 장차 한국 불교학을 선도할 인재
실천분야 신행과 포교, 봉사활동 등을 통해 인류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

후보자 자격
연구분야 박사 학위 취득 이후, 연구원, 시간 강사, 연구 교수, 강의 교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최근 수년 동안 불교학 및 불교학 인접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성과와 업적을 보여온 자
실천분야 신행과 포교가 모범이 될 뿐 아니라, 봉사활동 등을 통해 인류사회에 도움이 되는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는 불교인 혹은 불교 단체

구비서류 : 분야별 추천서
• 추천서 양식은 이메일(burisince1986@gmail.com)로 요청 가능합니다.
• 후보자는 분야별로 한 분만 추천 가능합니다.
• 추천서 이외의 업적 증빙자료는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추천 받은 후보자 분께 별도로 제출 요청 연락을 드립니다.

추천서 접수
• 접수기한 | 2019년 2월 1일 금요일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burisince1986@gmail.com
• 접수기관 | 불이상 심사위원회

不二會

전문 절도단에 희생된 성보문화재들



최선일의
다시 찾아야 할 聖寶들

㉓ 문경 운암사의 도난 성보

의상 대사 창건한 문경 운암사
한국전쟁 당시 폐사됐다 중창돼

도굴꾼의해 불상 · 불화 5점 도난
모 관장 검거되며 불상만 회수
신중도 · 현왕도 사진없어 아쉬움





도난됐던 문경 운암사 목조관음보살좌상(사진 왼쪽)과 목조대세지보살좌상(사진 오른쪽)의 모습. 지난 2016년 회수될 수 있었다.



현재도 도난 중인 영산회상도. 1811년 작품이다.



新 聞 (제3종우편물인가물인가) 사회 1 1993年11月8日 (月曜日) 15版

문화재 전문절도단 극성

전국 유명사찰·書院등 무대로

운암사 문화재 도난 관련 기사(1993년 11월 8일 경향신문)

후 1785년에 인월(印月)이 사찰을 중창하고, 1811년에 불화승 수연 등이 영산회상도 · 신중도 · 현왕도를 조성하면서 목패를 제작했다. 일제강점기 말기인 1939년에 칠성도와 독성도를 새로 봉안하였다.

사찰은 한국전쟁으로 폐사되었다가 1972~1975년까지 중창했고, 1981년에 삼성각과 안양문을 지었으며, 1986년에 극락전을 중수하였다. 현존하는 전각은 극락전, 산신각, 요사채, 삼성각, 안양문 등이 있다. 경내에는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점, 불화 3점, 목패 1점, 석조부도 2개가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유물이다.

20세기 전반 운암사에 소장된 불교문화재는 1920년을 전후해서 작성된 재산대장(국립중앙박물관 소장)과 1932년 12월 10일 조선총독부 관보에 게재된 귀중품 대장이 남아있다. 우선 1920년 전후에 작성된 재산대장에 의하면 운암사에 봉안된 성보문화재는 23건 112점으로, 불상 4점, 불화 5점, 부도 2점, 나머지는 전적과 공예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운암사는 20세기 전반에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관음과 지장보살을 봉안한 삼존불과 45㎝ 석조아미타불좌상(또는 소조아미타불좌상)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불화는 1920년대 후불도가 2점이었다가 1930년대 전반 1점으로 줄어들고, 나머지 신중도, 현왕도, 산신도는 남아있다. 현재 운암사에서 문화재청에 도난 신고를 한 성보문화재는 목조관음보살좌상과 목조대세지보살좌상, 영산회상도(1993년 1월 9일부터 10일 사이 도난)이지만, 조계종 총무원에는 위의 3점 이외에 신중도, 현왕도(1991년 3월 21일 도난)가 사진 없이 신고되어 있다.

운암사에서 도난당한 3점의 도난문화재 가운데 보살상 2점이 2016년 11월에 환수되었다. 당시 보도된 기사 내용에 따르면 서울의 모 사립박물관 前 관장이 은닉해오고 있던 불교문화재 가운데 운암사 보살상을 포함해 총 11점을 찾아냈다.

이 보살상은 운암사 극락전에 봉안되었던 목조아미타불좌상의 협시보살로 추정된다. 목조보살좌상은 높이 80㎝의 중형 보살상으로, 손모양만 반대로 되어 있을 뿐, 크기나 형태가 거의 유사하다. 보살상은 머리에 화려한 보관을 쓰고, 방형의 얼굴에 둥근 눈썹을 그리며, 짧은 목 아래로 삼도를 표현했다.

보살상의 보관은 머리에 비하여 큰 편으로, 화염문과 꽃문양 등의 금속판이 빽빽이 장식되어 있다. 착의법은 여래상처럼 오른쪽 어깨에 편삼을 입은 변형우견편단으로 걸치고 있다. 보살상의 가슴 아래로 승각기가 보이고, 무릎 아래로 결가부좌한 발목 위에서 내려오는 몇 줄의 간략한 옷주름이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져 있다. 이 두 보살상은 아미타불의 협시보살로, 얼굴에서 풍기는 인상이나 착의 방식 등에서 각승과 마일이나 금문의 계보에 속한 조각승이 17세기 후반에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아직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후불도는 크기는 세로 316㎝, 가로 254㎝로, 도난 이전 조사된 불화의 화기는 "嘉慶十六年辛未四 月日靈山會 聖幀造 成于聞慶地宰岳山 雲巖庵奉安于極 雲巖庵奉安于極 樂殿〈중략〉畵員比丘守衍 有審 禪峻 定敏 達仁 奉玉 順定 芝曄 永玉〈후략〉"으로, 1811년 4월에 문경 재악산 운암암 극락전에 봉안하기 위해 영산회상도를 불화승 수연 · 유심 · 선준 · 정민 · 달인 · 봉옥 · 순정 · 정엽 · 영옥이 조성하였다.

이 영산회상도는 일제강점기 작성된 재산대장에 비단으로, 도난백서에 종이 위에 채색된 것으로 나와 있다. 후불도 화면 가운데 본존이 취한 수인은 오른손을 무릎 위에 내려 항마촉지인을 취하여 석가불임을 알 수 있다.

여백 없이 화면 가득 본존불을 중심으로 사천왕과 여래의 권속인 보살상을 삼단으로 도열하듯 배치하고, 화면의 가장 상단에 아난과 가섭 등 제자를 빼곡히 그려 넣어 19세기 전반 불화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한다.

이외 도난당한 신중도와 현왕도는 사진이 남아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불화인지 알 수 없고, 도난신고도 종단 밖에 되지 않아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에 제대로 신고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재청 인천공항 문화재감정관실 감정위원〉
공저=홍은미 옥천사성보박물관 학예실장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			조선총독부 관보 제1789호 8면(1932년 12월 23일)				
명칭	품질	수량	명칭	수량	품질	형태	크기
阿彌陀佛 아미타불	塑金粉彩塗 소금분채도	1	阿彌陀佛 아미타불	1	木製塗金 목제도금	坐像 좌상	高 2尺9寸
觀世音菩薩 관세음보살	塑金粉彩塗 소금분채도	1	觀世音菩薩 관세음보살	1	木製塗金 목제도금	坐像 좌상	同 2尺4寸
地藏菩薩 지장보살	塑金粉彩塗 소금분채도	1	地藏菩薩 지장보살	1	木製塗金 목제도금	坐像 좌상	同 2尺4寸
阿彌陀佛 아미타불	塑鐵地粉塗 소철지분도	1	阿彌陀佛 아미타불	1	石製塗粉 석제도분	坐像 좌상	同 1尺4寸
後佛幀 후불탱	絹 彩画 견 채화	1	後佛幀 후불탱	1	絹製 견제	掛圖 괘도	縦 10尺2寸 横 8尺2寸
後佛幀 후불탱	絹 彩画 견 채화	1					
神衆幀 신중탱	紙 彩画 지 채화	1	神衆幀 신중탱	1	絹製 견제	掛圖 괘도	同 5尺4寸5分 同 7尺1寸
顯王幀 현왕탱	紙 彩画 지 채화	1	現王幀 현왕탱	1	絹製 견제	掛圖 괘도	同 3尺4寸 同 2尺5寸
山神幀 산신탱	紙 彩画 지 채화	1	山神幀 산신탱	1	絹製 견제	掛圖 괘도	同 2尺3寸
浮屠 부도	石 석	2	祖師浮屠 조사부도	2	石製 석제	立形 입형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연등표 출력 인등표 출력 위패 출력
문자발송 기부금 영수증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의술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신간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당뇨, 고혈압에서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 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철 골 조
사찰신축전문
사찰지붕개량
천년와 기와 지붕개량
공사기간단축(3분의1)
공사금액 목조보다 60%절감
010-3911-1775 / 011-9726-9288

사회복지, 사찰의 지역공동체 의무



조기룡의
사찰경영, 산문에 들다

㉓ 사찰의 복지활동



사찰의 봉사활동 영역은 사회활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지역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사찰의 김장나눔행사.

자신의 복만을 구하러 다니던 신도들의 마음에서 어느 순간부터 봉사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난다. 자신과 가족의 행복만을 추구하던 마음에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전환하는 순간이자 연기공동체임을 자각하는 순간이다. 또한 그 봉사활동이 사회와 연계되면 사찰이 지역공동체로 진입하는 순간이 된다.

신도들의 봉사활동은 대부분 법당 정리정돈, 대중공양 준비, 설거지, 차량통제 등 소소한 사찰 내부의 일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신도들은 점차 독거노인 지원, 청소년 가장(家長) 돕기, 보육원 봉사 등 사찰 외부의 대사회적 복지활동에 관심을 갖게 된다.

봉사활동의 주체는 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사찰 내부의 일을 봉사할 것인지 아니면 사찰 외부의 사회복지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상당수의 사찰에서 주지 스님의 몫이다. 물론 신도들이 사찰 내부의 봉사활동도 하고 사찰 외부의 사회복지활동도 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러나 주지 스님에 따라서는 자신의 사찰에만 치중하여 신도의 사찰 외부 봉사활동은 반대한 채 신도들을 사찰에 묶어두고 오로지 내부의 일만 시키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아마도 이런 경우는 '절 일도 바쁜데 외부 일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고 여기거나 '사찰 내부의 일을 하나 사찰 외부의 일을 하나 봉사이기는 마찬가지' 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신도가 사찰 자체의 일만 하는 것과 대사회적인 일을 하는 것은 봉사로서 갖는 의미와 가치가 다르다. 신도 단위의 차원에서는 신도가 봉사를 했다는 측면에서 양자 모두 동일하다. 하지만 사찰 단위의 차원으로 바라보면, 사찰 자체의 일만 하는 것은 사찰의 자기이익적 행위에 머무르는 것이지만, 대사회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사찰의 이타적 행위가 되는 것이다. 즉 사찰의 일만 하는 것은 사찰의 자기성장만 추구하고 지역공동체의 동반성장은 도외시 하는 것이 된다.

신도들이 사찰 내부의 일을 함으로써 사찰의 성장을 주도하는 역할을 유지하게 하면서도 사찰과 사회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신도의 봉사활동이 법회지원과 사찰업무보조 등에서 나아가 소외계층과 약자계층을 위한 사회복지활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사찰이 불교의 종교적 소명과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모든 종교의 궁극적 소명이자 역할은 인간의 고통을 제거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다. 불교 역시 다르지 않다. 이를 위하여 석가모니 부처님은 수행을 하고 전법을 한 것이다.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수행' 을 한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 깨달은 바를, 즉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중생들에게 전하고자 '전법' 을 한 것이다. 이에 수행과 전법을 출가사문의 본분사로 삼는 것이다.

사회복지는 인간의 고통을 제거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해주는 활동이다. 이는 종교와 사회복지의 소명과 역할이 다르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불교는 한반도 전래 이후 사회복지를 실천하였다. 〈高麗史(고려사)〉에 의하면, 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 제위보(濟危寶), 혜민국(惠民局) 등이 설립되어 궁한 자를 일으키는 진궁(賑窮), 재난으로부터 구해주는 구재(救災), 병을 고쳐주는 의료(醫療) 등의 사업을 행했는데, 그 중 구재 사업은 주로 사찰에서 승려들이 시행하였다. 불교사회복지가 실천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세종실록(世宗實錄)〉에는 심한 배불(排佛) 풍조 속에서도 세종4년(서기 1442년) 정월에 스님들이 병들고 다친 사람을 치료하였음이 기록되어 있다.

> 도성(都城)의 동쪽 서쪽에 구료소(救療所) 네 곳을 설치하고, 혜민국 제조(惠民局提調) 한상덕(韓尙德)에게는 의원(醫員) 60명을 거느리고 대사(大師) 탄선(坦宣)에게는 승려 3백 명을 거느리고, 군인들의 병들고 다친 사람을 구료(救療)하도록 명하였다.
>
> 置救療所四處于都城東西, 命惠民局提調韓尙德率醫六十人, 大師坦宣率僧徒三百名, 救療軍人之疾病傷折者

이외에도 우리의 역사문헌에는 불교계의 사회복지 실천사례가 무수히 많이 등장한다.

그러나 해방 이후 한국불교의 사회복지가 침체를 겪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교회하면 사회복지가 연상될 정도로 우리사회에서 성장한 기독교계의 사회복지와 비교하면 불교계의 사회복지는 열악하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근래 들어 불교계의 각 종단 차원에서 사회복지를 진흥하면서 현재는 불교계의 사회복지가 가톨릭을 추월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이는 한국불교가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기여하는 바가 그 만큼 커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불교 사회복지의 확장 일로
지역 사회 수요 파악 필요
공동체 의식으로 회향해야

그렇다면 일선 사찰에서는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사회복지를 실천하여야 하는가? 우선은 사찰이 사회복지를 하려면 사회복지관을 자체적으로 건립하여 직영하거나 그게 안 되면 위탁으로라도 시설을 운영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의 직영과 위탁에는 적지 않은 자금뿐만 아니라 경영 노하우(know-how)가 있어야만 한다.

물론 사회복지시설을 직영하거나 위탁하는 것이 사찰의 사회복지 실천에는 더없이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자금과 경험이 없다고 하여 사찰이 사회복지를 실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는 사찰에서 신도들이 자원봉사할 수 있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해결된다. 비록 사찰에 사회복지시설이 없더라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회복지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사찰에서 할 수 있는 사회복지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는 노인 간병과 가사 지원, 노숙인 무료급식, 푸드 뱅크(food bank)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우선 노인 간병과 가사 지원에 대해 살펴보자. 한국사회가 고령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여러 가지 노인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문제는 빈곤, 질병, 무위(無爲), 역할상실로부터 고독사와 노인자살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로 노정되고 있다. 효를 제일 덕목으로 지켜온 우리사회가 어떠다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안타까울 정도이다. 종교는 전통적으로 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켜왔으며, 불교는 효를 사회적으로 실천해왔다. 이에 사찰이 노인문제의 해결에 앞장 서는 것은 효를 사회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지역에 공동체의식을 함양시켜주는 것이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들은 건강검진, 간병, 가사지원, 취업알선, 취미와 여가, 식사제공, 각종 교육, 목욕의 순으로 복지서비스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제일 우선순위인 건강검진은 고비용이 발생함으로 사찰에서 서비스를 시행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외의 서비스들은 자원봉사조직을 통하여 실천할 수 있는 노인복지 서비스들이다.

노숙인 무료 급식은 노숙인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보다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다. 노숙인 무료 급식을 하는 사찰의 경험에 의하면, 처음에는 신도들이 노숙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기에 양자 간에 장소나 시간을 달리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한다. 그리고 노숙인 무료 급식을 시행함에 있어서 단지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상담을 아우르는 것이 종교적으로 필요하다고 한다. 만일 식사 제공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느끼게 되면 초중등학교의 급식 후 남은 찬반 및 식료품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지역의 '기초 푸드 뱅크' 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도의 자원봉사 일손이 부족하면 지역의 자원봉사센터, 새마을부녀회, 공공근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푸드 뱅크는 말 그대로 음식 나눔 은행이다. 초 · 중등학교 및 여타 기관과 단체의 잉여 음식을 취합하여 독거노인, 실직자 가정, 결식아동, 쪽방주민 등 소외 계층에게 음식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사찰에서 푸드 뱅크를 운영할 때는 음식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음식물의 이동과 보관을 신속히 하고, 냉동차와 냉동창고를 갖추어야 하고, 대형냉장고가 있어야 한다.

만일 이와 같은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도(道)와 시(市)의 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광역 푸드 뱅크나 군(郡)과 구(區)의 단위 복지관이 운영하는 기초 푸드 뱅크와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런데 음식을 무료로 제공받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을 느끼는 소외계층이 있을 수 있다. 이들에게는 푸드 뱅크보다는 푸드 마켓(food market)이 적합하다. 푸드 뱅크는 잉여식품을 무료로 제공하지만 음식에 대한 이용자의 기호를 배려할 수 없음에 비하여 푸드 마켓은 잉여식품을 이용자가 기호에 따라 저가로 구입할 수 있다. 만일 푸드 뱅크나 푸드 마켓을 하기가 여의치 않은 사찰에서는 결식아동과 결식노인에게 도시락을 지원하는 사업을 고려할만 하다. 도시락 지원 사업은 지역구청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운영이 보다 용이하다.

이러한 사찰의 사회복지 실천이 지역친화로 이어지기 위해선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요구를 이해하고 수용하여야 한다. 사찰들이 전술한 노인 간병과 가사 지원, 노숙인 무료 급식, 푸드 뱅크와 푸드 마켓 이외에도 다문화가정,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가출청소년, 가정폭력 피해자 등 지역의 여건에 맞는 지역친화적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마련과 실천을 위하여 고민하여야 하는 것이다.

지역사찰의 사회복지 실천은 곧 지역주민과의 관계 맺음이다. 이는 지역포교와 다르지 않다. 포교는 사람과의 관계 맺음이 없으면 불가능하며, 그 관계 맺음은 즐거움뿐만 아니라 어려움도 함께 나누는 것이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사찰이 지역과 친화하는 것이며,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잡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찰은 자체의 성장에만 몰입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돌아보고 이바지할 바를 찾아야 한다. 나아가 지역사회가 없다면 사찰도 없다는 지역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사찰의 성장을 지역사회에 회향하여야 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chokiryong@dongguk.edu〉

바다의 미네랄과 폴리페놀 덩어리. 지구상 최고의 항산화 식품
맛이 샘나 효모밥죽순 콩단백 족콩고기
국내기술로 만든 콩단백
몸 속의 오염된 지방을 분해 배출시키는 탁월한 항산화 식품!
전립선 및 다이어트, 성인병 예방에 최고!
❶ 스님들의 단백질 영양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고단백 식물성 콩고기 식품
❷ 효모와 항산화(폴리페놀)가 함유된 건강 단백질 콩고기
❸ 하루 섭취량 40g (가격 하루 1,000원대)로 충분한 단백질 영양 섭취
❹ 가격은 1kg 25,000원 (25인 분량)
<사찰에서 다량 구매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영양성분표 : 수분 10%이하, 탄수화물 28%내외 단백질 60%이상 지방 3% 이하, 총열량 360Kcal 이하
특수성분 : 폴리페놀 2.793mg/kg, 사포닌 1,807 mg/kg, 베타글루칸 1,233 mg/kg
효모밥죽순 차(茶)용
• 500g9용 (6개월분)12만원
• 깨끗한물에 씻어 2L기준 20g 정도 넣어 30 ~ 40분 끓인 후 복용하시면 됩니다. 재탕으로 1회 더 복용 가능합니다.
(주) 샘나 대표전화 1661-4288/010-4746-0335
인천광역시 서구 보듬로 158(오류동) 블루텍공존 3층 312호 ㈜샘나
농 협 301-0222-8806-71 [예금주 : ㈜ 샘나]
기업은행 418-038069-04017 [예금주 : ㈜ 샘나]

승가 마 전통 가 건강비법 목 원탕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한 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2014년 10월 6일일요일 오후 5시10분 KBS1 TV "내고향 스페셜" 설악산 백담사마을「마가목」 방영
• 2014년 7월 31일 목요일 오후 7시30분 KBS1 TV "한국인의 밥상" 경남 밀양 얼음골「마가목」 건강식 방영
• 2010년 10월 24일 일요일 오전 7시 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가목 원탕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사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상담문의 011.9049.2848
(공휴일 및 야간전화 사절)
농협: 227027-51-090791(예금주: 남궁성균)
◆ 제방선원이나 수생스님께 대중공양 올릴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종교인 과세 신고대행 안내
2018년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납부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종교인 과세는 우리 사찰에서 신도에게 받는 시주금(기부금)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아니고, 스님이 사찰에서 매월 받는 보시금(급여, 개인적인 생활비)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납부하라는 것입니다. 일반 직장인처럼 회사에서 월급받고 세금을 납부하고,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연말정산하고, 관련 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절차가 신설된 것입니다.
스님이 한 분 계시는 개인 사찰도 해당이 되며, 세무서에서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오는 것이 아니고,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종교인 과세관련 신고 납부일정을 알려드리오니, 우리 사찰에서는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셔서 세법상 불이익이 없기를 바랍니다.
종교인 과세 관련 무료 동영상 강의
• 유튜브 검색창에 "박성욱 세무사" 검색하시면 사찰 종교인과세에 관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 업데이트 예정)
1강 기부금영수증 업무처리
2강 신고납부일정
3강 종교인소득
4강 가산세
5강 종교인소득 절세와 관리요령
※ 동영상 강의 자료가 필요한 종단 및 사찰에 무료 배포하겠습니다.
종교인 과세 신고 납부일정
▪ 2018년 7월 10일까지 : 2018년 상반기 종교인 과세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2019년 1월 10일까지 : 2018년 하반기 종교인 과세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2019년 2월 : 종교인 연말정산 실시
▪ 2019년 2월말 : 지급명세서 제출
051-996-0308 | 010-9878-5716 박성욱 세무사
주소 부산 동래구 동래로 3, 태림빌딩 3층(온천동)
세무사 박성욱 사무소

부처님의 존재이유에 대하여…



원욱 스님의 경전산책

㊹ 법화경 3

부처님은 삼지삼청을 하시면서 자신의 결점을 알지 못하고 떠난 그들을 부처님은 잡지 않았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부처님께 그럴 수 있었을까? 40여년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으면서도 부처님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하고 뿌리치며 떠난 사부대중 5천명을 진짜 부처님은 버리셨을까? 아니다. 삼세의 부처님들이 설법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 모두 다 함께 성불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부처님이 제자를 포기하실 리가 있겠는가, 훗날 모두 돌아와 수기를 받았다고 한다

"사리불아. 네가 미래 세상에 한량없고 그지없는 겁을 지나면서 여러 천 만억 부처님을 공양하고 정법을 받들어 지녀 보살의 행할 바 도를 구족하여 마땅히 성불하리니, 이름이 화광여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하리라. 그 세계의 이름은 이구(離垢)이니 땅이 평평하고 반듯하며 깨끗하고 장엄하며 태평하고 풍성하며, 천인과 사람들이 치성하며, 유리로 땅이 되고 8방으로 뻗어나간 길은 황금으로 줄을 꼬아 드리웠으며, 그 길 옆에는 7보로 된 가로수가 있어서 항상 꽃과 열매가 무성하며, 화광여래께서도 또한 3승으로 써 중생을 교화하리라."

〈법화경의 수기〉의 시작이다. 처음 사리불이 수기를 받고 이어 4대 성문인 마하가섭, 수보리, 가전연, 목건련의 뒤를 이어 약왕보살과 대요설보살 등 2만의 보살과 십대제자와 오백아라한과 8천 성문, 아난과 라훌라를 비롯한 2,000의 제자들과 제바달다, 마하빠사빠띠, 야소다라 비구니와 6천에 비구니들과 80만억 나유타 보살이 수기를 받고 이 경전을 유통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기에 이른다. 약왕보살과 대요설보살 등 2만의 보살과 심지어 축생인 용녀에게도 수기를 주시니 일체중생이 다 성불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경을 〈수기경〉이라 부른다.

수기(授記)는 부처님의 설법 가운데 문답형식이나 교법의 이치를 설명한다는 뜻의 화가라나(vyakaranadml) 뜻이지만 훗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이 미래에 이룰 성불에 대해 예언하면 제자들이 성불의 확신을 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수기를 받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저절로 부처님이 되거나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여러 부처님께 공양하고 보살도의 길을 닦는 수행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소승에서는 성불을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승의 법에는 누구나 다 성불을 한다는 것은 대승과 소승의 평등성이 마치 중생과 부처님의 거리만큼이나 간격이 크다. 여인은 성불을 못한다는 소승불교의 교리가 효력을 잃어버린 것이다. 모든 제자들에게 다 평등하게 수기를 내리는 모습은 감격스럽기만 하다. 특히 생사해탈에만 머무는 소승성문들에게 수기를 내리며 자비보시의 보살도를 열심히 실천하라는 가르침은 가슴깊이 다가오는 내용이다.

여래는 항상 이렇게 설법을 하신다. "마치 우담바라꽃이 언젠가 피게 되는 것처럼 여래도 이와 같이 언젠가 설법하신다. 나를 믿으라. 사리불이여, 나는 진실을 말하는 자이며, 있는 그대로 말하는 자이며, 사실과 어긋나지 않게 말하는 자이다."

수많은 여래들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단 하나의 큰 이유 때문이다. 그 큰 일은 바로 중생들에게 여래의 지혜와 안목을 다펼쳐 보여 그들도 얻게 하고자 함이며(開). 여래의 지혜와 안목을 중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고(示), 여래의 지혜와 안목으로 중생들을 깨달음을 성취하고자 함이며(悟), 여래의 지혜와 안목으로 중생들을 깨닫도록 그 길로 들어오게 인도하기 위한 것(入)이다.

그 다양한 방법 속에 법화칠유(法華七喩)를 통해 삼승방편의 일불승을 보여주고, '방편품'에서 '모든 중생은 나와 다름없이 평등하다.'와 '비유품'의 '삼계중생이 모두 나의 자식이다.'를 통해 부처님이 우리에게 오신 뜻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어떤 가르침(성문연각보살)에도 만족하지 말고, 경유지(극락, 해탈 등)를 지나 목적지(열반, 니르바나, 일불승)에 도달해야만 한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길에 보살행이 필수인 것은 부처님의 세계를 완성하기 때문이다. 중생을 고통에서 건져 행복한 삶 살도록 하는 것이 일대사인연(一大事因緣)이며 부처님의 존재이유라면 우리도 이 일대사인연의 길에 모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서울 반야사 주지〉

금강경식 교육으로 불교경영 완성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㊸ 귀납법과 연역법

실제로 경영과 교육면에서 선지식의 가르침을 토대로 연역법과 귀납법을 비교해 봅니다.

〈귀납법〉 단계 1: 탁월한 능력의 CEO가 되기 위하여서는 하버드대학 같은 일류대학에 진학하여 열심히 공부하여야 한다. 단계 2: 하버드대학 같은 일류대학에서 함께 공부하였지만 자신의 잠재의식의 힘을 믿고 이를 활용한 학생은 단순히 노력한 학생보다 더 뛰어난 능력의 CEO가 되었다. 단계 3: 뛰어난 CEO가 되기 위하여서는 일류대학 진학과 병행하여 잠재의식의 활용법을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연역법〉 단계 1: 우리는 마음속에 신처럼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뛰어난 CEO로서의 모든 소질을 다 갖추고 있다. 단계 2: 현재 CEO가 되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열등하다는 마음이 무한 능력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계 3: 금강경 공부는 마음속에 열등하다는 생각을 사라지게 하여 본래 갖추어져 있는 무한능력을 발휘하게 하므로 CEO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귀납법의 경우 불완전한 전제(가정)로 시작하고 단계 2의 관찰에서 결론을 도출하므로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연역법 단계 1에서의 전제가 금강경 구족의 진리에서 출발하므로 더 놓고 확실하고 포괄적입니다. 그러므로 금강경식 경영이나 교육은 21세기 과학자들에 의해 개발된 그 어떤 교육 방법보다 훨씬 더 탁월한 교육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세계중심국가가 되려면 당연히 지식교육이나 모방교육의 교육 방식을 탈피하여야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서양식 교육 제도를 따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금강경식 교육을 통해 세계중심국가로 이끌어 나가는 각 분야의 인재들을 많이 말들 수 있을 것입니다.

금강경식 교육의 첫 단계는 자신이 부처님처럼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알고 무엇이든 못할 것이 없다는 구족의 진리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실제로 시시각각으로 바라는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있는 위대한 자신이 실제로 시시각각으로 바라는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있는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시겁으로 지어온 지업, 즉 탐친지로 인하여, 우리가 본래 갖추고 있는 무한한 능력이 차단되어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탐욕심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 소멸하는 것입니다. 탐욕심으로 말미암아 무한 능력의 소유자에게 열등한 존재로 타락하였기에, 이 탐욕심이 소멸되면서 무한 능력의 소유자로 다시 회복하고 각종 능력이 발현되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 진리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우선은 마음 밖의 모든 현실이 자신의 선입견의 표현임을 아는 일, 즉 일체유심조의 진리, 다음은 현실을 만든 이 선입견이 착각이요 본래 없는 것이라는 공의 진리입니다.

이와 같이 진리에 대해 실감하는 순간 둔재가 인재가 되고 부도덕한 사람이 도덕적이 될 수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굶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며, 유체유심조와 공의 진리를 실천하므로 너와 나, 나와 부처가 둘이 아닌 불이의 진리를 실감하게 되어 세상의 모든 이치를 훤히 아는 도인의 반열에 오른다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제일구(第一句)와 '이 뭣고'

조주(趙州) 선사께서 하루는 임제사(臨濟寺)를 방문해 발을 씻는 차에 임제 선사 께서 다가와 물으시길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서 오신 뜻 입니까?"라고 하시니, "마침노승이 발을 씻고 있는 중이니라"고 답하였다. 이에 임제 선사께서 가만히 조주 스님께 다가가서 귀를 기우리고 들으시는척 하니, 조주 선사께서 "알면 바로 알 것이지 되세김질 해서 무엇 하려는고"하시니, 임제 선사께서 팔을 흔들며 돌아가셨다.

제일구(第一句)에서 깨치면 부처님과 조사의 스승이라고 했고, 제이구(第二句)서 터득하면 인천(人天)의 스승이라 하였다. 듣고 바로 깨치면 제일구(第一句)이며, 귀를 귀울여 되새김질하면 제이구(第二句)이다.

임제선사가 하루는 발우를 갖고 탁발 나갔는데, 한 집에 가서 대문을 두드리면서 탁발을 왔다고 하니까, 노보살이 대문을 열고 나오더니 임제 선사를 보고 하는 말이, "염치 없는 중이로고"하고는 시주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임제 선사가 "탁발하러 왔는데 어째서 한 푼도 주지 않고 염치없는 중이라 하는고" 하니 보살이 대문을 왈칵 닫고는 집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에 머쓱한 임제 선사도 아무 말 없이 돌아갔다.

"임제 노장이 노파에게 허물을 보임으로서 그 노파의 빗장 관(關)의 할에 임제의 귀를 꽉 막아 버리게 하고, 누구나 자성(自性)안에 가득찬 천연무가보주(天然無價寶珠)의 문을 활짝 열어 보여준 것이다." 이것이 임제 선사를 꼼짝 못하게 한 할망구의 제일구(第一句)이며, 그 유명한 임제탁발화(臨濟托鉢話)이다.

당나라 때 위산 선사에게 향엄(香嚴)과 앙산(仰山) 두 제자가 아침마다 문안을 드리는데, 하루는 앙산 스님이 문안을 드리자 위산 선사께서 벽을 향해 돌아누우시며 말씀 하시길 "내가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대가 나를 위해 해몽(解夢)을 해 보게나"고 하시니, 앙산 스님이 즉시 밖에 나가서 세수대야에 물을 떠다가 위산 스님 앞에 놓고 나갔다.

그 다음에 향엄 스님이 문안을 드리자 앙산 스님과 똑같은 말을 하니, 향엄 스님은 즉시 밖에 나가서 정성껏 차(茶)를 달여와 바치니, 위산 선사께서 "나의 두 제자의 신통(神通)이 목련존자(木蓮尊者)를 지나가는 구나"고 하시며 크게 칭찬하셨다.

생사(生死)에서 벗어난 꿈을 깬 진여실상에서는 억지로 꾸미지않는 순수한 평상심(平常心)이 지극(至極)한 도(道)이며, 그 행선(行禪)이 바로 '이 뭣고' 인 것이다.

용성선사와 전강선사의 전신구(轉身口)의 법(法)거래이다.

전강: 어떤 것이 제일구입니까?

용성: 영신아!

전강: 예.

용성: 제일구를 일러 마쳤느니라.

전강: 허허(박장대소)

용성: 자네가 전신(轉身)을 못했네.

전강: 전신구를 물으옵소서.

용성: 여하시 전신구인고?

전강: 낙하여고목제비(落霞與孤鶩齊飛)하고 추수공장천일색(秋水共長天一色)입니다.

"저녁 노을은 따오기와 더불어 날으고 가을 물은 하늘과 함께 일색입니다."

하시니, 용성 스님이 아무 말 없이 방장실로 돌아가셨다.

이환즉각(離幻卽覺)이라, 꿈을 여읜 제일구(第一句)에서 진성(眞性)과 하나된 깨달은 경지를 보이신 것이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사)대한불교 대경조계종 종도모집



총무원장
천고당 태룡

(사)대한불교 대경조계종은 본종에 등록한 사암의 재산에 대하여 일체관여하지 않는 종단으로 사암 및 종도님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지원을 하면서 고통 또한 같이 감내하는 종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불교발전과 포교에 수희 동참하실 사암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 행정지원 ◆

① 세무서 고유번호등록 ②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등록증명서
③ 차량등록 ④ 사암행정서식
⑤ 기부금영수증에 관한 일체서식 ⑥ 민원에 도움 되는 서류 및 서식

◆ 입종구비서류 ◆

① 사찰 및 승려등록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반명함판 사진 3매 ④ 사암 안팎 사진 1매(사찰등록 하실분)
⑤ 타 종단 수계첩 또는 승려증 사본 1부

◆ 사찰 및 종도님께 발급하는 서류 ◆

① 사암 가입증명서 ② 주지 임명장
③ 승려증(법사증) ④ 간부스님에 한하여 위촉장 또는 추대장을 수여합니다.

※ 본 종단은 모든 종도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정책에 반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社團法人 大韓佛教 大京曺溪宗

총무원 : 경북 안동시 향교1길 27-15 (송천동) 천룡사 ☎: 054)823-6777 H.P : 010-4053-2722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조계종 총무원장 특보단 임명

종책 · 문화 · 정무 · 사회 · 복지 분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특보단을 꾸렸다.

원행 스님은 12월 6일 종책특보에 보인 스님, 문화특보에 혜일 스님, 정무특보에 성행 스님, 사회특보에 진각 스님, 복지특보에 화평 스님을 임명했다.

종책특보 보인 스님은 암도 스님을 은사로 1982년 수계했다. 대원사 · 백화암 · 홍룡사 · 용문사 주지 및 제14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고, 현재 제17대 중앙종회의원을 맡고 있다.

문화특보 혜일 스님은 도견 스님을 은사로 1986년 수계했다. 백련사 · 연화사 · 흥천사 주지 및 총무원 기획실장 · 문화부장, 제14~15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현재 제17대 중앙종회의원과 성남 봉국사 주지를 맡고 있다.

정무특보 성행 스님은 종상 스님을 은사로 1986년 수계했다. 제15~16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고, 현재 제17대 중앙종회의원과 의왕 청계사 주지를 맡고 있다.

사회특보 진각 스님은 혜암 스님을 은사로 1986년 수계했다. 수미정사 · 연호사 주지 및 총무원 사회부장, 교육원 교육부장을 역임했다. 현재 제17대 중앙종회의원과 해인사미타원 주지를 맡고 있다.

복지특보 화평 스님은 월주 스님을 은사로 1988년 수계했다. 무사 · 심곡사 주지 및 제16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고, 현재 제17대 중앙종회의원을 맡고 있다.

윤호섭 기자



진묵조사 385주기 추모다례재

김제 조앙사, 12월 4일 기념행사

김제 조앙사(주지 송헌)는 12월 4일 진묵조사 385주기 열반기일 다례재와 미륵 삼존불 봉불 17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법회는 호남범음회 휘암 스님과 운산 스님, 혜주 스님의 집전으로 진행됐다.

주지 송헌 스님은 "전북지역의 대표적인 고승이자 동양의 작은 부처님으로 추앙받고 있는 일옥 진묵조사의 열반기일을 맞아 스님의 가르침과 효행사상을 기리는 의미에서 해마다 추모다례재를 봉행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진묵조사는 1562년 4월 초파일에 불거촌 유앙산, 현 조앙사 터에서 탄생했다. 7세 때 완주 봉서사로 출가해 1633년 음력 10월 27일 열반삼매에 든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의 소(小)석가로 불리며 석가모니 부처님의 응화현으로 숭앙받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함께 웃는 세상 그곳이 佛國土"

Interview

부산시 명예장 수상한 장유정 미소원 이사장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1983년부터 이어진 봉사활동
자비원-미소원 이어 35년째
환우 · 재소자 위한 활동 인정

"함께 웃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우리는 미소원입니다."

힘찬 구호가 인상적인 불교 봉사단체 사단법인 미소원의 화두다. 미소원의 든든한 기둥으로 활동하는 장유정 이사장이 부산시가 수여하는 '명예장'을 수상했다. '명예장'은 자원봉사자 가운데 봉사시간 점수가 1만점 이상인 사람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12월 13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 앞서 만난 장유정 이사장에게 소감을 묻자 "사실은 무덤덤하다"고 답했다. 그도 그럴 것이 봉사점수는 상징일 뿐 시간으로 따지자면 이미 셀 수가 없기 때문일 터.

미소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1365자원봉사자센터에 2012년 11월 인증기관으로 등록됐고 봉사시간을 입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식 미소원 창단은 2011년 11월 11일이었으며 전신인 비영리 자비원 봉사회 후원회는 1983년에 설립됐다.

미소원은 1989년부터 국립마산결핵병원서 매월 가족 없는 환우를 위한 반찬과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1년에 2번은 수육, 김장김치, 과일 · 떡 등을 준비해 전체 환우를 위한 위문잔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법륜 스님이 이끄는 정토회와 인연을 맺어 제3세계 결핵환자 살리기에 동참했으며, 법무부 부산구치소 재소자 교화, 자살 상담 및 정기적인 법회를 통한 교정교화 활동을 하고 있다. 아울러 가족 없는 재소자를 위해 후원금을 지급하고 시력 1급 장애 어르신 병원 모시고 다니기 및 생활 활동지원 외 수많은 봉사 활동을 잇고 있다.

장 이사장은 봉사시간 등록은 봉사에 동참하는 회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설명한다.

"하루 봉사시간을 8시간 이상 입력할 수 없습니다. 아침 8시에 나와 밤 11시까지 봉사할 때도 많은데, 이 때문에 봉사시간 입력은 사실 무의미하죠. 그러나 시간을 차곡차곡 입력하는 이유는 미소원을 찾는 봉사자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어깨를 두드리듯 격려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여러 활동 가운데 장 이사장이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봉사는 바로 상담이다. 상담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를 묻자 "가장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고, 마음을 가볍게 해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뿐 아니라 개인 상담을 통해 극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기금을 전달해 왔다. 장 이사장은 "삶의 터닝 포인트를 맞는 사람들을 볼 때 가장 보람을 얻는다"며 "미소원 법당에 기도 후원금이 희망기금으로 사용된다. 오직 '함께 웃는 세상'이 '평상심'이자 곧 '불국토'라 말하는 기도 도반들의 성금이 이룬 기적들을 본다"고 말했다.

장유정 이사장은 사단법인 미소원에서 봉사활동을 이끌고 있으며 능력과 기여도를 인정받아 2004년 법무부 장관상, 2009년 보건복지부 장관상, 2012년 대한민국 국민나눔대상 복지부 장관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禪學, 생활선 연구 고민해야"

한국선학회 새 회장
김방룡 충남대 교수



"선수행이 과거에 비하면 대중에게 어느 정도 알려졌지만 학문으로는 여전히 이론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과거의 선에 대한 분석 등은 중요하지만 현대인들을 위한 선의 생활화를 위해 선학자들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불교의 선학을 대표하는 학자들의 모임인 한국선학회 제10대 회장에 김방룡(54 · 사진) 충남대 철학과 교수가 선출됐다. 한국선학회는 11월 23일 조계사 불교대학서 열린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김 교수를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김 회장은 2003년부터 한국선학회 활동을 시작해 총무와 부회장을 역임했다.

김 회장은 12월 5일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서 "한국선학회 창립멤버로서 여러 책임감을 느낀다. 최근 수년간 학회지나 학술발표회 등을 봤을 때 선학회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발전을 이어왔다"며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오랫동안 선학회에 몸 담아온 회원들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경우가 여럿 있다. 앞으로 기존에 학회 활동을 하던 분들이 다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한국선학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신진학자 양성을 꼽았다. 사회 흐름에 따라 탈종교화, 불교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선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지만 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김 회장은 "인문학과 종교에 대한 관심이 과거보다 낮아지면서 선학은 다른 학문보다 신진학자 발굴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산이 한정적인 선학회도 이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선을 접할 기회가 부족한 현대인들에게 생활 속 선을 알릴 수 있다면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부분은 학회에서도 함께 노력해 불교와 선학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회장은 전북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석사과정을 마쳤다. 원광대 대학원서 '보조 지눌과 태고보우 선사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중국 북경대 철학과에서 방문 연구학자 과정을 밟았다. 저서로 〈보조지눌의 사상과 영향〉 〈불교수행법〉 등이 있다.

윤호섭 기자

일타 대종사 19주기 추모재

영천 은해사, 11월 29일 다례재 봉행



팔공산 영천 은해사(주지 돈관)는 동곡당 일타 대종사 열반 19주기 추모다례재를 11월 29일 경내 육화원에서 봉행했다. 추모다례재에는 은해사 회주 법타 스님과 관장 돈명 스님을 비롯해 BBS대구불교방송 사장 법일 스님, 조계종 사회부장 덕조 스님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일타 대종사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행복나눔 자비의 김장

대구 대성사, 소외계층 돕기 행사



천태종 대구 대성사(주지 영제)는 12월 3일 지역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행복나눔 자비의 김장 담그기'를 경내 향림당서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달서구의원 등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직접 재배한 배추 2500포기를 김장으로 담가 달서구와 성당동 등에 전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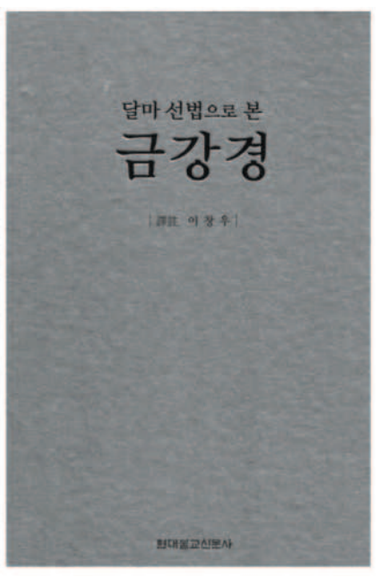
현장 실무자 모두 '복지유공자'

조계종복지재단, 제20회 전국불교복지대회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원행)은 12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예술공연장서 제20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를 개최, 불교복지 발전을 이끈 유공자 24인을 시상했다. 이날 종로노인복지관장 정관 스님 등 복지 분야 관계자를 비롯해 강창일 국회 정각회장 등 정 · 관계, 박종수 현대불교신문 사장 등 내빈이 참석해 자비나눔을 실천한 이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김지원 기자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이 책은 참마음, 참나, 참자기, 본래면목, 불성, 자성, 진여일심, 한마음을 찾는 달마선법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풀이(주해 및 강의)한 책이다. 저자인 이창우 거사는 조계종 한마음선원장 대행 선사의 재가 제자로서 오랫동안 대행선사의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고 마음공부를 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오늘의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 냈다. 저자는 "마음을 몰록 놓는 삶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 같지만 발 가는 곳에 마음이 머무는 곳에 진리(부처)가 있으므로, 생활을 도량으로 삼으면 살아서는 안내자가 되고 죽으면 구세주가 되므로, '참자기'를 스승으로 삼고 '참마음'을 등불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 구입문의 : 02)2004-8216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피부 · 치아 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출혈, 흔들리는 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 건조, 임플란트 또는 틀니 하시고 윗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소화불량, 스트레스(화병), 가슴통증, 수행시상기증, 얼굴모낭충,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 전신 잡티, 낭습진,

피부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 물리고 머리염색 후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 (즉시 여러번 사용 물집안생김), 백반증, 노화성 피부건조, 역류성 식도염, 위염, 대장염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장병 신행 돕는 신중탱화 불사

군산 호국 충렬사, 관음보살 신중탱화 점안

서해 중부의 영공을 수호하는 군산 공군 호국 충렬사 관세음보살 후불탱화 및 신중탱화가 점안됐다.〈사진〉

공군 8325부대 호국 충렬사(지도법사 김윤봉)는 12월 2일 법당에 불사를 진행 중인 관세음보살 후불탱화 및 신중탱화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前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의 증명과 선운사 참당암 대중스님의 집전으로 진행된 법회에는 내원암 자인 스님, 석민호 부대장을 비롯해 장병들과 가족들이 참석했다.

법만 스님은 법어를 통해 "호국 충렬사 장병들도 관세음보살님의 지혜와 자비심, 중생구제 원력을 새겨 용맹심이 증장될 수 있도록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윤봉 지도법사는 "매월 월급과 상여금을 조금씩 모아 불사비용을 마련했다"며 "불자장병들이 신행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운사는 불사에 큰 도움을 준 석민호 부대장과 김현욱 주임원사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청소년포교 1만 공덕주 모십니다"

광주전남 어청련, 천진불 양성 후원자 모집

광주전남불교어린이청소년연합(대표 도성, 이하 어청련)은 12월 1일 관음사 대법당에서 '리틀붓다 1만 공덕주 모연 법회'를 열고 청소년 포교를 위한 후원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침체기를 벗고 새롭게 도약하는 광주불교계의 현실을 반영하듯, 포교관련 많은 단체들이 참여해 어린이, 청소년 포교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 이날 창립 1주년을 맞이한 어청련은 행사준비 1주일 만에 5,000만원을 모연해 향후 본격적인 포교 기틀을 다졌다.

어청련은 모연 취지문을 통해 "그간의 나태와 안일을 참회하며, 대승보살의 광대한 원력으로 백년대계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며 "천진불을 키워내는 리틀붓다 1만 공덕주 모연 대작불사에 걸음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취지문에 앞서 도성 스님은 환영사에서 "어린이청소년 포교는 오랜 시간을 거친 지난한 노력과 인내, 헌신이 아니면 결실을 거두기 어렵다. 이 일은 우리 불자들 모두의 몫이며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어청연 모연법회를 계기로 정기 후원사찰과 월 5000원 CMS후원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대구시민 귀의처 발원"

대구 해운정사 12월 2일 송년 한마당

대구 해운정사(주지 청명)는 12월 2일 경내에서 제9회 해운정사 송년 한마당을 열었다.〈사진〉

행사에는 대응공사 도경 스님과 (선)승가회 회원 스님, 일심비구니 스님 및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해운정사 주지 청명 스님은 "사회복지전공을 밑거름으로 삼아 주간보호센터를 더욱 알차게 운영하고, 사찰이 지역사회 귀의처가 되도록 수행정진 하겠다"고 다짐했다.



행사에서 해운정사 신도회는 '달서인재육성 장학후원금' 300만원을 송현동장에게 전달하며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이외에 대구BTN 합창단 및 해운정사 관음회 공연, 불자들 장기자랑 등이 펼쳐졌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노인 복지 위한 사랑방 '활짝'

늘기쁜마을, 신장림사랑채노인복지관 개관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 불교계 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전문 노인복지관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대표이사 지현)은 11월 29일 '신장림사랑채노인복지관' 개관식을 복지관 내 8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개관식은 내빈들의 테이프 커팅으로 공식 시설 운영을 알렸고, 대표이사 지현 스님을 비롯해 내빈들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복지관은 경과보고로 준공 기간 및 복지관 내 시설을 설명했으며 축하공연 및 시설 라운딩을 진행했다.

복지관은 지하철 신장림역 바로 입구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 이름대로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불교계 전문 복지법인으로 그간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이 운영법인이다.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은 현재 11개 산하기관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환희노인요양원, 두송노인복지센터, 두송주간노인복지센터, 환희노인주간보호센터 등 어르신을 위한 전문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복지관은 2014년 11월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시비 22억 원, 구비 22억 원, 특별교부세 12억 원 등 총 56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대지면적은 378㎡이며 2016년 10월 28일 착공, 2018년 5월 3일 준공을 알렸다. 복지관 공간은 지하1층 지상8층 건물로 연면적 1,621.43㎡ 규모이며, 서예실, 장기바둑실, 배움터, 정보화교실, 물리치료실, 사랑채 식당 등 어르신의 정서 및 생활 지원사업을 위해 구성됐다.

신장림 역 입구에 위치해
어르신 접근성 매우 높아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
생활 지원사업 전개 예정

특히 사랑채 경로식당은 150여 명이 현재 점심을 먹고 있으며 지역 어르신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신장림사랑채노인복지관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여가공간이 특징이며 노년기 활력과 건강을 책임진다는 각오다. 회원등록 후 신규회원 교육을 받으면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원 가입은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은 11월 29일 '신장림사랑채노인복지관' 개관식을 통해 본격적인 운영 시작을 알렸다.

대표이사 지현 스님은 "20년 이상 복지를 위해 쌓은 모든 노하우를 모아 정성을 기울여 어르신을 위해 힘을 다할 것"이라며 "내 가족처럼 모시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부산 사하구는 33만 명의 구민이 거주하며 16% 이상인 5만여 어르신이 있어 노인복지 전문 시설 건립은 사하구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앞으로 노인복지관을 운영할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에 대한 감사인사도 이어졌다.

김태석 사하구청장은 "사하구의 숙원사업이던 노인복지 전문시설이 문을 열게 돼 기대가 상당하다"며 "늘기쁜마을은 항상 복지를 통해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주었다. 든든하고 감사드리며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잡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개관식에는 대표이사 지현 스님, 부산노인복지관협회장 선공 스님, 김태석 사하구청장, 전원석 사하구의회 의장, 신창호 부산복지건강국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051)266-8515

"어르신 생신 스님들이 책임져요"

진안 탑사 · 쌍봉사 등 어르신 생신잔치 열어

고령화사회에 노인문제가 사회현안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진안 마이산 탑사와 쌍봉사가 지역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초청해 성대한 생신잔치를 열었다.

진안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와 쌍봉사(주지 보경), 진안 동부새마을금고(이사장 서귀옥)는 12월 4일 진안 전통문화전수관에서 지역 홀몸 어르신 등 100명을 초청해 '진안군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생일잔치에는 진성 스님, 보경 스님, 성덕사 도홍 스님, 천지사 현진 스님과 진안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해 봉사자들이 직접 만든 생일케이크를 앞에 두고 축하노래를 부르며 생일을 맞은 어르신들을 위로했다.

스님들은 이날 참석한 모든 어르신들을 위해 겨울 이불을 한 채씩 전달했다.



마이산 탑사 주지 진성 스님이 어르신들에게 이불을 선물하는 모습.

이어 쌍봉사 보경 스님이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주고, 탑밴드의 난타공연과 색소폰 연주, 율범문화예술단의 전통문화공연 등이 펼쳐졌다.

진성 스님은 "가족과 떨어져 홀로 생일을 맞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소식에 마음이 아프다"며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활동하신 어르신들이 잠시나마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보경 스님도 "어르신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보람을 느낀다"며 "지역 사회의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다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김장으로 전한 慈悲 부산불교 동절기 나눔

부산 불교계가 김장과 자비의 쌀 나눔으로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발원했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경선)는 12월 3~5일 김장을 지역민에 나눠 훈훈함을 전했다. 범어사는 김장 1300포기를 범어복지법인에 전달했다. 범어복지법인은 차상위 계층 및 독거 어르신 등 지역민에게 김치를 전달할 예정이다.

천태종 광명사는 12월 1일 사랑의 김장 김치와 자비의 쌀을 금정구청에 전달했다. 금정구청은 전달 받은 김장 100박스와 쌀 100포를 장전동 일대 100가구에 전달한다.

사하구불교연합회(회장 법인)는 12월 4일 김장 울력을 사하구 약천사에서 진행하고 배추김치 300포기를 지역민에게 회향했다. 약천사 김장 나눔은 17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2016년부터 사하구불교연합회가 함께 후원해 더욱 확장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방법은 없는 것일까?"

◆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祕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祕法) 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 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 책 자 안 내
1. 생전예수재는"왜"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2.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3.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측면에서알아두면도움되는주택풍수의좋은조건, 나쁜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책 자 안 내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 지 관 음 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 031)768-8414~6 | Fax 768-8413

버니 글래스만 타계 마지막까지 '자비행'

'젠 피스메이커' 창립자… 35년 넘게 봉사 펼쳐



사진출처=tricycle

박정현 객원기자

지난달 별세, CNN 업적 조명
사회적 기업 창립 · 약자 지원
약물중독자와 장애인 등 고용
미국사회선 수행 전파 선구자

사회복지사이자 때론 광대로
빈곤층 돕기 위한 활동 펼쳐

긴 머리와 슬픈 눈, 늘 물고 있던 담배. 세계적 선 수행 지도자 버니 글래스만(Bernie Glassman)은 전통적인 선 수행자라고 보기에 어딘가 낯선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강렬하고도 자비로운 불교 선구자였다. 한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CNN은 지난달 4일 79세 나이로 타계한 글래스만의 업적을 조명했다.

브루클린에서 태어난 글래스만은 불교 공동체 젠 피스메이커(Zen Peacemakers)의 창립자로서, 인정받는 선 지도자이자 불교 선구자다. 젠 피스메이커는 전 세계 25개 지부를 두고 약 1200명에 달하는 신도를 보유한다. 서구 불교 커뮤니티로서는 꽤 큰 규모다. 헐리우드 스타와 함께 간화선에 대한 책을 쓰기도 해 미국에서 간화선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특히 그는 '쉼 없는' 자비 보살이었다고 평가받는다. 불교 정신을 기반으로 빵집을 운영하면서 사회봉사에 몰두, 결국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가 1982년 젠 피스메이커를 창립할 당시 함께 연 빵집은 '열린 고용'을 통해 약물 중독자, 장애인 등을 고용했다. 수익금은 공익 재단에 기부해 에이즈 환자를 위한 주택 제공, 사회복지 서비스 등에 활용됐다. 훗날 1000만 달러 규모의 회사로 성장해 세계적인 '불교 사회적 기업'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에이즈 환자들을 위한 호스피스 시설인 젠 호스피스(Zen Hospice) 설립자 프랭크 오스타세스키(Frank Ostaseski)는 "글래스만이 가장 잘한 것 중 하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는 것이었다"며 "그는 사람들의 물질적 욕구를 채워주고, 정신적 생계를 유지시켜줬다"고 치켜세웠다.

게다가 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이 자행한 대학살로 유대인이 강제 수용됐을 때는 그곳에서 그들을 위한 영적 치료도 진행했다. 또한 35년 가까이 노숙자들을 위한 봉사에도 임했다고.

CNN은 "글래스만은 항상 주변을 둘러보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했다"며 "많은 미국 불자들이 사회참여보다 자기계발을 선호할 때 글래스만은 마네킹명상(mannequin meditation)을 벗어나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선 센터를 '공기 좋은 곳'에서 혼잡한 도시 거리로 옮겨 붐비는 공원에서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글래스만은 2년 전 뇌졸중을 앓으면서도 불교 명상 전파에 대한 신념을 버리지 않았다. '명상'을 삶을 치유하는 근본 방법이 아닌 '생활'로 가르치는데 힘쓴 것으로 보인다. 그의 세 번째 아내는 "그는 명상이 삶으로부터 피난처가 아니라는 사실에 매우 확고했다"고 회고했다.

글래스만은 생전 인간들을 배가 부르고 목구멍이 좁은 '아귀(hungry ghost)'의 존재로 봤다고 한다. 불교 윤회 사상에 입각하면, 생전 탐욕에 쌓인 삶을 산 사람은 죽은 후 환생을 할 때 인간계나 축생계가 아닌 아귀계에서 태어난다. 이 중 아귀는 항상 굶주림을 느끼는 귀신(또는 죽은 사람)을 의미한다. 즉 글래스만은 인간을 '욕망에 가득 차 늘 불만족한 존재'로 보고 그들에 대한 연민으로 평생 봉사하기로 스스로 다짐했다.

글래스만은 자비행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에 '선 수행'을 전파한 것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는다. 미국에 처음 명상이 유입될 당시 미국인들은 명상을 매우 '어려운 것'으로 여겼다고. 그런데 그가 아시아권의 불교 명상법과 미국인들 사이의 '가교 역할'을 했다. 버클리 선 센터의 호잔 앨런 세나 우케(Hozan Alan Senauke)는 "(미국에서) 불교와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에게 어느 정도의 빚이 있다"고 평가했다.

CNN에 따르면 그는 1996년 "우리 주위의 다양한 갈망과 존재를 보는 것은 문자 그대로 형성적인 경험이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불교언론 '트리사이클(tricycle)' 또한 버니 글래스만을 '영적 수행과 사회운동에 대한 열정을 함께 실천한 선구자'로 평가했다. 트리사이클에 따르면 글래스만은 사회복지사이자 엔지니어, 그리고 광대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70세이던 2009년 '젠 하우스'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이 프로젝트는 가난한 이웃들 가까이에 주거형 다르마 센터를 지어 선 수행자들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글래스만은 이외에도 '삶을 살아가는 선스승의 교훈' '선의 가르침' '평화를 이루기 위한 선' 등의 책을 다른 선수행자들과 함께 썼다.

트리사이클은 "수년간 글래스만의 친구로서 그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 영광이었다"고 그를 추모했다.



세계적 선 수행 지도자 버니 글래스만(Bernie Glassman)은 생전 긴 머리를 하고 담배를 즐겨 피웠다. 외형은 전형적인 선 수행자의 모습이 아니었지만, 서양사회에 불교를 전파한 선구자로 꼽힌다. 사진출처=CNN

中 불교성지 구화산서 사라지나

당국, 불상 강제철거 등 '종교의 중국화' 속도

중국 당국이 안후이성 구화산 불자들에 대한 엄중 단속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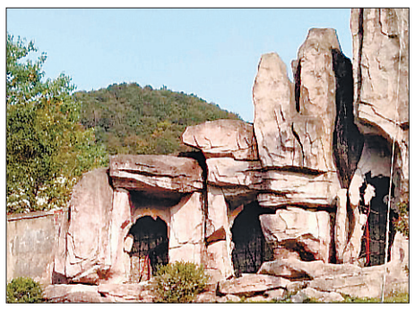
구화산은 중국 안후이성 츠저우시 칭양현 내에 있는 불교 4대 성지 중 하나로, 지장보살 도량이다. 이밖에 관세음보살의 푸퉈산, 보현보살의 어메이산, 문수보살의 우타이산이 4대 성지에 포함된다.

이 같은 구화산 내에서도 의미 깊은 아치형 석조물이 강제 철거됐다고 중국의 종교전문 일간매체 비터윈터(bittherwinter)가 12월 4일 보도했다. 아울러 구화산불교협회(Jiuhua Mount Buddhist Association) 회장은 가택 연금 당했다.

아치형 통로가 철거된 것은 지난 10월 19일. 홍콩의 한 저명인사가 38만 위안을 기증해 1994년 지어진 건축물이다. 구화산 입구를 연결하던 통로다.

현지 승려는 "이번 (석조물) 철거는 구화산 전체 명성에 타격을 가했다"며 "당국은 종교의 중국화 정책에 따라 구화산 곳곳에 국기를 올렸다. '핵심 사회주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종교 규정이 포스터물로 모든 벽에 게시됐다"고 토로했다.

해당 승려에 따르면 정부는 사찰 내에서 향을 태우는 것조차 제한시켰다. 가장 작은 크기의 향을 3개까지만 태우는 것이 허용된다. 사찰이 이를 준수하는지 지도하고 엄중 관리한다. 많은 승려들이 이미 당국에 의해 사찰에서 쫓겨났고,



중국 당국의 '종교의 중국화' 정책으로 인해 불상이 있던 석굴이 비어버렸다. 사진출처=비터윈터

동굴에 새겨진 역사 깊은 불상들도 대거 훼손됐다는 설명이다.

구화산 인근에서 불교용품 상점을 운영하던 한 주인에 따르면 정부는 불교용품 상점마저 폐쇄 조치했다. 그렇지 않으면 '불교'나 '불상'을 뜻하는 표기법이 강제 제거되거나 수정됐다. 현지인들에 따르면 당시 "불교는 이교도 가르침이다"면서 불교용품 판매를 금지시킨 것으로 알려진다. 또 다른 상점 주인 역시 "중앙정부의 지시에 저항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 같다"고 전했다.

구화산 일대 불자 및 사찰들에 대한 단속은 당국의 공공보안 및 도시 관리국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안후이성 남쪽 츠저우(Chizhou)시(市) 내에서도 17개 사원이 철거되거나 철거를 앞두고 있다. 박정현 객원기자

우즈베키스탄서 고대 불교벽화 발견

2~3세기 작품 추정… 불교미술 변화상 엿보여

고대 실크로드를 통해 불교문화가 확산 · 발전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불교벽화가 우즈베키스탄서 발견됐다.

'아사히신문' '글로벌 부디스트 도어' 등은 "우즈베키스탄 남부 테르메즈에서 발견된 2~3세기 불교벽화가 고대 실크로드를 따라 확산된 불교문화의 변화상을 보여준다"고 12월 4일 보도했다. 이 언론에 따르면 해당 벽화는 2016년 우즈베키스탄 과학아카데미 현지 연구원들과 일본 도쿄에 위치한 가장 오래된 대학 중 하나인 릿쇼대학 연구진이 발견했다. 벽화가 발견된 곳은 불교사원유적인 카라 테퍼(Kara Tepe) 불탑 옆 지하 2m에 위치한 석실이다.

너비와 길이가 각각 1m인 벽화는 붉은 색과 파란 색의 밝은 색조가 다양한 인물과 형상을 도드라지게 하고 있다. 야스다 하루키 릿쇼대 미술사학과 교수는 "이 벽화는 한때 부처님의 삶을 묘사했던 더 큰 작품의 일부일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벽화가 발견된 카라 테퍼 유적은 2001년 탈레반에 의해 파괴되기 전 바미얀 불상이 서있던 아프가니스탄 국경과 바미얀 계곡 사이에 위치한다. 이는 한때 실크로드의 문명 교차로와 겹치는 지역이다. 이로 인해 그리스와 로마 스타일의 헬레니즘 회화 영향을 받은 유물과 인도 신화에 등장하는 상상의 새 가루다 두상도 발견된 바 있다.



우즈베키스탄 남부 테르메즈에 위치한 불교유적 카라 테퍼에서 발견된 벽화. 사진출처=아사히신문

중앙아시아 불교미술 전문가인 아키라 미야지 나고야대 명예교수는 "이번에 발견된 벽화는 인도와 페르시아 요소를 결합한 것으로, 초기 불교미술의 변화상을 엿볼 수 있다. 초기불교를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벽화"라며 "유연한 빗질과 색칠은 바미얀 불화보다 오래된 작품의 특징"이라고 평가했다. 윤호섭 기자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서울시 종로구돈의동46-1번지 02)3673-3442,764-2159 / 010-5264-3906
경 기 도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www.yangjikukak.com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 합니다.

☎ 문 의 : 민성기업(구,대진기업) 010-2628-9944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
아잔 브람

〈12〉 다섯 장애와 칠각지(법념처)

우리는 삶을 통제할 수 없다



오늘은 칠각지(七覺支)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칠각지는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라고 불리기도 하며 '깨달음을 이루는 특성' 혹은 '깨달음의 길'이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제가 칠각지에 대해 강의하는 이유는 이제까지 해온 강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념처가 기록되어 있는 경전의 오래된 사본을 비교하면 '법에 대한 마음챙김 수행'에 오직 두 가지, 다섯 가지 장애와 칠각지만이 공통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수행의 본질이 바로 장애를 극복하고 칠각지를 계발하는 작업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행을 통하여 장애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장애가 일어나는 원인을 알게 되며 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섯 가지 장애가 약화되면 선정으로 가는 길이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서 여러 차례 말했듯 선정을 얻으면 다섯 가지 장애들이 오랫동안 사라집니다.

선정을 경험하면 우선 첫 번째 장애인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기쁨을 얻기 위해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자신이 기쁨의 원천을 지니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감각적 욕망이라는 장애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선정 후의 마음은 스스로 너무나 만족스럽고 행복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깊은 명상을 경험한 후에는 평소라면 화가 났을 상황에서도 전혀 화가 나지 않습니다.

또한 강한 에너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몽롱함과 졸음이라는 장애가 생길 수도 없습니다. 밤에 누워 있어도 잠에 빠지지 않습니다. 수면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육체는 휴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누워 있기는 하지만 마음은 휴식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마음은 이미 계속해서 휴식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두뇌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마치 차고에 넣어두고 사용하지 않는 차의 연료가 소모되지 않듯이 선정 수행자의 내면에서도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고요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고 따라서 수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들뜸과 후회라는 장애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고요한 상태에 머무는데 마음이 여기저기로 돌아다닐 리가 없습니다. 삶은 단순 명료하고 고요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안개에서 벗어난 것처럼 세상이 명료하게 보입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 의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장애라는 것은 어둠과 같습니다. 장애가 있으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봅니다. 원하는 것을 본다는 것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 체계에 의해 인식에 왜곡을 일으킵니다. 자신의 호오(好惡)에 따라 인식이 왜곡됩니다.

하지만 다섯 가지 장애가 사라지면 우리는 이런 모든 문제에서 벗어납니다. 장애가 없으면 왜곡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말했듯이 다섯 가지 장애를 일정 기간 없애는 최상의 수단은 선정입니다. 그리고 다섯 가지 장애가 없어지면 칠각지,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개발됩니다.

다섯 가지 장애를 극복하면
일곱 가지 깨달음 요소 계발
강한 마음챙김으로 시작해
모든 것 받아들이는 평온까지

염각지(念覺支)

칠각지의 첫 번째는 마음챙김입니다. 마음챙김에는 여러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칠각지에서 말하는 마음챙김은 상당히 강한 마음챙김입니다. 누구나 어느 정도는 마음챙김을 갖추고 있습니다. 복잡한 거리에서 운전하는 사람도 역시 마음챙김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하는 사람들이 칠각지의 첫 번째인 마음챙김을 계발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챙김이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음챙김이 지혜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경전에서 언급되는 마음챙김이 대부분의 경우 지혜를 동반한 마음챙김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알아차림이 아니라 가르침에 대한 기억을 동반하는 알아차림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염각지는 마음챙김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이 배운 가르침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이러한 마음챙김은 장애가 사라졌을 때의 강한 마음챙김입니다.

택법각지(擇法覺支)

마음챙김이 강할수록 대상을 보다 명료하게 깊은 곳까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전의 법문에서 말했듯 마음챙김이 강할 때는 콘크리트 바닥이나 변기 속의 대변도 전과 다르게 보입니다. 미세한 부분까지 분명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것이 칠각지의 두 번째 각지인 택법각지입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법의 미세한 부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택법각지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법에 대해서 이런저런 사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택법각지를 계발하기 위해서는 매우 강한 마음챙김이 요구됩니다. 택법각지는 하나의 대상에 충분히 오랫동안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정진각지(精進覺支)

택법각지 다음은 수행의 에너지, 정진각지입니다. 강한 마음챙김이 있으면 택법각지뿐 아니라 강한 에너지도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각지가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강한 마음챙김에서 비롯되는 에너지는 마음을 들뜨게 하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체육관에서 운동을 해 생기는 에너지도 아니고 커피 세 잔을 연달아 마시면 생겨나는 그런 에너지도 아닙니다. 마음챙김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순수하고, 아름답고, 강렬한 에너지입니다.

택법각지와 정진각지를 계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영웅적인 에너지입니다.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 낡은 것을 모두 버릴 수 있는 담대함을 지녀야 합니다. 진리[法, Dhamma]를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영웅적인 용기가 필요합니다.

희각지(喜覺支)

정진의 에너지에서 우리는 희각지, 기쁨을 얻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행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 경전에서 기쁨과 행복감은 수행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계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쁨과 행복감은 수행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며 수행이 진전될수록 행복감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행복감이 강해지는 정도를 보면 수행이 얼마나 진전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행복하고, 평화롭고, 만족스럽고, 기쁨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수행의 진전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마음챙김이 강해지고 에너지가 증장되면 기쁨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깊은 수행을 경험하면 에너지로 충만해지고 즐거움을 느낍니다.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벼워집니다. 그러니 수행 중에 기쁨이 일어나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경안각지(輕安覺支)

기쁨을 통해 수행자는 몸과 마음의 편안함, 경안을 얻습니다. 화가 나거나 통증이 있는데 몸을 움직이지 않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쁘고 편안하다면 몸을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물론 의지력으로도 몸을 움직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영국 버킹검 궁전 앞의 근위병들은 일본 관광객들이 움직이게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조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의지력에 의한 것입니다. 수행자의 경우에는 수행의 과정에서 생기는 기쁨의 힘으로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정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편안함의 구성 요소인 경안각지입니다. 경안각지가 계발되면 움직일 필요가 없어지고 편안히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정각지(定覺支)

이제 수행자는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몸도 평화롭고 마음도 평화롭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고요해집니다. 그것이 삼매입니다. 다른 경전에서는 편안함과 삼매 사이에 행복감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매는 집중이 아닙니다. 삼매를 집중이라고 생각하면 침묵이 주는 귀중함을 알 수 없습니다. 집중은 긴장된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공격적입니다. 침묵은 열려 있고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따뜻합니다. 이러한 침묵이 바로 삼매입니다.

평온각지(平穩覺支)

깊은 삼매에서 나오면 어떤 것도 수행자를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평온의 깨달음 구성 요소'입니다. 이미 말했듯 다섯 가지 장애는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보라고 부르거나 천치라고 불러도 전혀 화가 나지 않습니다.

삶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놓아두고 모든 것을 그저 받아들이십시오.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십시오. 그것이 평온입니다.

살면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한 번의 결정에 자신의 인생이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생각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결정은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어느 쪽으로 결정을 내려도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결정을 내린 다음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지금 설명한 것들이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 칠각지입니다. '마음챙김의 확립 경'에서 말하듯 '전에 없던 깨달음의 각 구성 요소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꿰뚫어 알고, 일어난 깨달음의 각 구성 요소를 어떻게 닦아서 성취하는지 그 원인을 꿰뚫어'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념처 수행의 목적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한 반복 정형구에서 말하는 것처럼 각각의 법들이 일어남과 사라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글은 아잔 브람의 위빠사나 명상 강의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불광출판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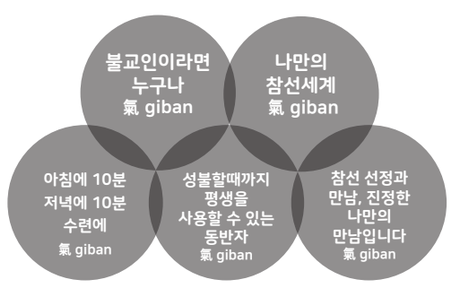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 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세로 32cm×높이(뒷면) 8cm]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우리가 그대로 법이고 그대로 묘법이고 그대로 활공법이다!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자리를 해 주시는 여러분을 볼 때에 정말 100% 벗어나서 세세생생에 삶의 보람을 가지고 자유인으로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모두 그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추우나 더우나를 떠나서 이렇게 물주머니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음들을 가지셨으니 얼마나 갸륵하십니까? 정말 고개가 숙여집니다.

하여튼 그 어항이라는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공부를 생활 속에서 내가 함이 없이 할 수 있게 여러분께서 잘 알아서 행하시도록 노력하십시오. 아무리 부처가 된다, 벗어난다 할지라도, 안다 하더라도 돌다리를 두드려 가면서, 아는 것도 물어 가면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내가 단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질문하십시오. 알아도 질문이고 몰라도 질문이니까 여러분이 한자리에서 같이 공부하시기 위해서 몰라도 해야 하고 알아도 해야 합니다,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단식에 대해서 얘기하기 이전에 진리라는 것이, 불상을 만 불(萬佛)을 모셔 놔도 하나가 빠지게 되는 것이 아마 상례일 것 같습니다. 왜 그 하나가 빠지는지, 또 원효 대사가 설총이더러 쓰레질을 하라고 그랬을 때에 말갛게 쓰레질을 해 놓으니깐 한 무더기 집어서 훌훌 끼얹어 놓은 그 까닭은 무엇인가? 그 까닭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잠시 사이) 죄들, 죄들 부처가 다 되셨어. 부처가 다 되셔서 손 들 것도 없고 안 들 것도 없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하하.

광주에 있는 운주사에 불탑이, 석탑이 천불(千佛)이 모셔져 있고 뭐, 어떻다고 그러는데 이 공부한 사람들의 의견은, 하나가 있어도 천 불이고 하나가 있어도 만 불이고, 삼십 개가 있어도 삼천 불이 될 수 있고 삼만 불이 될 수 있고, 삼 불이 될 수 있고 삼십 불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와불(臥佛)도 있고, 모두 이렇게 앉아 계신 분, 서서 계신 분, 목이 잘린 분, 다리가 잘린 분, 코가 떨어진 분, 이렇게 모두 다양하게 계신 원인은 이 산중에도 병든 나무 또 죽은 나무, 비뚤어진 나무, 올바른 나무 다 서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네들의 살림살이에 속합니다. 그 모든 석불들이 그렇게 돼 있는데 말입니다. 아까 원효 대사가 한 움큼 집어다가 끼얹었다고 하지 않습디까? 그러니 완성해 놓은 거는 없어요. 완성이라는 건 없어요. 항상 흐르면 또 들어오고 흐르면 또 들어오고 이렇게 쳇바퀴 돌아가듯 돌아가는 것이 진리지, 완성해 놨다 이러고 벌써 그건 끝이다 이런다면 그 끝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모자라도 모자람이 아니고 잘해도 잘함이 아닌 거죠.

옛날에 제가 어느 모퉁이를 돌아가다 지쳐서 쓰러졌는데 엉금엉금 기어가서 물이 조금씩 흐르니까 그 물을 마시는데, 한 모금 마시니까 삼천 모금을 마셨다는 겁니다. 허, 그래서 또 한 모금을 먹으니까 두 모금을 마셨다는 겁니다. 또 한 모금을 먹으니까 세 모금이 아니라 삼세(三世)의 그 모든 물을 다 마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 '가도 없는 것이고 와도 없는 것이고, 마셔도 없는 것이고 마시지 않아도 없는 것이구나. 이 없는 것 가운데에 아주 선명하게 그렇게 나와 있구나. 그 모두가 같이 돌아가지만 모습이 다 달라서 천차만별로 각계각층으로 차원이 되고 그렇게 모두 다 다르구나.'

다르면서도 그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법이 돼서 바깥 현상으로 나오게 되고, 현상으로 나오면 그것을 우리가 법이라고 합니다. 그 모두가 이렇게 되는 마당에서 끝을 마치려고 하지 마시고 '꼭 이것을 알아야겠다.' 하는 마음도 한 찰나에 놓고, 그다음에 또 알아야겠다 하더라도 놓고 놓고 하루살이로, 한 찰나로 사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지루하지 않고 항상 멋진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항상 공부하는 사람들이 "단식, 단식" 그러는데, 단식이라는 게 밥을 굶고 먹을 걸 안 먹어서 단식이 아닙니다. 본래는 단식이라는 그 구절이 왜 나왔느냐? 모든 스님네들이 공부를 할 때에 '너는 단식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 이랬습니다, 선지식들께서 말입니다. 그래 단식이라 함은 공양을 먹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고 끊는 것을 단식이라고 간단하게 생각들을 하지요. 그런데 그런 게 단식이 아닙니다.

근본 단식은 바로 우리가 먹어도 먹는 사이 없이 먹는 것이 단식입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걸어왔기 때문에 그것도 단식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이 왔기 때문이지 만약에 발걸음을 걷는 대로 내가 움켜잡고 왔다면 그건 단식이 아니죠. 그리고 항상 먹는 거니까 먹는데 이걸 먹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고 먹습니까? 그냥 먹게 되면 먹는 거죠. 또 똥을 누는 데도 '이걸 눠야 될까, 안 눠야 될까.' 하고 똥을 눕니까? 하하하. 일상생활이 그대로 단식이며 그대로 활공법(活空法)이며 그대로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전부 그렇게 돌아가고 있죠.

그런데 본래 가지고 있는 거를, 활용하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이 관습이나 그 착, 욕심 이런 것에 끼여서 말갛게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볼 수가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발을 떼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모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대로 법이고 그대로 묘법이고 그대로 활공법이다 하는 것을 제대로만 안다면 아마 그대로 넉넉할 겁니다. 그래서 이 단식이라는 것이 '닥치는 대로 먹되 먹은 사이가 없다' 할 때 단식입니다. 단식이란 말도 안 하고 지금 우리는 단식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해가 가게 하기 위해서 몸속에 많은 자생중생들이 있는 것이 바로 자기니까, 자기가 그렇게 많이 있으니까 혼자 먹는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해 드렸습니다. 혼자 먹는 게 없고, 혼자 보는 것도 없고, 혼자 듣는 것도 없고, 혼자 가고 오는 것도 없고, 혼자 만남도 없고, 혼자 돈 버는 것도 없고, 혼자 망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여러분은 여여하게 걸림 없이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돼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지수화풍이 본래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바탕으로 인해서 광력이나 자력, 통신력, 즉 전력, 이 모두가 갖추어져 있는 겁니다. 못났든 잘났든, 부자든 가난하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본래 가지고 있습니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하기를 잘되는 것도, 비유해서 구정물이라면 새 물로다가 바꿔 놔야 하는 거죠. '구정물이 나오는 거라면 새 물도 나오게 할 수 있잖아.' 하고 대치를 해서 바꿔서 거기 놔라 이겁니다.

구정물이 나오게 입력이 돼 있으면 구정물만 나옵니다. 아주 똑같이 말이에요. 그거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면, 그 뭇 의식들이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라면 바로 대치를 해서 '그것도 한마음 속에서 구정물이 나오는 거니까 그 속에서 새 물이 나오게 할 수 있잖아.' 하고 대치를 해서 거기다 놓는 겁니다. 이게 굴려 놓는 거라고 합니다.

이 주인공을 믿기는 하되 굴려 놓지 못한다면 바로 생활에 지장이 있는 것도 타파를 못합니다. 생활에 지장을 주고 천차만별로 다가오는 것을 어찌 다 타파를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 마음으로 하는 거는 돈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물리가 터져야 되고 지혜가 생겨야 되니까, 항상 딱따구리가 나무 쪼듯 쪼아서 뚫고 들어가 앉듯이 해야 하는 거죠. 항상 바깥으로 믿고 이름을 찾는 것 말고, 안으로만 믿고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 너만이 낫게 할 수 있다. 너만이 이끌어 갈 수 있다. 너만이 깨치게 할 수 있다. 너만이 물리가 터지게 할 수 있다. 너만이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 있다.' 하고. 매사 것, 일거일동 자기가 움죽거리고 하나하나 걸음 떼어 놓는 것까지도 거기에서, 자기 주인공 뿌리에서만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께서 이 도리를 배우시면서 체험하고 자꾸자꾸 발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마음의 발전이 돼야 지혜도 생기고, 창조력도 생기고, 마음의 발전이 돼야 넓게 시야를 볼 수가 있다. 넓게 들을 수가 있다. 그리고 넓게 들을 수 있으니까 한 걸음 떼어 놓을 수도 있고 한 걸음 벗어날 수도 있다.

☞ A18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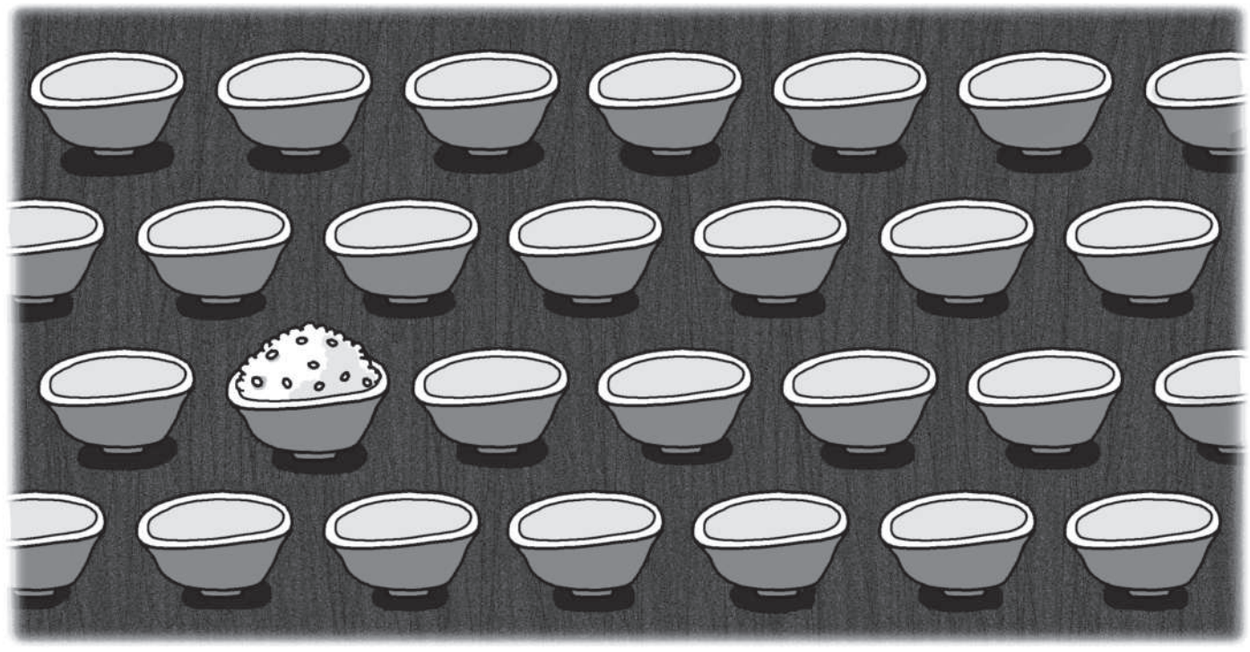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건강백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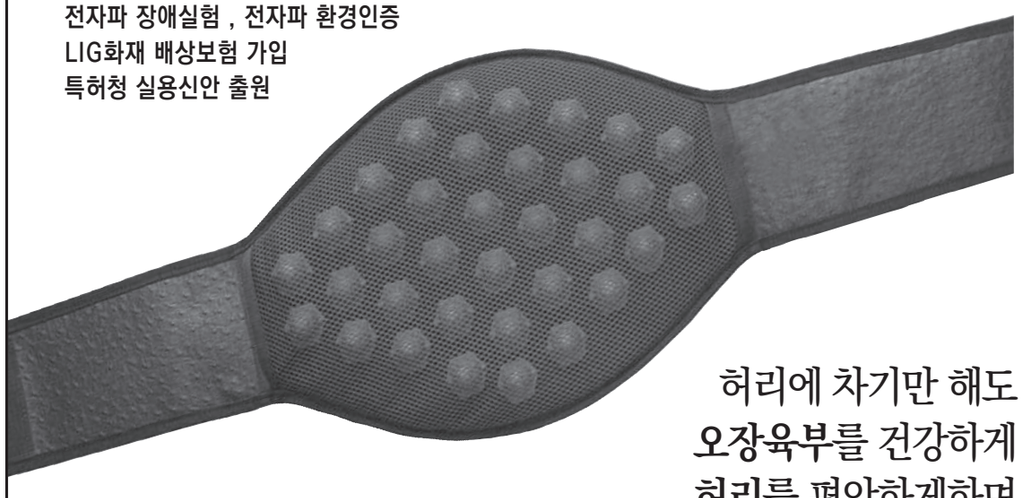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 ,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 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 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 분
*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 다양)

온열복대

항상 딱따구리가 나무 쪼듯 쪼아서 뚫고 들어가 앉듯이 해야

☞ A17면에서 계속

이 모두가 이렇게 반복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반복되는 시점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자유스럽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사십구 년 설해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를 보아도 상대에게 기도를 하고, 상대에게 원을 세우고, 상대를 믿고 스승을 삼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아니 됩니다. 석존이 여기 계시다 할지라도 석존의 고깃덩어릴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세워야 석존의 마음이 내 마음을 통해서 바로 내가 됐다 석존이 됐다 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말입니다, 여러분은 몰라서 그러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꽃도 내가 되고 나도 꽃이 되고, 석존도 내가 되고 또 내가 석존이 되는 겁니다. 또 수많은 중생들 이 안에서도 내가 됐다가 그네들이 됐다가 맘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우리들한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생각 하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느 스님이 와서 묻기를 "스님!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길래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 것이고 없다고 생각하시면 없는 겁니다." 하니까 "올해는 잘 보는 사람이 그러는데 물에 빠져 죽을 운수라고 하면서 물가에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없습니까?"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이 만약에 물귀신이라면 물귀신한테 말려서 죽을 거고 선자라면 물귀신하고는 멀 겁니다. 스님의 마음이 물귀신이니 물귀신한테 말려 죽을 수밖엔 더 없지 않습니까?" 하니깐 고개를 끼우뚱하고 가십디다.

그러고 나서 몇 달 후에 다시 오셨어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인데 누군지 난 이름도 모릅니다마는 아니, 물가엘 안 나가려고 아주 애를 썼는데 초대를 받고 가다 보니깐 그 초대받은 집에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물로, 스님이 오시니까, 말짱히 씻어 놨던 모양입니다. 고무신을 신고 올라가시다가 물에 미끄러져 가지고는 그냥 곤두잡이를 쳐서는 허리를 다쳐서 몇 달을 못 일어났다고 하십디다. 그래도 물귀신이 없느냐 이겁니다. "아, 이렇게 봉변을 당했는데도 없습니까?"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스님이 물귀신한테 말려서 죽을까 봐 애를 쓰는 마음이기 때문에 물귀신한테 말린 거지, 스님의 그 마음이 물귀신이지 다른 게 물귀신이 아닙니다. 스님 마음이 물귀신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바로 몸이 말린 겁니다. 그래도 알아들으셨는지 못 알아들으셨는지 그냥 그러냐고 그러고 가십디다. 그리고 여태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돌아가셨는지 모르죠.

그랬듯이 이게 어줍지 않은 말 같지만 여러분이 한 번 생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금방 이 장사가 망해서 훌떡 넘어가게 생겼는데 한생각을 몰아서 그냥 쫙 해 버리니까 활기를 띠고 일어났답니다. 이 한생각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은 한생각을 우습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한생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한생각이라는 것은 공덕을 말합니다. 한생각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한생각 속에 이 내면의 의식들이 한데 합해 주고 외부의 모든 일체제불의 마음이 한데 합쳐주는 한생각입니다.

개별적인 여러분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혼자 하고, 혼자 살고, 혼자 했고, 혼자 벌었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 원리가, 물리가 터져야 우리가 공(空)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공해서 내세울 게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생활 속에서 발을 떼어놓고 움죽거리고 눈을 뜨고 귀를 떠서 듣고 이렇게 살아도 혼자 그렇게 듣고 보는 게 아니라는 거, 내가 혼자 그렇게 봤다 들었다 산다 할 수가 없다는 거, 그런 생각이 든다면 바로 이 속에서 '어허! 너 아집도 참, 꽤 많구나.' 이렇게 아마 되풀이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작용을 해 줘서 네가 다니는 줄 모르고 허, 나를 갖다가 무시하고 네가 이렇게 했어?' 하고 아마 '너 그러면 좀 망해 봐라.' 이럴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아집을 갖지 말고 공심(共心)으로, 공용(共用)으로, 공체(共體)로 공식화(共食化)하고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서 알면 모두가 유해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갈고리를 쥐고 찍으려고 하더라도 아주 상대방까지 유해지고 찍는 것이 슬며시 놔진다 이 소립니다. 모두 악해졌던 마음들이 선해져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화(化)해서 바뀐다 이 소립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익하고 상대도 이익해져서 인과응보에서 벗어나고 또 유전성에서 벗어나고 영계성에서 벗어나고, 모든 게 한마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세균성에서도 벗어나고, 이 일체 업보 속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우리는 스스로 자유스러워진다 이겁니다. 누구가 "자유스러워라. 자유스럽지 마라." 이런 억압적인 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유스럽게…, 이쪽으로 가면은 구덩이에 빠질 건데도 불구하고 스스로서 안에서 이쪽으로 가게 해서 스스로 잘 이룩하게 만드는 자동 컴퓨터에서 나오는 그런 자유스러운 생활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어떻게 상대를 모두 원망 안 하고 내 탓으로 돌리면서 돌아가느냐? 어떤 사람은 내 탓으로 돌려라 하면 "내가 뭘 잘못해서 내 탓으로 돌립니까?" 합니다. 그러나 잘못하고 잘하고 이걸 떠나서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벌써 내 탓이죠. 항시 얘기합니다마는 소가 가다가 언덕이 없으면 비비지 않습니다. 언덕이 있기 때문에 비비죠. 그런 까닭에 우리가 이 세상에 났으니까 이 태어난 자체가 바로 탓입니다. 잘못하고 잘하고 간에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질문하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질문하십시오.

질문자1(남) 질문을 적어 왔습니다만 할까 말까 했는데 스님이 앉으시면서 질문하시라고 용기를 주셔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께서 평소 '말이 한데 떨어지고 있다' 고 애타하시는 말씀을 자주 하시고, 항상 말이 법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알고 있기로는' 하신 후 없는 나를 앞세우신 후 설법하심을 보여 주시며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공부를 하여 참자기를 만나면 비밀이라는 용어가 탄생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고 싶어 여쭈고자 합니다.

세간에서 악담이나 비방은 당장 따귀 한 대라도 돌아오니 그 뜻을 쉽게 알 수 있지만 한마음 공부를 하여 마음의 힘이 생겨 자신의 말이 무심코 법이 됨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또 알지 못하므로 공든 탑이 무너지듯 잘될 것도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어떤 때는 남을 위한다는 말이 외려 화가 되는 경우도 있고, 지나친 충성은 역적이 될 때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간사한 말이나 남을 헐뜯는 경우, 그 대가는 즉시 알 수 없고 그게 사실인 것으로 아는 부화뇌동한 사람들에게까지 공통 업을 만들지만 이를 알지 못하고 지냅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신선으로 수행 중에 무심코 한 번 화를 내었더니 그곳 고을에 삼 년이 가뭄이 들어 많은 백성들이 고초를 당하고, 이런 일로 인하여 내생에는 사슴의 몸을 받아 축생으로 보낸 일도 있다는 기록을 옛날에 읽을 때는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가 다 있나 했으며, 부처님을 이상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하여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큰스님의 뜻을 따르다 보니 깊은 뜻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을 땐 부처가, 생각을 내면 왜 법이 되고 법신(法身)이 되어 말이 업이 되는가를 명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저 등 너머 산이 또 있는 줄 몰랐더니 큰스님께서 "법은 행이 따르는 거야." 하시는, 하나도 아니요, 둘도 아닌 도리를 말씀하심에 한생각에 따라 영계성, 윤회성, 업보성이 나타나고 십이인연이 생김을 이해하게 되니 생각이나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음에 놀랐으며 제법무아(諸法無我)의 뜻과 계(戒)·정(定)·혜(慧)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대수롭지 않은 말임에도, 길잡이가 못하게 할 때가 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도 비밀을 지켜야 됨은 무슨 도리가 있기에 그러하며 이러한 것을 두고 천기누설이라고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업식에 속아 자승자박하는 경우가 한데 떨어지는 것이라면 유(有)의 행은 하되 유위에 젖지 않는 가르침을 구하고자 합니다.

큰스님 말 다했소?

질문자1(남) 예.

큰스님 하하하. 아니, 그게 무슨 질문이오? 용건만 딱 얘기하라는 거지.

질문자1(남) 일반적이고 대수롭지 않은 말임에도 길잡이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비밀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뜻인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큰스님 다시 한번 말하겠소?

질문자1(남) 일반적이고 평상적인 이야기 같은데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음에서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비밀을 지켜야 된다는 뜻인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큰스님 아, 못하게 하는 것도 자기요, 하게 하는 것도 자기니까 그건 자유스럽게 그 가운데서 알아서 말하는 거지요. 그리고 행하는 거지. 그 비밀도 비밀 아닌 것도 그 속에 다 있어요. 그것을 말로 가르쳐서는 가르칠 수가 없는 거고, 하여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들어서 안 되는 게 있고 들어서 될 일이 있고, 들어서 새길 일이 있고 들어서 할 일이 있고, 봐서 할 일이 있고 보았으면서도 보지 않게 버리는 게 있고, 이렇게 자유스럽게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질문자1(남) 예. 스님 법문 중에 생각을 내어서 맡겨야지, 그냥 맡기면 그 집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어 심부름꾼이 심부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같은 가르침에 처음에는 유위적으로 이해가 되었고 저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어 소상히 알고자 합니다. 즉, 내가 없는데 누가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되는지요? 금전적 걱정이 날 때 생각을 내어 보면 길잡이가 아예 마음조차도 내지 못하게 하여 건성적 생각만 할 뿐 마음으로 굴릴 수 없어 맡길 것도 없고 생각 내는 그 자체가 오히려 둘이 되는 것 같아 퇴보함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납니다. 이런 이유로 어떤 문제가 부닥치면 생각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내게 하는 놈을 관(觀)해 보면 생각 내는 놈이 없고, 주인공이라는 이름을 붙여 보면 그 이름조차도 둘이 되는 것 같이 느껴지고 군더더기가 되어 거부감이 듭니다.

큰스님 이, 묻는 거를 그렇게 길게 물으면 어떡합니까? 하여튼, 그 말뜻은 우리가 배우는 측에 있어서 맡겨 놓는다. 이렇게 맡겨 놓는 그 선을 세워야 우리가 마음이 안유가 되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나 걷지도 않고 뛰려고 한다면 안 돼요.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걷지 않고 뛰려고 하거든요. 내가 진짜 걸어 보고 내가 뛸 수 있어야 뛰는 것이지 걸어 보지도 않고 뛰려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돼요. 댁이 그 뜻을 알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묻질 않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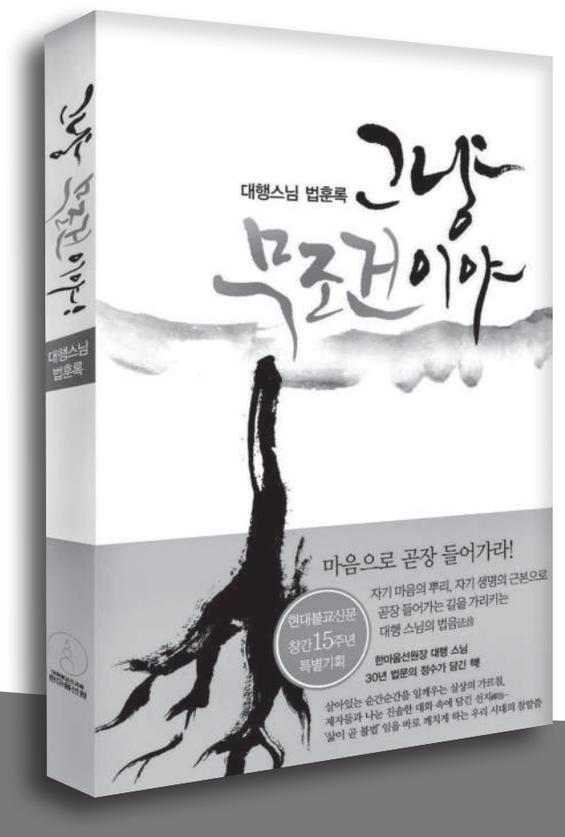
내가 "놓을 것도 없다. 놓을 것도 없는 데에 놔야 된다." 이런 것은 뭐냐 하면 "돌려놔라. 돌려놓지 못하면 입력된 게 그대로 나온다." 입력돼서 나오는 거는 피할래야 피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입력돼서 나오니까 그것을 다시 바꿔서 입력을 해라 이 소린데 이 세상은 굴리면서 살고 구르면서 살고 끝없이 바로 이어져요. 굴림을 모른다면 바로 나라는 게 세워지기 때문에 동참을 할 수가 없어요. 당신이 아는 게 있기 때문에, 당신이 세울 게 있기 때문에, 놓을 게 없다고 하는 것은 세우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놓기는 뭐를 놔요. 그건 벌써 나라는 거를 세우는 거라고요. 한 번 다시 정립해서 놓을 게 없든 놓을 게 있든 몰락 놔요. 이게 틀리다, 이게 옳다 이러지 말고 말이에요.

(다음 호에 계속)

> 개별적인 여러분은 없습니다.
> 개별적으로 혼자 하고, 혼자 살고, 혼자 했고, 혼자 벌었고 이런 게 없습니다.
> 그런 원리가, 물리가 터져야 우리가 공(空)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위 법문은 1993년 12월 19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 현불 논단 |

수요 차단, 디지털 성범죄 해법



이윤호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장

'디지털 성범죄' 사회문제로 부상
온라인서 시공 초월해 자유 유통
피해자에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여성 대상으로 한 복수 의미하는
'리벤지 포르노' 여성 혐오 용어
가해자 책임 두는 용어 사용해야

문제는 IT기술 아닌 사람에 있어
생산 · 공급뿐 아닌 수요 차단해야
불법영상 클릭하며 해결 요원해

디지털 성범죄는 비교적 전통 범죄화됐다고 할 수 있는 몰래 카메라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불법 음란 영상물의 생산과 유통 전반을 아우르는 범죄이다. 바로 여기에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숨어있다.

온라인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 누구나 자유롭게 유통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자신도 모르게 그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시공을 초월한 것이어서 피해 정도나 파급력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 전통적 성범죄가 영혼의 살인이라고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적어도 그 피해자에게는 어쩌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같은 형벌이다.

디지털 성범죄라는 쉽게 말하자면 불법으로 생산된 영상물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는 것이다.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노출되고, 유포된 불법 영상물은 온라인에서 삭제되지 않으면 피해는 지속되며, 대다수의 피해자가 여성과 아동이라는 것이 더욱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던 몰래 카메라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가 최근에는 특정인을 상대로 특정한 목적을 가지는 범죄가 하나 더 추가되고 있다. 당연히 잘못된 용어이지만 바로 소위 말하는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이다.

그런데 '리벤지 포르노'는 '리벤지'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에 대한 복수를 뜻하며, 따라서 피해자 절대 다수인 여성의 잘못에 대한 복수를 함축하고 있어 매우 여성 혐오적인 용어이다.

이런 견지에서 우리는 '리벤지 포르노'가 아니라 가해자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 성범죄로 이름함이 마땅하다. 이런 맥락에서 요즘 '몰래 카메라'라는 용어 대신에 '불법촬영'이라고 표현하여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는 움직임도 바람직한 것이다.

비단, 디지털 성범죄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전은 어쩔 수 없이 신종범죄를 유발하게 되고, 기존의 전통적 범죄마저도 첨단과학기술을 만나 응용범죄로 진화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이전에도 지구촌 어디에나 소위 음란물 또는 포르노라는 불법 영상물은 있었으며, 전통적 성범죄가 디지털 기기를 만나서 새로운 하나의 '적응범죄(Adaptive Crime)'로서의 디지털 성범죄를 파생시킨 것이다. 결국, 디지털 성범죄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범죄라기보다는 그 수법이 첨단으로 진화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디지털 성범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데는 그 만한 이유가 있다. 우선, 대부분의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로 알려지고 있는 여성과 아동이라는 점, 그것도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잇다는 점, 그 피해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영속화되고 확산될 수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의 발달은 더 많은 범행의 동기와 기회를 제공하고 더 쉽게 범행할 수 있는 수법을 제공하고 있음에 비해 그 통제는 법률적, 기술적 복잡성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문제의 해결은 IT기술에도 있지만 결국은 사람에서 찾아야 한다. 그것도 불법영상물을 생산, 유포하는 공급의 차단도 좋지만 사실은 그러한 불법 영상물의 소비를 차단하는 것이 답이다.

과거 마약과의 전쟁이 공급 차단이었지만 실패한 전쟁이 되고 이제야 수요의 차단으로 전술을 바꾼 것처럼 디지털 성범죄의 해결도 공급이 아닌 수요의 차단서 찾아야 한다. 클릭 한번으로 누군가의 삶이 망가짐에도 지금도 불법영상을 클릭하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해결될 수 없다.



기자칼럼

신뢰 깨진 포교전선, 제도 점검 필요

노덕현 취재부 차장

조계종 포교원과 포교단체, 신도단체들이 구축한 포교전선에 금이 가고 있다. 신뢰 관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부설 사단법인 등에 대한 보다 정밀한 관리의 필요성이 높다.

그동안 불교계 많은 단체들은 대외적인 창구로 부설 사단법인을 만들어 활용해왔다. 조계종 포교단체를 보면 불교여성개발원은 사단법인 지혜로운여성을, 불교상담개발원은 자비의전화를, 포교사단은 좋은인연을, 국제포교사회는 문화나눔을 운영하고 있다. 신도단체 대표인 조계종 중앙신도회도 날마다좋은날을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단체들이 사단법인을 부설하는 것은 명확하다. 대외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종단과 포교, 신도단체, 그리고 부설 사단법인이 원만한 관계일 때는 발생하지 않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부설 사단법인 이사장 만의 취임을 강행한 불교여성개발원의 경우만 하더라도 정관상 여성개발원장과 부설사단법인의 이사장에 대한 겸직 조항이 없다. 여성개발원의 지도감독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수장 체제 하에서 사단법인의 독립까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단체들이 정부 위탁 사업 외에도 기부, 후원의 영수처리 등을 위해 사단법인을 활용하는 상황에서 제도상 연결고리 부재는 큰 타격이다. 사단법인 독립시 기본자산이 사라진 불교계 단체들의 존폐 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 불교여성개발원의 경우도 특별지도점검에서 불교여성광장 기금 7억 5000만원을 포함해 교육관 임차대금 등 총 13억 5000만원이 사단법인 지혜로운 여성의 계좌에 있으며, 정작 불교여성개발원 계좌에는 4~5000여 만원 밖에 없는 현실이 드러났다.

다행히 다른 불교 포교신도단체들은 정관상 연관관계를 명시하고 있다. 불교상담개발원은 개발원 정관에 대표 겸직을 명시해놨으며, 포교사단 또한 회칙에 좋은인연 대표 겸직을 명시해놨다. 국제포교사회는 특이하게 국제포교사회와 문화나눔 정관에 모두 겸직을 명시 해놨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날마다좋은날과 겸직 조항 등이 없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관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불교의 사회적 역할은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그 역할에 따라 만들어지고 있는 포교신도단체들의 부설 사단법인은 모기관보다 더욱 큰 확장성을 지닌다. 인큐베이팅 기간이 끝나면 부설 사단법인은 독립성이 커진다.

이런 상황에서 종단과 포교, 신도단체들이 부설 사단법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인큐베이팅 기간 동안의 종단의 적극적인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 포교신도단체 예산 규모에서 각 단체별 3~4000만원에 불과한 종단의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단체들의 입장이다. 포교원뿐만 아니라 종단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포교신도단체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단체와 상위기관의 꼼꼼한 지도점검과 계도가 필요하다. 조계종 포교원의 경우 단체들에 대한 정기지도점검을 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재정적 현황 등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 정관 미비 등 맹점은 미리 점검 · 정비해 놓아야 한다. 법과 제도는 최악의 상황을 감안해 만들어 놓는 규칙이다. 탄탄한 관계 형성 위에 다시금 포교전선에 신뢰의 싹이 움트길 기대한다.

社 說

교과서는 청소년 향한 '대기설법'

오래 전부터 젊은 세대가 불교에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로 꼽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어려움'이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은 우스갯소리로 불교를 '어른들의 종교' 혹은 '할머니의 종교' 등으로 표현하곤 했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김영주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한 중 ·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불교서술을 짚어보는 세미나에서 일선 교사들에 의해 제기된 문제 또한 이 같은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 "불교는 선생님도 어렵다"고 호소할 정도이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는 두말할 것도 없다.

솔직히 불교계는 이 같은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한 적이 없다. 의례의 한글화만 봐도 그 해석을 두고 의견이 아직도 분분하다. 한글반야심경의 '온갖 고통에서 건지느니라'는 '건너느니라'로 바뀌었고, 지금은 이 표현마저도 잘못됐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의 교과서에 기술된 불교서술까지 한글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렇다고 교과서에 담긴 불교용어를 자세하게 풀어쓰기에는 지면의 한계가 분명하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교사들의 이해를 돕는 참고자료를 제작하는 일이다. 이미 교과서에 담긴 불교용어가 몇 가지인지는 연구가 끝난 상황. 불교계는 전문연구자들을 섭외해 가르치기 쉬운 용어해설집을 만들어야 한다.

부처님은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 항상 상대방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진리를 설했다. 대기설법이다.

청소년을 위한 불교의 대기설법은 교과서다. 미래세대 포교에 어려움을 겪는 불교계가 교과서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불광연구원 해산 결정에 부쳐

최근 불광사가 산하 불광연구원의 해산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불광연구원은 광덕 스님의 전법포교에 대한 유지를 이어 그동안 불교계가 하지 못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한국 종교지형의 변화와 불교미래, 초중고역사교과서의 불교서술체제 등에 관한 연찬회는 불교 안팎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사회 흐름을 진단하고 불교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연구단체가 하나 둘씩 동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외롭게 고군분투해왔다.

불광연구원을 운영하는 불광사는 현재 불광사 사태 이후 불사 등으로 인한 채무가 상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로 인해 산하기관을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해산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불광연구원은 불광사 뿐만 아니라 불교계의 큰 자산이라는 점에서 최소한 불교계에 후원 모집이나 조직 이관 등을 타진하는 등의 노력은 기울였어야 했다. 재정상 어려움으로 연구원 운영이 어렵다면 내부 구성원들에게 임금 삭감과 후원 모집 혹은 외부 재정지원 등을 통한 운영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지 않은가.

불광연구원 뿐만 아니라 불광사 산하기관에서 전임교원 해촉 등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에서는 불광사 사태 후 전 회주 스님의 치적 지우기가 아니냐 의혹이 나오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선대의 원력을 이어 받아 수년동안 꾸준한 활동을 펼쳐온 기관은 그 나름대로의 존립 가치가 있다. 진정으로 운영에 대한 원력, 선대의 유지를 계승하겠다는 뜻이 있다면 먼저 대중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함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악령, 귀신 잡는 스님이 있어 화제

憑依(빙의)와 귀신병(鬼神病)

은 자신의 생각 의지 마음과 상관없이 악귀에 조종 당하여 자신과 가정은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끔직한 사건으로 비화되거나 또는 집안이 망신과 수치로 황폐화되고 사회적으로는 각종 사건사고에 연관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본인 또는 가족 중에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있으면 빙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청정 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가정에 사랑과 건강함과 평화가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빙의와 귀신병의 주요 증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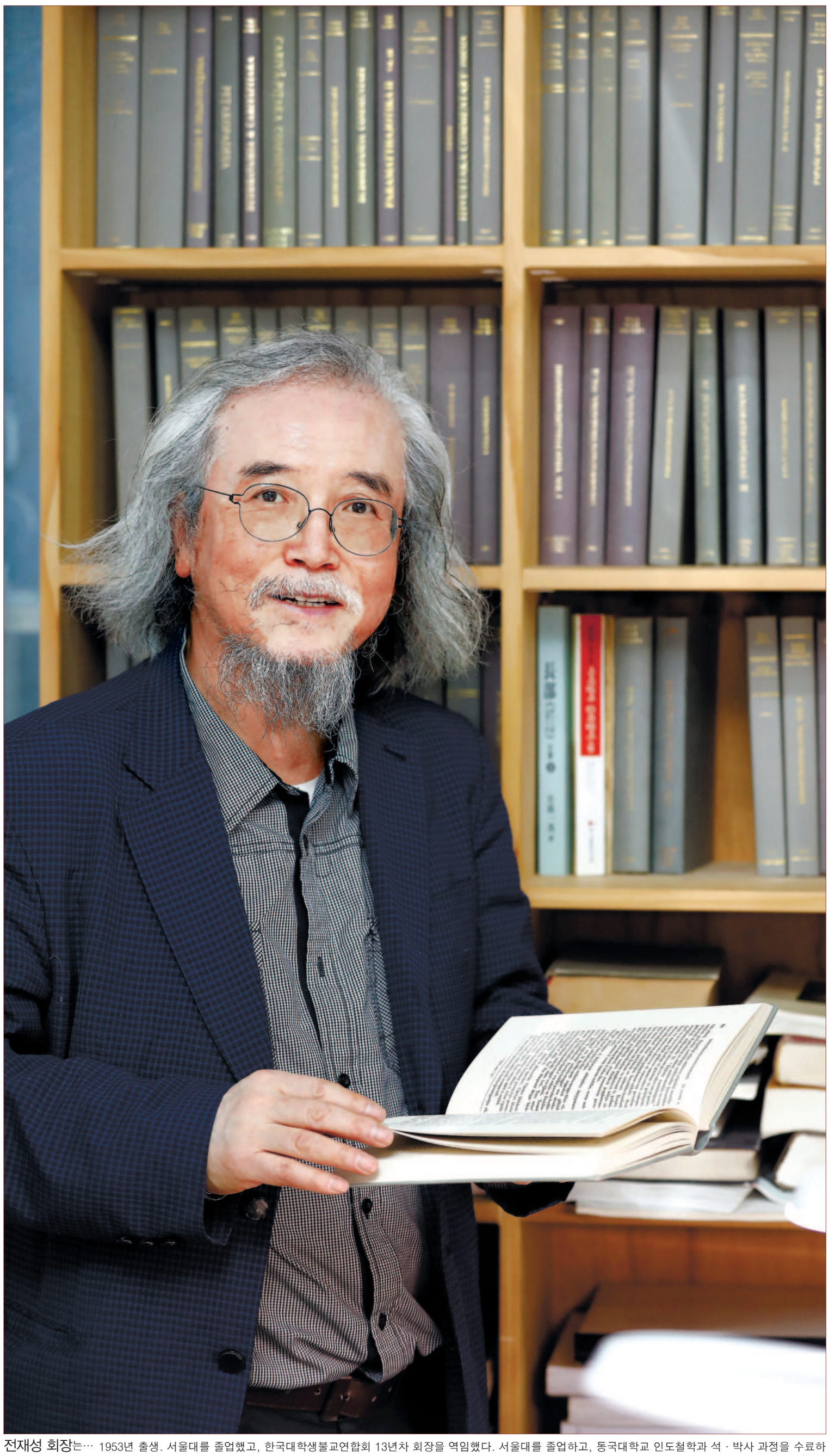
• 혼자 중얼거리고 방에서 누구하고 대화하듯이 씨부렁거린다. • 환청이 들리고 신경이 예민하여 고함을 지르고 발작을 일으킨다. • 공황장애와 과대망상 우울증으로 자살 하고픈 마음이 자주 생긴다. •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깨가 한 짐이 되어 무겁고 양 팔과 다리와 허리가 찢어질 듯이 아프다. •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하는데 항상 머리가 무겁고 아픈 두통이 계속 되고 몸 전체가 몸살 난 것처럼 고통스럽다. • 평상시는 순하고 순한데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상한 사람으로 바뀐다. • 무엇에 홀린 듯이 술을 연속하여 밤새도록 마시거나 또는 줄 담배를 피운다. • 몸속에 귀신이 드나드는 느낌이 들고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잘 나가든 집안이 갑자기 몰락한다. • 술은 마시면 말과 방언이 튀어 나오고 본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않고 평상시와 다른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한다. • 누가 집에 들어와서 음식에 약을 타서 먹지 못하게 한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한다거나 성격이 포악하고 욕을 잘하는 경우. • 돌발적인 행동과 발작을 일으키고 자꾸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거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경우. • 신내림굿을 하였는데 도리어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변했다. • 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신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원상복귀를 원하고 있는 사람. • 돌아가신 조상이 좋지않은 모습으로 꿈속에 자주 나타난다. • 계속하여 악몽을 꾸거나 헛것이 보이고 귀신이 보인다. • 귀신하고 사랑을 한다. • 입산수도 하다 오히려 잡귀에 씌어 고통 당하고 있다. • 신병과 귀신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 집안에 연속하여 대형사건사고가 발생하고 가족 구성원이 아무 이유 없이 줄 상을 당한다. • 종교계통의 일을 하는데 빙의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부처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간 것처럼 행동한다. • 가족 중에 정상적이지 못하고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을 한다. • 불교, 기독교 등 종교와 상관없으며 귀신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결되며 국내와 해외에 거주하여도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가족이 와도 무방합니다.

위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청정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잡귀 마장 사탄 중엄신 조상신등 악마 잡귀의 무거운 짐을 벗어 가정의 건강함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그 어떠한 악령귀신도 불법승으로 단 한번에 제도하여 고통의 무거운 짐을 내려 놓게 하며 심신의 안녕과 찾게 합니다.
다른데서 몇번이나 했는데 안되더라 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반드시 해결되는데 믿지못하고 의심하고 망설이는 것은 또 뭐꼬!!!

卍 대한불교 자비사 예약 상담전화 010-8600-7409 (서울 강남구 대치동 2호선 선릉역 지하철 1번 출구)

초기불교 한글 역경 견인 '21세기 구마라집'



테마人 전재성(66)
한국빠알리성전협회장

글=신성민 기자, 사진= 박재완 기자

초기불교 경전 한글화의 효시
1989년부터 30년간 역경 매진
4부 니까야 · 율장 등 완역 성과
세계 최대 어휘 빠알리어 사전
한국 최초 티베트어 사전 편찬
초기불교 대중적 관심 이끌어

역경 작업은 '성실 · 정확'이 생명
매일 평균 6시간씩 역경에 몰두
현재 역경 · 사전원고 13만매 분량
세계 번역물 섭렵 · 대조 역경 노력
번역 일관성 · 문맥 적용성도 유의
"역경, 자기 마음 탐구하는 작업"

불교가 시작된 곳은 현재의 인도다.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이 펼치신 가르침이 동진(東進)해 중국을 거쳐 한국과 일본까지 전해졌다. 수많은 시간과 지역을 거쳐 불교가 전해지기까지는 경전이라는 매개체가 있기에 가능했다. 이런 불교 경전의 전파는 여러 루트가 있었겠지만, '역경(譯經)'이 함께 해서 이뤄질 수 있었다.

불교 역사를 살펴보면 뛰어난 역경사(譯經師)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 구마라집은 경전 35종 294권을 번역했고, 인도에서 유학했던 현장은 74부 1,335권의 경전을 한역(漢譯)했다.

한국불교에서도 삼국시대에는 원측, 승장 등이 역경사로서 역할을 했고, 조선시대 훈민 창제가 이뤄지면서 우리말을 통한 역경이 이뤄졌다. 근현대기에도 한역 경전을 우리말로 옮기는 작업이 용성 · 운허 스님 등을 통해 진행됐다.

21세기를 넘어오면서 한국불교는 다른 변화를 맞이한다. 초기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초기불교 경전이 우리말로 역경 · 발간되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대중서점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말 초기불교 경전은 한 사람의 원력에서 비롯됐다. 바로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장(66)이다.

초기불교 대중화를 견인하다

기실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불교에서 초기불교의 흔적은 흐릿했다. 동국역경원이 초기불교 경전에 해당하는 한역 〈아함경〉을 한글로 역경했지만 애초 한역 과정의 변형이 있었고 이를 감안해 역경할 학계 역량도 부족했다.

그런 이유로 초기불교는 '소승'이라는 타이틀에 묻혀 한국불교 안에서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다. 이 같은 흐름은 전재성 회장의 역경 불사가 바꿔 놓았다. 1989년 시작된 그의 역경불사는 현대 한국불교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전재성 회장은 1999년 총11권의 〈쌍윳따니까야〉 완역을 시작으로 〈맛지마니까야〉 〈앙굿따라니까야〉 〈디가니까야〉 등 4부 니까야 전체를 우리말로 옮겼다. 또 〈법구경〉 〈우다나〉 〈숫타니파타〉 〈이띠붓따까〉 〈율장대품〉 〈율장소품〉 〈율장 비구계〉 〈율장 비구니계〉 등 역경 결과물들을 세상에 내놨다.

또한 그가 편찬한 〈빠알리어 사전〉과 〈티베트어 사전〉은 한국에서 최초로 발간된 빠알리어와 티베트어 사전이다.

올해에도 11월에는 〈청정도론〉을, 7월에는 〈앙굿따라니까야 전서〉를 발간하며 역경 불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역경의 결과물은 모두 전재성 회장의 노력에서 비롯된다. 역경 불사를 시작한지 30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그는 아침 5시에 기상해 사무실로 출근한 후 평균 6시간 정도 역경에 매진한다. 하지만, 번역량에는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는다고 했다.

"하루 번역량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정신이 맑아지면 많은 양을 번역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하루가 그냥 흘러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보통은 다른 일보다는 경전 번역하는 과정이 저에게는 자신의 마음을 탐구하는 일이고 거기서 희열을 느끼기 때문에 하루도 빠짐없이 번역에 매진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전재성 회장의 부지런함은 그간의 역경서의 원고 분량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에 따르면 200자 원고지 분량으로 〈쌍윳따니까야〉는 3만 4000매, 〈앙굿따라니까야〉는 2만 6,000매, 〈맛지마니까야〉는 1만 3,000매, 〈디가니까야〉는 1만 1,000매, 〈쿳다까니까야〉는 3만 1,000매, 〈빠알리어사전〉은 1만 7,000매에 달한다.

그간의 저작물들을 모두 합치면 총 13만매 가량의 원고를 썼다. 일반교양서가 200자 원고지 1,000매 정도임을 감안하면 약 130권 가량의 분량이다.

이 같은 전재성 회장의 역경이 갖는 의미는 대부분의 역경물이 '복원번역'을 통해 이뤄진 점이다.

"대부분 빠알리본 자체가 정형구의 생략본이기 때문에, 현행 영문번역본도 대부분 생략본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상용화된 이후에는 빠알리본도 복원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한 것은 대부분 복원번역한 것입니다. 따라서 복원번역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원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불교에서의 법률체계를 다루고 있는 율장의 완전복원입니다. 율장은 계율변수가 워낙 많아 완전복원은 불가능하고 대체적으로 '완전복원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율장의 마지막 한권인 율장부수를 지금 번역하고 있는데, 그 방대함과 논리적 정교함 때문에 완전복원 자체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해석학적 원칙에 입각한 생략본을 부분적으로 해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역경서 중요한 것은 '성실성'

이내 역경 작업에서 가장 유의하고 있는 점이 궁금해졌다. 전재성 회장은 번역의 일관성과 문맥상 적용성이라고 했다.

"번역의 일관성과 문맥상 적용, 두 가지가 항상 번역과정에서 충돌합니다. 여기서 적절한 중립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담마 또는 다르마는 한역에서는 '법'이라는 일관성을 가지고 번역하지만, 그렇게 되면 문장이 너무 형이상학화되고 난해해집니다. 문맥상으로 적용성을 가지고 때로는 '진리' 때로는 '원리' 때로는 '사실' 때로는 단순히 '것'이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또한 성실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실제 그는 경전 번역에 있어서 전 세계 역경의 결과물들을 참조한다.

"초기 경전을 역경할 때에는 빠알리 원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번역본들을 함께 참조합니다. 한 가지 번역본을 우리말로 옮기면 오류가 많을 수 밖에 없죠. 한역 경전 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 백화문이나 일본 번역도 연구하고 티베트어, 산스크리트어본을 함께 봐야 제대로 된 역경이 이뤄집니다. 바른 번역은 성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B2면에 계속

전재성 회장는… 1953년 출생. 서울대를 졸업했고,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13년차 회장을 역임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석 ·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독일 본대학에서 인도학, 티베트학을 연구했다. 독일 본대학과 쾰른 동아시아 박물관 강사, 동국대 강사, 중앙승가대 교수, 경전연구소 상임연구원, 한국불교대학(스리랑카 빠알리불교대학 분교) 교수, 충남대 강사, 가산불교문화원 객원교수를 역임했고, 현재 한국빠알리성전협회 대표를 맡고 있다. 1999년 총11권의 〈쌍윳따니까야〉 완역을 시작으로 〈맛지마니까야〉 · 〈앙굿따라니까야〉 · 〈디가니까야〉 등 4부 니까야 전체를 우리말로 옮겼다. 또한 〈법구경〉 · 〈우다나〉 · 〈숫타니파타〉 · 〈이띠붓따까〉 · 〈율장대품〉 · 〈율장소품〉 · 〈율장 비구계〉 · 〈율장비구니계〉 등 역경 결과물들을 세상에 내놨으며, 〈빠알리어 사전〉 · 〈티베트어 사전〉을 한국 최초로 편찬하기도 했다.

INSIDE

B3 윤창화의 중국 선원 생활과 철학 만행과 운수 행각
B5 문화 영화 '선종 무문관' 개봉
B6 학술 랭카스터 교수 '대고려 전' 특별 강연

“초기는 나무·대승은 꽃… 佛法 구조 알아야”

‘전재성 회장’

B1면에서 계속



전재성 회장은 초기불교 경전 역경불사의 원력을 높게 평가받아 2001년 조계종 포교대상 원력상을 수상했다.



광주 광륵사에서 열린 한국빠알리성전협회 발족식 모습.


평생 스승인 페터 노이야르 선생과 함께 찍은 사진.

‘민중불교’ 주창 그리고 고난

한국불교 지형을 바꿔놓은 역경불사 원력을 세우기까지 전재성 회장은 굽이진 고갯길을 넘고 넘어왔다. 그 인생의 고갯길은 한국사의 아픔과 궤를 같이한다.

전재성 회장의 부모님은 한국전쟁 1.4후퇴 당시 원산에서 월남해 부산에서 정착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재성 회장이 태어났다. 4살 때에 전신 화상을 입었고, 그로 인한 트라우마로 사춘기 시절 많은 고민과 방황을 했다. 그런 방황 속에서 만난 것이 불교다.

“중학교 시절 생물을 가르쳤던 유응렬 선생님이 참선 지도를 했는데, 선생님께 참선을 배웠죠. 사춘기 때의 방황 속에서 잠시 고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대학에서 불교학생회 활동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1972년 서울대 농화학과에 입학한 전재성 회장은 서울대 농대불교학생회(농불회)를 창립해 회장을 했고,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무부장과 13년차 회장을 역임하게 된다.

유신독재의 엄혹한 시절, 당시 대학생이 그러했듯이 전재성 회장도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었다. 1976년 완주 송광사에서 열린 1600년 대회에서 처음으로 ‘민중불교를 위한 소론’을 발표한 그는 이를 보완해 1977년 월간 〈대화〉에 ‘민중불교론’을 게재하게 된다.

양극화돼 가는 이데올로기 속에서 고통 받는 민중들의 삶을 자각하고, 민중불교운동의 필요성을 불교사적으로 고찰한 이 소고는 후일 1980년대 법난 이후 민중불교운동의 이론적 토대가 됐지만, 전재성 회장에게는 고난의 요인이 됐다. 시국사건들에 휘말리면서 여러 차례 구금됐던 전재성 회장의 몸과 정신은 피폐해져 갔다.

“우선 건강이 매우 안 좋았어요. 폐결핵과 늑막염을 앓았죠. ‘민중불교론’ 집필 이후에는 서울대나 동국대에서 데모를 한다는 소문이 돌면 사전에 구금될 정도였습니다.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스승 ‘거지성자’를 만나다

몸과 마음이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진 극한의 상황. 그를 삶이라는 공간에 붙잡아 놓을 수 있던 중력은 수행이었다. 우연하게 만난 한 시인이 건넨 빠라마항사 요가난다의 영문 저서를 접하고 인도의 정통 수행원리를 알게 됐고, 이를 바탕으로 수행을 했다. 삶과 죽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던 어느 날 안양천변에서 영적 체험을 하고 삶의 전환을 맞이한다. 공부를 이어가겠다는 결심을 한 전재성 회장은 동국대 대학원에 입학해 인도철학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불가능할 것 같았던 독일 유학길에 올랐다. 독일 유학에서 전재성 회장은 자신의 평생 스승을 만나게 된다. 바로 ‘거지성자’ 페터 노이야르다.

“독일 유학을 가자마자 호숫가를 배회하다가 만난 사람이 페터 노이야르였습니다. 당시에 다른 사람에게는 누더기 옷을 입고 나무 밑에서 잠을 자는 노숙자였지만, 저에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삶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성자였습니다. 라인 강변의 긴 산책로에서 벤치에 앉아 누더기를 기우며 들려준 초기경전의 구절들은 부처님이 살아계신 듯, 정말 감동적인 것이었습니다. 감동스러웠던 경험을 모아서 쓴 것이 1999년 발간한 〈거지성자〉입니다.”

페터 노이야르 선생의 영향으로 초기불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전재성 회장은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1989년 한국으로 돌아왔다. 돌아갈 때에도 페터 노이야르 선생은 그에게 초기불교 경전을 번역을 권하기도 했다.

그렇게 돌아온 한국에서 그는 빠알리대장경 〈쌍윳따니까야〉를 번역하기 시작했다. 지인의 소개로 돈연 스님의 경전연구소에 들어간 전재성 회장은 〈빠알리어 사전〉과 〈범어문법학〉 집필에도 박차를 가했다. 하지만 호사다마(好事多魔)라고 했던가. 2년 후 어느 날, 연구소는 원인모를 화재로 전소가 된다. 그가 입은 가장 큰 손해는 영국 빠알리성전협회에서 수입한 빠알리대장경과 독일에서 가져온 많은 불교문헌, 일본에서 수입한 대장경들이 모두 불에 탄 것이다.

“그 때만해도 컴퓨터가 없어서 원고지에 육필로 번역을 했습니다. 불은 이른 새벽에 났고, 아침에 도착했더니 건물이 전소돼 있더군요. 화재현장을 둘러보다가 한 곳을 파보니 제가 번역하고 있던 〈쌍윳따니까야〉 첫3권이 일부만 불타고 남아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처님 가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원고뭉치를 가슴에 꼭 품고 집으로 돌아왔죠.”

민중불교론 제시, 고난의 청년기
화상 트라우마로 학창 시절 어려움
중학교 은사에게 참선 배우며 극복
서울대 농대 입학 후 ‘農佛會’ 창립
1977년 〈대화〉에 ‘민중불교론’ 게재
80년대 민중불교운동 이론적 토대

독일유학기 평생 스승을 만나다
수차례 수감으로 몸 · 정신 피폐해져
수행하며 ‘영적체험’하고 獨 유학길
유학 시절 페터 노이야르 만나면서
초기불교 관심… 역경불사 원력 세워
1999년 저서 〈거지성자〉 출판하기도

화재로 인해 경전연구소는 문을 닫게 됐지만, 전재성 회장은 1992년 스리랑카 빠알리 불교대학 한국분교 전임 교수로 부임했다. 이것도 잠시였다. 1997년 IMF 여파로 학교는 폐교됐기 때문이다.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밖에 없었다. 전재성 회장은 1997년 故 고익진 교수가 주석하던 광주 광륵사로 내려가 한국빠알리성전협회를 설립하고 다시 초기경전 번역에 매진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다. 경전연구소 시절 자신이 번역한 원고를 책으로 내려고 해도 출판비가 없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도법 스님을 만났는데, ‘왜 책을 번역해 놓고 10년이 지나도록 내지 않느냐’고 물었다. 솔직하게 ‘출판비가 없다’고 답했고, 그 이후 도법 스님은 뜻 있는 스님들과 함께 제작비를 그에게 지원해줬다. 그렇게 역사적인 〈쌍윳따니까야〉 발간 불사가 시작됐고, 2002년 전 11권으로 완간할 수 있게 됐다.

왜 초기불교인가

2000년대 들어 한국불교에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다. 초기불교를 알고자 하는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초기불교 수행부터 경전까지 그 수요가 높아지면서 초기 경전 번역도 활발히 이뤄졌다. 그 포문을 연 것이 전재성 회장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왜 21세기 대중들은 초기불교를 공부하기 시작했을까. 이를 전재성 회장은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식’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역사적으로 시대변화에 대처한 불교가 새로운 시대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때에는 본래의 뿌리로 돌아가 다시 사유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파불교도 생겨났고, 대승불교도 생겨났죠. 대승불교 안에서 경전들도 시대가 지나면, 그러한 방식으로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초기불교가 건강한 나무라면, 대승불교는 그 나무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초기불교 경전이 사유구조를 이해하는 데 용이하고 배운 즉시 효과가 있는 가르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기불교 경전을 통해 대중들이 부처님께서 설한 가르침의 정확한 개념적 구조를 알아가길 바랐다.

“불교를 오래 공부한 사람도 물어보면 기초적인 개념의 구조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생활세계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우선 자애(慈)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행복하길’ 하는 마음이고, 연민(悲)이라는 것은 동정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길’ 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중들에게 권하고 싶은 초기 경전의 경구를 추천해달라고 했다. 곧바로 두 가지 경구들이 흘러나왔다.

모든 죄악을 짓지 않고
모든 착하고 건전한 것들을 성취하고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모든 깨달은 님들의 가르침이다.
(Dhp. 183)

어머니가 하나뿐인 아들을
목숨 바쳐 구하듯
이와 같이 모든 님들을 위하여
자애로운, 한량없는 마음 닦게 하여지이다.
(Stn. 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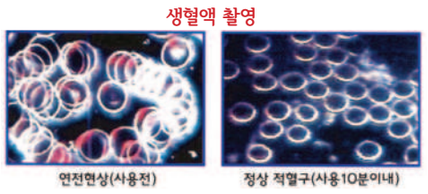
〈법구경〉과 〈숫타니파타〉의 저 경구. “전자는 율장 · 경장 · 논장의 구조를, 후자는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은 한량이 없음을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부처님 말씀을 쉽게 한글화하는 것”이 목표라는 전재성 회장. 그는 오늘도 경전의 바다 속에서 부처님 원음을 찾아 우리에게 전달하는 작업을 한다. 그의 역경 불사는 현재진행형이다.

에이스 삼강 : 혈액건강 세포건강 구강건강

BLOOD MATE® 비누 한번으로 혈액건강·세포건강. ORAL MATE® 치약으로 양치후 뱉지 않고 삼켜서 구강건강.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피가 맑아져서 혈액 순환이 정상화되고 뇌파가 안정되어 정신이 맑아진다면 혈액순환 장애로 일어나는 모든 질환과 뇌파의 불안정에 의한 정신이상을 사전에 예방할것입니다.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뇌파 측정 촬영


알파파 (8-14HZ) 명상 같은 편안한 상태에서 나타나며 스트레스 해소 및 집중력 향상에 도움 근육이 이완되고 마음이 편안하면서도 의식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

BLOOD MATE®
항균 93% 탈취 80% 음이온 146cc 원적외선 방사 98.7%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된 제품입니다.
효과 : 어깨결림, 허리통증 등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들을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약사법 등) 부득이 체험(사용)에 의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 뇌파가 정돈, 안정되어 정신이 맑아진다.

탈모예방 발모촉진 검 버 섯 제거현상

사용전 사용6개월 후 사용전 사용6개월 후

BLOOD MATE®
CS137(세슘)방사능 제거용
효과 : 7년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복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최초로 개발된, 일본정부의 예산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항균 93%가 아토피,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80% 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지구상의 전 인류는 양치 후 뱉어내고 입을 물로 헹궜으나, ORAL MATE® 치약을 개발한 41년생 남자 본인은 양치 후 뱉어내지 않고 4년여 동안 보약 먹는 기분으로 먹고 있는 체험담을 공개합니다

① ORAL MATE®로 양치후 뱉지않고 삼키면 구강 건강(치주염, 잇몸에 피, 시린이, 구취, 구내염, 흔들림, 치아솟음 등 모든 잇몸질환)은 기본이고 93%의 항균력과 80%의 탈취력이 위와 장을 청소하므로 배탈, 설사, 변비 한번 없었고 속이 거북할 때나 과음시에는 소화제나 술 깨는 약을 먹은 것보다 빨리 속이 편안해지고 정신이 맑아지며 구취가 나지않고, 변이나 방귀에서 냄새가 거의 나지 않으며, 꾸르륵 꾸르륵하는 장운동 소리가 자주나면서 속이 편안해진다.

② ORAL MATE®로 양치 후 뱉지않고 먹었는데 30년 묵은 치질, 혈변이 사라졌다!!
ORAL MATE®를 사용후 4년여동안 감기몸살로 쉰 적도 앓은적도 없으며, 80년대 말부터 치질로 매운음식, 자극성음식만 먹었다하면 그 다음날 틀림없이 혈변이 나와 음식을 조심해왔으며, 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사용해도 사용할 때 뿐이고, 혈변이 계속 되었는데 근래에 와서 매운음식, 자극성음식을 먹어도 혈변이 없어, 일부러 맵고 자극성음식을 먹어보는데도 혈변이 없음을 체험했습니다. 수십년간 고통을 주던 치질이 근본적으로 없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체험담을 공개합니다.
■ 유효기간은 행정규약일 뿐 화학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ORAL MATE®는 원료가 숙성되어 효과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구강은 건강하게 치아는 튼튼하게
ORAL MATE®
항균 93% 탈취 80% 음이온 146cc 원적외선 방사 89.7%
GERMANIUM & SELENIUM

ORAL MATE® 기능 효과 93%의 항균력, 80%의 탈취력
◆ 음이온과 온열을 피부 속 깊이 전달하여 ▶ 매끄럽고탄력있는잇몸 유지
◆ 음이온과 원적외선 상호 작용으로 피부 노폐물 방출로 ▶ 구강 건강 유지
◆ 세포를 활성화 시키고 면역을 증강 시킨다. ▶ 잇몸 질환 예방
◆ 수중에서 다량의 용존산소를 발산하며 물분자를 활성화하여 ▶ 청결한 구강
◆ 각종균의 정균 작용과 살균,악취 제거 탁월. ▶ 충치예방과 입냄새 제거
◆ 잇몸에 붙어 있는 각종 중금속, 유기물질, 독성물질 등을 흡착/분해한다. ▶ 깨끗한 치아
◆ 체감 온도를 5°C 이상 향상시키며 제반 독소 효과적 제거

위의 내용 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주)에이스 삼강 ☎ 02)353-9692 / 010-2791-3696

두루천하 선지식 찾아 문법의 길 떠나다

〈問法〉



윤창화의
중국 선원 생활과 철학

㉓ 만행과 운수 행각



해제를 하면 납자들은 너도나도 걸망을 지고 정처 없는 여정(旅程)에 오른다. 수행의 여정, 공(空)의 여정이고 무집착의 여정이다.

선종 사원에는 1년에 두 번 해제(解制)가 있다. '재계(齋戒)를 풀다.' 즉 3개월 금족의 규제를 풀고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시간이기도 하다.

해제를 하면 납자들은 너도나도 걸망을 지고 정처 없는 여정(旅程)에 오른다. 수행의 여정, 공(空)의 여정이고 무집착의 여정이다. 그것을 '만행(萬行)' '행각(行脚)' '운수행각(雲水行脚)'이라고 한다. 인도에서는 '유행(遊行)'이라고 한다.

선승들의 오도기연(悟道機緣)을 보면 적지 않은 선승들이 만행하면서 법을 묻다가 깨달았다. 따라서 만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고, 법을 묻기 위한 수행의 행각이다. 곧 절차탁마이다.

만행, 행각은 해제 날부터 시작된다. 해제 날에 행해지는 해제의식에서 하이라이트는 주지(방장)의 해제 법어이다. 이것을 정점으로 90일간의 안거는 종료된다. 이어 점심공양이 끝나면 주지(방장), 감원 · 수좌 · 유나 등 총림의 중요 소임자들은 떠나는 대중을 위하여 차(茶) 공양을 낸다. 차공양이 끝나면 소임자와 문도 등 일부만 남고 모두 행각 길에 오른다.

오늘날 만행은 여행의 하나지만, 당송시대 행각(만행)은 곧 행각 청익(行脚請益, 법을 묻는 행각)이고, 참선 문법(參禪問法)의 하나였다. 두루 천하의 선지식들을 역참(歷參), 편력(遍歷)하면서 법을 묻는 것이 당송시대 행각의 본래적 의미이다.

불교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구법 행각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화엄경〉 입법계품(入法界品)에 나오는 선재동자의 행각이다. 부사의한 사사무애의 법계로 들어가기 위하여 선재동자는 53명의 선지식을 편력(遍歷) · 참방한다. 지난한 여정(旅程) 속에서 갖가지 역경을 극복하고 마침내 미륵보살을 만나 일탄지경(一彈之頃)에 깨달음을 이룬다. 그렇게 긴 여정은 마무리 된다.

납자들의 행각도 이와 같다. 유명한 선지식을 만나 가르침을 받는 것, 바둑판(法談의 바둑판)을 펼쳐 놓고 고수로부터 한 수(一着子)를 배우는 것, 즉 절차탁마하는 것이 행각의 본래 의미이다. 선어록에는 종종 '짚신 값을 낭비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헛된 행각은 하지 말라는 뜻이다. 즉 안거 동안 공부한 것을 점검 · 테스트해 보고 탁마하기 위한 것이지 여행을 위한 행각은 아니라는 것이다.

행각의 의의에 대하여 〈조정사원(祖庭事苑)〉 8권 '잡지(雜志)'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행각(行脚)이란 고향(본사)을 떠나 멀리 천하를 편력하는 것을 말한다. 정루(情累, 정과 속박)로부터 벗어나 스승과 벗[師友]을 탐방하며, 법을 구하고 증오(證悟)를 이루기 위해서이다. 배움에는 일정한 스승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편력(遍歷) 행각을 귀중하게 여긴다. 선재동자는 남쪽으로 가서 법을 구하였고, 상제(常啼, 常啼菩薩)는 동쪽으로 가서 청익(請益, 가르침을 청하는 것)했으니, 이것이 곧 선성(先聖)의 구법 방법이다. 영가(永嘉) 선사가 말하기를 강산을 다니고 스승을 찾아서 도를 묻고 참선한다 하였으니,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한 곳에 오래 머물면 산천(山川)과 도량, 그리고 인간에 정(情)이 들게 된다. 그러나 납자에게 정은 금물이다. 행각을 통해서 정(情)과 애착, 집착 등 속진으로부터 벗어나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해야 한다.

2. 행각안(行脚眼)

선어 가운데 '행각안(行脚眼)'이라는 말이 있다. '행각을 통해 얻어진 안목'이라는 뜻인데, 곧 남다른 안목, 탁월한 지견(知見)을 가리킨다. 천하를 행각하면서 수많은 선승들과 일전(一戰)을 통해 터득한 안목이므로[行脚眼] 그 기략(機略)은 전광, 석화와 같고, 그 안목은 사방으로 막힘없는 통방작가(通方作家)라고 할 수 있다.

당 중기의 선승 약산유엄(藥山惟儼 · 745~828)은 행각을 매우 중시했다. 그래서 그는 "반드시 행각안(行脚眼)을 갖추어야 한다(須具行脚眼始得, 〈전등록〉 14권 약산유엄 章)"고 했는데, 행각하면서 많은 이들과 문답해 보아야만 지견과 안목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혼자 암자(庵子)에서 닦은 '독살이 안목' 가지고는 한 산문의 종장(宗匠)이 될 수가 없다. 임제 같은 고수를 만나면 얼굴이 빨개질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실전에서 얻어진 안목이라야 힘이 있다. 우물 안 개구리가 아무리 헤엄을 잘 친들 1미터 이내이다.

경청 화상도 행각을 중시했다. "무릇 행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줄탁동시의 안목과 줄탁동시의 기용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납승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여, 안목을 갖추고 행각하지 않으면 소득이 없다고 말하였다.

만행길에서 법 묻다가 깨달아
운수행각은 여행아닌 '보임'

향림 화상도 시중법문에서 "무릇 행각하여 선지식을 찾아다닐 때는 안목을 갖추어서 흑백을 구분하고 심천(深淺)을 간파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는데, 역시 안목이 없는 상태에서 행각하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최소한의 안목은 갖추고 나서 행각해야만 절차탁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벽암록〉 31칙 마곡진석(麻谷振錫) 평창에서 원오극근은 "고인이 행각할 때는 여러 총림(선종 사원)을 두루 다니면서 오직 이 일만을 생각했다. 저 목상(木床, 법상) 위의 노화상이 과연 안목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古人行腳, 遍歷叢林, 直以此事為念, 要辨他曲錄木床上老和尚, 具眼不具眼)"라고 말하고 있다.

조주 선사(778~879)는 120세를 살았다. 그는 이미 깨달았지만 60세에 다시 행각의 길에 올라 80세 때까지 행각했다. 일곱 살 아이라도 나보다 안목이 뛰어나면 배우고, 100살 노인이라도 나보다 못하면 가르치겠다는 서원(誓願)으로 행각했다고 한다.

조주 선사를 일컬어 '천하 조주' '조주 고불(古佛)' '구순괴선(口脣皮禪, 막힘없이 禪理를 설파)'이라고 하는 것은 행각을 통해서 얻은 행각안(行脚眼) 때문이었다.

선어록에는 '갱참삼십년(更參三十年)'이라는 말이 종종 나온다. '30년을 더 참구해야 한다'는 뜻인데, 여기서 30년이란 선승으로서 수행해야할 기본적인 세월이다. 적어도 선승이라면 30년 정도는 공부, 행각해야만 정법의 안목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고, 또 그래야만 방장의 자리에 올라가서 납자들을 지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운수행각(만행)이 곧 보임이고, 일사일지(一事一知), 일기일회(一機一會)가 경험적 지혜라고 할 수 있다.

대승기신론에는 상사각(相似覺)이 있다. '깨달음 비슷한 것'을 말하는데, 적지 않은 수행자들이 상사각, 사이비각(似而非覺)을 가지고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또 환영 등 조금 이상한 경계를 맛보면 거기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 행각을 통하여 절차탁마하지 않으면 지견 없는 암선(暗禪), 부딪치면 깨지는 유리병자선(琉璃甁子禪) 신세를 면치 못한다.

송대를 대표하는 선승 대혜종고(大慧宗杲 · 1089~1163)는 17세에 입산했는데, 30여 년만인 49세 때 처음으로 항주 경산사(徑山寺) 방장(주지)이 되어 개당설법(開堂說法)했다.

3. 객승의 여비(旅費)는 짚신 2~3결례 값

총림에서는 행각(만행)하는 납자(객승)들에게 약간의 노자(路資 · 여비)를 준다. 액수는 보통 짚신 2~3켤레 값 정도로 오늘날로 치면 고무신 2~3켤레 값이다. 그것을 총림에서는 '초혜전(草鞋錢 · 짚신 값)'이라고 하는데, 짚신 두 세 켤레면 다른 절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선원이든 객승이 오면 통상적으로 짚신 두세 켤레 값만 준다.

초혜전과 관련하여 〈임제록〉 13~24단에는 의미심장한 법문이 나온다. 임제 선사는 "천하를 행각하면서 허송세월한다면 행각할 때 여기저기서 받았던 짚신 값을 내 놓으라"고 다그친다.

"여러분! 참으로 불법의 대의를 체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오. 불법은 매우 심오하지만 알 수는 있소. 산승은 종일토록 그대들을 위하여 설파해 주지만, 학인들(수행자)은 관심이 없소. 천 번 만 번 밟고 다니면서도 도무지 깜깜하오. 아무런 형체도 없지만 분명하고 뚜렷한 이것을 학인들은 믿지 못하고 언어문자(사량분별) 위에서 이해하려 하오. 나이가 50이 넘도록 단지 송장을 짊어지고 여기 저기 천하를 쏘다니고 있소. 반드시 '짚신 값을 갚아야 할 날이 오게 될 것이오."

임제 선사의 준엄한 일갈(一喝)이다. 진정으로 수행하지 않고 빈둥빈둥 제방(諸方)을 다니면서 시간을 죽인다면 그는 짚신 값만이 아니고, 무노동으로 공양한 밥값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수행하는 납자들은 깊이 새겨야할 법문이다.

초혜전(草鞋錢)을 '양문전(兩文錢)'이라고도 한다. '동전 두 닢'이라는 뜻인데, 근래 우리나라 선원의 해제비와 비교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운수행각을 한답시고 신발이나 떨구는 납자를 칭하여 '백답승(白踏僧)'이라고 한다. 백답(白踏)은 '헛된 걸음'을 뜻하는데, 오도(悟道)에는 별로 생각이 없는 납자를 가리킨다. 여행이나 할 뿐, 구도행각은 아니기 때문이다. 반대로 야반승(野盤僧)은 산이나 들녘에서 노숙하는 납자로, 진정으로 운수행각하는 납자를 가리킨다.

4. 객승의 예의범절

행각승(객승)의 예의범절에 대하여 〈선원청규〉 1권 '단과(旦過)'에는 "산문에 들어서면 먼저 단과료(旦過寮, 客室)의 소재를 묻되, 단과료에 들어가면 짐을 풀어 놓은 다음 위의(威儀)를 갖추어 지객료(知客寮)에 가서, '잠도(暫到, 객승) 상간(相看, 문안)이오'라고 말하라. 지객스님이 나오면 3배하고 나서 하루저녁 묵고 갈 것인지, 괘탑(입방)하러 온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생략)"고 말하고 있다.

하룻밤 묵고 가는 객승(客僧, 행각승)은 '잠도(暫到, 잠시 온 스님)'라고 하고, 새로 입방하고자 온 객승은 '신도(新到, 새로 온 스님)'라고 한다.

그리고 객실(客室)을 '단과료'라고 부른다. '단과료(旦過寮)'란 '하루 묵고 가는 집'이라는 뜻인데, 원래는 저녁에 와서 아침이 되면 가야했기 때문이다. 청규에는 "신도(新到)든 잠도(暫到)든 객승은 단과료에서 3일 이상 묵을 수 없다. 괘탑(입방)하고자 하는 이는 괘탑하고, 잠도는 3일이 되면 다른 절로 가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운수 행각을 할 때는 반드시 도첩(度牒), 계첩(수계첩), 면정유(免丁由), 좌하유(坐夏由)를 꼭 휴대해야 한다. 도첩은 국가에서 발행하는 승려증이고, 계첩은 수계증명서이고, 면정유는 병역 및 노역면제증이고, 좌하유(坐夏由)는 전년도 하안거 증명서이다. 이 네 가지가 없으면 다른 총림에 가서 괘탑(掛塔, 입방)을 할 수 없다.

그 밖에도 운수행각하는 스님은 삼의일발은 물론이고, 산립(山笠, 삿갓) · 주장자(柱杖子) · 계도(戒刀, 작은 칼), 발낭(鉢囊) · 양지(楊枝, 버드나무를 이겨서 만든 칫솔. 齒木이라고도 함) · 조두(澡豆, 세정제로서 녹두 등 콩으로 만든 가루 비누) · 정병(淨甁, 물병) · 좌구(坐具, 앉거나 누울 때 까는 깔개) · 여수낭(濾水囊, 물을 거르는 주머니. 여수라濾水羅, 녹수낭漉水囊이라고도 함) 등 20여 종은 필수적으로 가지고 다녀야 한다.

〈민족사 대표〉





1962년 1월 22일, 불교재건위원회 구성에 앞서 문교부에 모인 비구와 대처 양측 대표들(사진 맨 왼쪽이 청담 스님, 왼쪽서 세 번째가 경산 스님)



'부처님 오신날 공휴일 제정'을 기념하는 행사(사진 왼쪽서 두 번 째가 경산 스님)



1963년, 동국대 이사장 취임 후 남산 팔각정에서(왼쪽부터 상좌인 현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 가운데 경산 큰 스님)

"교단의 생명은 계율 살아 있을 때만 가능"



경산 스님의 삶과 가르침

박원자 지음/동국대출판부 펴냄/1만 8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청정 수좌의 표상' '정화불사(淨化佛事)의 기수' '무처무시선(無處無時禪)의 수행자'

이는 모두 학월 경산(鶴月 京山)(1917~1979) 대종사의 수행 이력을 담은 수식어이다. 또한 스님의 63년 일생을 오늘날 후학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회고한다.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고 전쟁으로 인해 허기지고 혼란한 이 땅에 불교가 중흥하기를 발원했던 수행자" "선 · 교 · 율의 정립이 수행 근간이자 교단 화합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임을 믿고, 그 실천을 위해 종단을 떠나지 않았던 선지식" "종단이 비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할 때마다 불려 나와 화합으로 종단을 일으켜 왔던 원력보살, 경산 스님" "한평생 종단과 교단을 선방으로 삼고 화합을 화두로 삼아 정진한 청정 비구" 등등. 이판과 사판을 아우르는 완벽한 이력의 수행자라 평가 받고 있는 경산 스님.

이런 경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이 3년전 부터 문도들과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은 끝에 이번에 출간한 〈청정 율사, 경산 스님의 삶과 가르침〉은 평생 불교 중흥의 원력을 실천하고 정화 불사의 완성과 종단 화합의 성취를 위해 앞장서며, 묵묵히 수행자의 길을 걸은 경산 스님의 일대기를 조망한 책이다.

자광 스님은 "스승인 경산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을 세 차례 역임하는 등 종단 핵심에 있었지만, 끝내 교구 본사를 자신의 문중 절로 만들지 않았다. 제자들이 스님께서 노년에 머무실 만한 교구본사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 문도들 역시 교구본사가 있어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건의하자, 출가자의 본분은 수행하는 것이지, 큰 절을 차지하는데 있지 않다며 오히려 나무랐다고 회고했다. 자광 스님은 "그래서 경산 스님 제자들은 거점 사찰이 없어 뿔뿔이 헤어졌다. 문도회 구성도 안돼 있다. 하지만 공과 사를 구분하는 스승의 본심을 알기에 제자들은 서운해 하지 않고 오히려 존경 스러워 한다. 작금의 시대에 이 가르침을 우리 한국불교는 가슴에 새겨야 한다. 책을 출간한 가장 큰 목적"이라고 밝힌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 3대와 9대 총무원장, 동국대 이사장 역임

동국대 역경원 개설, 종비생 및 군승제도 확립 등 큰 치적

1975년 불교계 숙원인 '부처님오신날' 공휴일 제정에 큰 공헌

"출가자 본분은 수행이지, 큰 절 차지하는 것 아니다" 강조

책은 크게 4장으로 구성돼 있다. 제 1장 〈출가와 수행〉은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나라를 빼앗긴 환경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불교에서 그 출구를 발견하고 출가를 결심한 후 제방의 내로라 하는 선지식들을 모시고 정진한 내용을 담았다. 2장 〈한국불교의 정화불사 현장〉은 '정화불사'라는 시대적 과제를 접하자, 그 험난한 파도에 온몸을 던져 총무원장과 동국대 이사장 · 종회의장 등의 행정 수반으로서 종단 발전을 위해 일로매진한 시기의 이야기다. 제 3장 〈무문관 수행〉은 총무원장직서 물러나 천축사 무문관서 4년간 정진한 후 회향하기까지의 내용을 전한다. 마지막 제 4장 〈종단의 화합과 포교불사〉는 무문관 회향 후 다시 총무원장으로 복귀해 정화의 완성과 종단의 안정을 발원한 현장서 떠나지 못하고 있다가 입적하기까지를 조명했다.

책 속에는 경산 스님이 수행자로서의 풍모를 느낄 수 있는 대목도 대거 수록돼 있다. "상대방이 아무리 큰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용서할 줄 알아야 그릇이 큰 사람이 된다. 다른 사람을 쓸데 없이 비난 말고 자비의 눈을 갖고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에 힘쓰라"고 틈만 나면 후학들에게 강조했다.

이 책은 한마디로 한평생을 청정 비구, 율사, 선사이며, 정화불사에 헌신해 한국불교 정화의 기수 역할을 했고, 오늘날 대한불교조계종이라는 큰 강물의 발원지에 서 계신 경산 스님의 삶과 가르침을 담고 있다. 더구나, 여러 선지식의 책들을 기획 · 정리해 엮은 박원자 작가가 경산 스님이 생전에 일생을 회고한 이야기를 담은 테이프를 기초자료로 삼아 쓴 책이어서 스님의 목소리를 생생하고 진솔하게 느낄 수 있다.

역사가 요구하고 불보살이 증명하는 불사만을 하겠노라 선언하고 정화의 현장에서 떠나지 않았으며, 정화가 완성되고 종단이 안정되는 날 산사의 평범한 수행자로 돌아가리라 하고 걸망을 풀지 않았던 스님이 불과 세수 예순셋에 끝내 산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복잡한 종단의 현장에서 열반하신 지 약 40년이 지났다.

이 책을 통해 묵묵히 정화불사와 종단 화합을 이루기 위해 헌신한 학월 경산 스님의 대승적인 삶과 일상에서 공부하자. 각자가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해 몰입하는 것이 화두를 드는 것이고 참선하는 것이다. 평소 계율을 지키며 생활하는 그 자체가 그대로 도라는 스님의 가르침은 독자들의 가슴에 오롯이 깊게 새겨질 것이다.



"

'청정 수좌의 표상'
'정화불사(淨化佛事) 기수'
'무처무시선의 수행자'

"

■ 학월 경산 스님(1917~1979)은?

한국불교서 청정 수좌의 표상이자 정화불사(淨化佛事)와 통합종단을 주도한 스님은 1917년 6월 함경남도 풍산군 안산면 황수원서 태어났다. 20세 이던 1936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뇌하다가 금강산 유점사로 출가했다. 유점사 불교 전문 강원서 대교과를 수료하고, 금강산 마하연사서 정진을 시작, 정혜사 만공 선사 · 칠불암 석우 선사 · 통도사 경봉 선사 · 상원사 한암 선사 · 범어사 동산 선사 · 미래사 효봉 선사를 모시고 안거를 나며 정진했다. 1954년, 비구종단의 정화가 시작되자 정진처를 떠나 입적할 때까지 대한불교조계종 정화불사의 기수로 불리며 종단과 교단의 발전에 헌신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 3대와 9대 총무원장과 동국대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동국대에 역경원을 개설, 종비생 제도와 군승 제도를 확립했다. 1975년, 불교계의 숙원사업인 '부처님 오신날' 공휴일 제정을 성취하는 데도 크게 공헌했다.

계율의 수호와 종단의 화합 · 사부대중의 화합을 평생 화두로 삼으며, "교단의 생명은 계율이 살아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역설하였다.

평소 '심즉시불(心卽是佛)'과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를 주요 가르침으로 대중을 교화한 스님은 종단 화합을 위해 애쓰던 중 1979년 12월 25일, 법랍 44세이며 세수 63세에 입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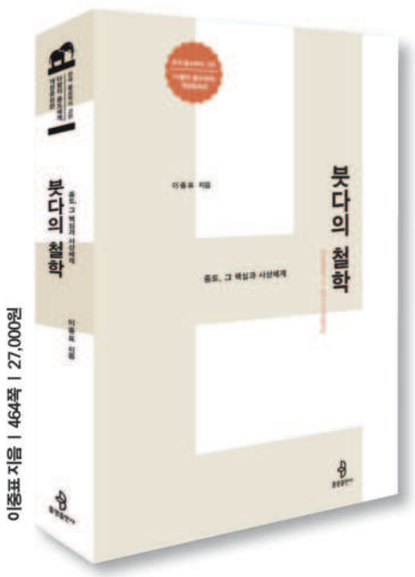
한국 불교학의 고전 『아함의 중도체계』, 27년 만에 『붓다의 철학』으로 새롭게 개정증보 발간!

서양철학 그 이상의 붓다 철학을 논하다

한국을 대표하는 불교학자 이중표 교수의 역작!

"혹자는 불교가 어떻게 철학의 제(諸) 문제와 함께 다루어질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할지도 모른다. 나는 이 책에서 그 의문을 해소할 것이다."
_저자의 말

한국 불교학의 고전
『아함의 중도체계』 개정증보판



붓다의 철학
중도, 그 핵심과 사상체계

이중표 지음 | 464쪽 | 27,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홈페이지 www.bulkwang.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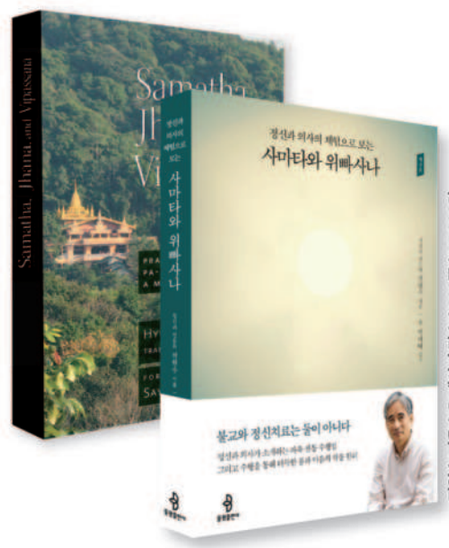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원장의 영문판 출간에 이어 한국어 개정판 출간

『정신과 의사의 체험으로 보는 사마타와 위빠사나』

우 레와따, 크리스토퍼 거머 추천!

"진리를 있는 그대로 알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심오한 메시지를 전한다."
_우 레와따 스님(세계적인 명상의 스승)

"붓다의 본래 가르침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을 바탕으로 수행법을 상세히 설명하여 불교 경전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_크리스토퍼 거머(마음챙김 심리치료의 세계적 권위자)



전현수 지음 | 우 레와따 감수 | 320쪽 | 17,000원

어찌해야 부처가 될 수 있을까

영화 '선종 무문관' 12월 13일 개봉
'할'의 윤용진 각본 · 감독, 우상전 등 출연



영화 '선종 무문관' 포스터.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선가의 〈무문관(無門關)〉을 소재로 한 영화가 개봉한다.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좌들의 수행을 그린 '선종 무문관' 이 12월 13일 개봉을 확정했다. 2017년 불교언론문화상 특별상을 수상한 '선종 무문관' 은 2010년 장편 독립 극영화 '할' 로 데뷔한 윤용진 감독이 각본을 쓰고 연출했다.

'선종 무문관' 은 다양한 고뇌에 직면하는 현대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감독 자신의 질문에서 출발했다.

"경제와 과학 등 물질적인 발전으로 인해 인류의 삶 전체가 발전하고 윤택해질 것이라는 우리의 생각은 분명 착각이었다. 이유나 병명조차 뚜렷하지 않은 각종 질환 그리고 특히 수많은 정보에 대응할 만큼 진화하지 못한 우리의 뇌가 고통을 호소한다. 이제 그 착각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편을 찾아야 한다."

윤 감독은 불교에 그 방편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불교에서 찾아낸 것은 '선(禪)' 이었다. 윤 감독은 선불교의 조사들이 남긴 어록의 뒤를 밟던 중 〈무문관〉에 가 닿았고, 영화는 시작된다.

"선종의 문이 없는 관문이란 부처께서 설하신 청정한 마음을 종지로 하여 문 없는 문을 법문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이 문이 없는 문을 어찌 통과할 것인가?"

〈무문관〉은 중국 남송(南宋) 때 임제종 무문혜개(無門慧開 · 1183~1260)가 지은 공안집으로, 48개의 공안을 뽑아 싣고 저자의 촌평을 붙였다. 간화선 수행에서 안목을 열어주는 〈무문관〉은 수행자를 위해 고칙 48칙을 염제(拈提 · 고칙을 제시하여 이를 評唱함)하고, 평창과 송(頌)을 더했다. 〈벽암록〉, 〈종용록〉과 함께 선종의 대표적인 책으로 꼽힌다. 특히 제1칙 '조주무자(趙州無字)' 의 공안이 그 중 널리 알려졌는데, 여기서 염제되는 무(無)자야말로 종문(宗門)의 일관(一關)이며, 이 일관을 '무문관' 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 일관을 뚫고 나아가면 몸소 조주(趙州)로 모실뿐 아니라 역대 조사(趙師)와 손을 잡고 함께 행동하며 더불어 견문을 나누는 즐거움을 같이 하게 된다는 것이다. 조주에게 한 수좌가 "개[狗子]에게도 불성(佛性)이 있습니까?"하고 묻자, "없다[無]"고 대답했다. 여기서 '무(無)' 는 유무의 분별을 절(絶)한 절대적 '무' 를 가리킨다. 깨달음의 절대 경지를 '무' 라고 표현한 것이다. 책 〈무문관〉에는 이 '무(無)' 자의 탐구가 전편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영화는 깨달음을 구하려는 다섯 명의 수좌를 통해 현대인의 힘겨움을 상징적으로 그려내고, 문 없는 문 앞에 선 납자들의 모습으로 우리의 오늘과 내일에 대해 이야기한다.

무문혜개의 〈무문관〉 영화로
"현대인 고뇌 선불교에 답 있어"

불교의 선을 소재로 했고, 수행일기라는 독특한 형식으로 구성된 영화 '선종 무문관' 은 각지의 수좌들이 무문화상을 찾아가면서 시작된다. 깨달음, 즉 해탈을 위해 화상을 찾은 수좌들은 해탈의 문인 '무문' 을 열기 위해 화상의 가르침과 진지한 수행을 통해 해탈의 길을 찾아간다. 화상과 수좌들의 선문답이 영화 전반을 채우고 평소 도심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산사의 자연 풍경들이 선문답 사이사이를 채우면서 영화는 끝없는 물음을 던진다.

출연 배우로는 우상전, 안흥진, 조용주 등 베테랑 연극배우들이 윤 감독의 지난 작품에 이어 또 한 번 열연한다.

"우리의 선불교는 그 수준이 세계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어려워서 일반인들이 다가가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영화로 만들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불교를 알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가 너무나도 빈약한 실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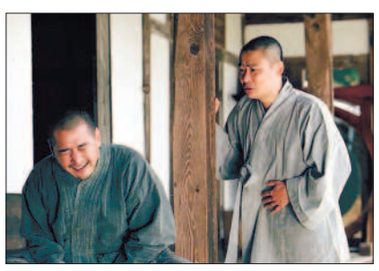
윤 감독은 현대인들을 힘겨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선불교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아니, 화상!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 "기와장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 "화상, 기와장을 간다고 어떻게 거울이 되겠습니까?" / "이놈아, 너는 좌선을 해서 부처가 되겠다는데 난들 어찌 기와장을 갈아서 거울을 못 만들겠느냐?" / "화상, 그럼 어찌해야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영화는 '우리 모두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을까' 를 이야기 한다. 영화로 옮긴 조주의 '무' 자가 오늘날의 힘겨움을 지나가는 모두의 일관이 되기를 기대한다. 영화로 옮긴 〈무문관〉이다.

윤용진 감독은 인하대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 도쿄디자인 전문학교 그래픽 디자인과를 졸업했다. 1997년 광고제작사 바닐라엔젤을 창업해 TV CM 등 기업홍보물 100여 편을 제작했고, 2010년 장편 독립 극영화 '할' 을 연출했다. 선수필집 〈공황장애는 가짜다〉 〈세상 벽암록〉 등을 출간했다. (02)565-1217.





12월 13일 개봉을 앞둔 영화 '선종 무문관' 은 선어록 〈무문관〉을 토대로 수좌들의 수행을 그린 영화다. 〈영화 스틸컷〉

제3회 법계문학상 당선작 발표

이종숙의 장편 소설 〈푸른 별의 노래〉 당선
시상식 12월 17일 오후 2시 청도 운문사


당선자 이종숙 작가

'제3회 법계문학상' 에 이종숙 작가의 장편 소설 〈푸른 별의 노래〉가 당선됐다. 법계문학상 운영위원회(위원장 남지심)는 "22편의 작품이 응모했으며, 예심을 통과한 3편 중 이종숙의 〈푸른 별의 노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상작인 〈푸른 별의 노래〉는 용성 스님과 절친한 도반인 벽성 스님이 기미년 3월 1일 만세를 부르다 팔 하나를 잃은 뒤 수행과 독립운동의 방법으로 태극기 그리기를 선택한다는 이야기이다.

이 소설에는 우리에게 다소 낯선 민중의 항일투쟁이 박진감 있게 묘사되고 있고, 태극기를 조선 백성들에게 널리 알려 민족정신과 자비심을 전파하려는 벽성 스님의 고뇌와 활동이 생동감 있게 그려지고 있다. 소설 배경이 해외로 확장되는 등 다소 무리한 설정이 지적을 받았으나 용성 스님과 만주농장과의 연계성을 고려했다는 점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종숙 작가는 "유난히 뜨겁던 지난 여름을 큰 고통 없이 건널 수 있었던 것은 〈푸른 별의 노래〉가 있었기 때문이다"며 "일상의 여러 가지 걱정을 그 속에 있는 동안 잊을 수 있었고 마침내 기쁜 날을 맞을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종숙 작가는 2013년 계간 〈불교문예〉에서 신인상으로 등단했으며, 여행에세이 〈오늘은 경주〉를 출간했다. 시상식은 12월 17일 오후 2시 청도 운문사에서 열린다. 이날 당선자에게는 2천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청도 운문사 회주인 명성 스님이 우수한 불교문학 작가를 양성하기 위해 제정한 법계문학상은 매년 장편 소설과 장편 동화 공모를 통해 신진 작가를 발굴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BBSTV 케이블 방송 CMB 신규 송출

대전 · 광주 전 지역 및 서울 · 대구 일부

11월말부터 채널 99-3

BBS불교방송(사장 선상신, 이하 BBS)이 TV송출 지역을 전국 곳곳으로 확대했다.

BBS는 "국내 대표 케이블방송 사업자 중 하나인 'CMB' 에 채널을 새로 런칭하고, 11월 말부터 TV방송을 시작했다"고 12월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와 동대문구, 대구 동구와 수성구, 대전과 세종, 충남 계룡, 공주, 금산, 보령, 부여, 논산, 서천 그리고 광주, 전남 영광, 함평, 장성, 담양, 곡성, 구례, 나주, 화순, 보성에서는 'CMB' 에서 채널 99-3번을 틀면 BBS TV를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미 BBS TV를 송출하고 있는 케이블 '딜라이브' 에서는 서울 성동구와 광진구, 경기 고양과 파주지역으로 방송 권역을 확대했다.

BBS는 "CMB 신규 런칭 및 송출지역 확대, 초고화질 영상 서비스 뿐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불자들에게 양질의 콘텐츠와 방송서비스 제공을 통해 향기로운 부처님 법음 전파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지속 가능해 더 찬란한 고려불교”

루이스 랭카스터 교수, 國博 ‘대고려展’ 명사 강연서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고려는 이웃국가들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매우 개방적이고, 성찰을 중시했습니다. 기술과 불교적 가르침을 흡수해 문화를 재해석하고,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표현했습니다. 고려에 대한 후세대의 비판은 진부합니다.”

후삼국 통일 이후 474년간 한반도를 지배한 고려시대에 꽃피운 불교문화가 현대사회서 지속가능한 문화로 남기 위해 그 가치를 조명하는 심포지엄이 열렸다.

불교사 연구의 세계적 석학인 루이스 랭카스터 UC버클리 명예교수는 12월 3일 국립중앙박물관서 기획특별전 ‘대고려 918 · 2018’과 함께 마련된 명사 초청 국제심포지엄서 불교문화가 고려시대 발달하게 된 요인 등을 조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심포지엄은 ‘고려 건국 1100주년 통합과 화해의 시대, 문화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랭카스터 교수는 고려시대를 ‘불교 영향으로 한반도 삶의 수준이 고양된 시기’로 규정한 뒤 고려청자와 불교와의 인연을 중국 5대10국 시대 ‘오월(吳越)’에서 찾았다. 그에 따르면 오월은 당에서 송으로 이어지는 한족 영토를 나눠가진 10국 중 하나로, 불교순례자들이 양쯔강을 따라 오월의 항구를 목적지로 순례했다. 이후 오월은 중국불교성지이자 동아시아 불교의 구심점으로 발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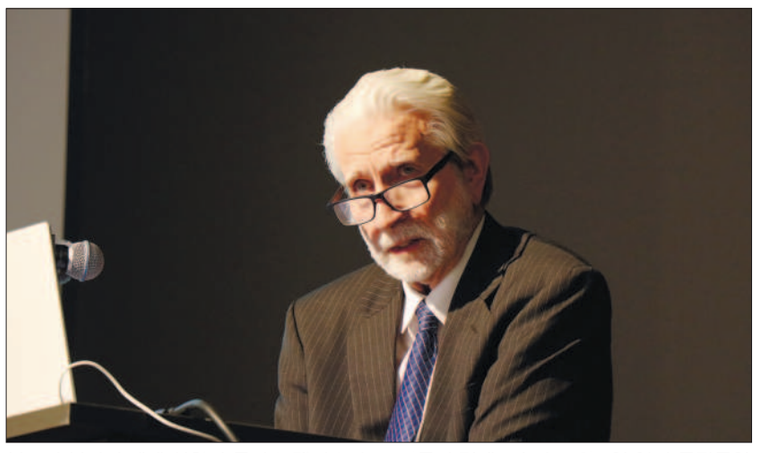
특히 오월은 풍부한 점토자원을 바탕으로 수백여 개의 가마를 만들어 자기를 제작했다. 이를 통해 오월은 수준 높은 자기와 유약을 만들어냈으며, 청자의 본국이 됐다. 하지만 송나라의 침공으로 인해 도공들이 배를 타고 한반도와 일본, 태국 등으로 피난했다. 도공들은 순례자와 무역상들이 이용하던 항로를 통해 한반도 전남 강진 지역에 정착했다. 당시 강진은 오월과 비슷한 지질적 구조를 갖추고 있었고, 도공들은 호남지역 불자들과 교감하기 시작했다는 게 랭카스터 교수 설명이다.

랭카스터 교수는 “오월에서 이어진 항로는 한반도 남단 끝자락에 닿았다. 여기서 도공들은 자신들의 본국과 비슷한 토양을 찾아냈다”며 “불교를 통해 지역에서 환대받으며 정착한 도공들에 의해 고려청자 전통이 확립되고, 현대사회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화재가 됐다”고 강조했다.

랭카스터 교수는 이어 청자와 불교경전 사본이 고려 주변국과의 선린을 위한 선물로 활용됐음을 주장했다. 그는 “목판인쇄술이 발달한 북송이 11세기 중국 불교대장경 사본을 고려에 보내고, 이후로도 다양한 사본들이 넘어왔다. 이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선물을 넘어선 의미를 갖는다”며 “결국 송나라는 문화강국으로 등극했다. 고려는 이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송나라를 뛰어넘기 위해 자체적으로 인쇄판을 제작했다. 하지만 몽골 침략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랭카스터 교수는 그럼에도 고려가 재차 심혈을 기울여 13세기 제작한 국보 제32호 해인사 대장경판을 높이 평가하면서 “송 · 금 · 요에도 비슷한 것이 있었지만 이제는 사라지고 오직 고려만이 남긴 가장 오래된 불교의 목판경전이 전해진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랭카스터 교수는 “도자기를 비롯한 각종 유물과 불화 등은 고려의 예술 · 종교 · 상업 · 정치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특히 하나의 민족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한다”며 “대고려전이 고려국과 고려의 종교, 고려의 세계화를 바라보는 렌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려의 문화가 지속가능한 문화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불교사 분야의 세계 석학인 루이스 랭카스터 UC버클리 명예교수가 12월 3일 열린 국립중앙박물관 ‘대고려전’ 기념 명사초청 국제심포지엄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오월 도공 전남 강진 피신
호남 불자들과 교감 나눠
고려청자와 불교 인연 소개
“불교문화, 고려 이해 도와”

문화치유명상과 대행선 응용방안은

대행선연구원 14일 제2회 계절발표회

대행선과 문화치유명상 응용방안 등의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마음선원 대행선연구원(원장 이평래)은 12월 14일 오후 1시 30분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서 제2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의 ‘대행 선사상의 문화치유명상 응용방안 연구’와 고영섭 동국대 교수의 ‘분황 원효의 일심과 묘공 대행의 한마음’이 각각 발표된다.

논평자로는 심준보(금강대), 문진건(동국대), 장진영(원광대), 이석환(대행선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한편, 대행선연구원은 전문연구자를 초청해 관련 연구를 발표하는 ‘계절 발표회’를 추진하고 있다. 계절발표회는 매년 3 · 6 · 9 · 12월에 열리며, 대행선과 불교학 전반 관련 연구 논문이 각 1편 씩 발표된다. 신성민 기자

동아시아 간화선 수행 전통 조명

종학연구소, 14일 국제대회

동아시아에서의 간화선 수행 전통을 살펴보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린다.

동국대 종학연구소(소장 정도)는 12월 14일 오후 1시 30분 교내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동아시아의 간화선 수행과 시대적 변화’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과 대만, 일본의 학자들이 참여하는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송 · 원 대의 간화선(츠치야 타이스케, 니가타대) △명 · 청 대의 간화선(리아오 자오형, 대만중앙연구원) △고려 말의 간화선(자현 스님, 중앙승가대) △조선 초의 간화선(황금연, 동국대) △무로마치 시대의 간화선 (디디에 다방, 일본국문학연구자료관) 등이 발표된다. △에도시대의 간화선(오바마 세이코, 오챠노미즈 여대) 등이 발표된다.

동국대 종학연구소는 “이번 대회에서는 중국의 송 · 원대, 명 · 청대, 한국의 고려 말, 조선 초, 그리고 일본의 무로마치 시대, 에도 시대라고 하는 특정한 시기에 간화선 수행이 어떤 변천 변화와 적응의 과정을 겪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며 대중의 동참을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석존 이후 밀교까지 인도불교사 망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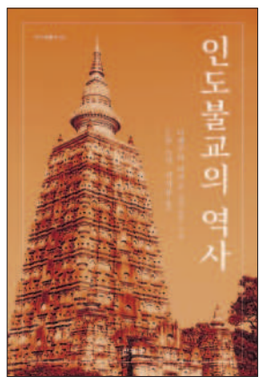
주목! 학술서 〈인도불교의 역사〉

인도 부다가야에는 지금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보리수가 있고 나무 아래 큰 석탑 안쪽에 금강보좌가 놓여 있다. 여전히 많은 불교신자들이 이곳 사원을 방문하고 부처님의 깨달음의 의미를 되새긴다. 그곳에서는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사찰도, 불상도 없다. 그렇다면 불교는 최초 출현 이후 어떻게 전개돼 지금의 모습으로 자리를 잡은 걸까?

일본의 불교학자 다케무라 마키오의 〈인도불교의 역사〉는 불교가 시작된 인도에서 불교가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사상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조명한다.

이 책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부터 입멸 후 부파불교의 전개, 대승불교의 출현, 공의 논리, 유식의 체계 등 인도불교 사상사를 정리하고 불교의 출현과 교리, 분파의 전개를 상세히 설명한다.

특히 대승불교의 출현과 관련 사상의 전개는 눈여겨 볼만 하다. 저자는 대승불교의 출현을 ‘불교의 종교개혁’이라고 평가한다.



부파 · 대승 · 공 · 유식사상 등
인도불교 사상 전개 살펴
일본서 17쇄 이어진 명저

기존의 불교가 전문화, 고립화되고 민중과 멀어지면서 이에 반기를 든 대승불교가 출현하기 시작했다. 저자는 시원을 새로운 대승경전을 전하는 법사(法師)에게서 찾는다. 법사의 어원은 ‘다르마 바나카’인데, 바나카는 일종의 예인(藝人)으로 한국과 일본에서의 권진성(勸進聖) · 염불성(念佛聖)과 유사했을 것으로 저자는 추정한다. 이들은 정규 출가자가 아니었고, 주변인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들은 “민중의 마음 주름을 전하는” 대승경전을 설하며 유행을 거듭했다.

서기 기원 전후에 출현한 새로운 불교로 문학적으로 뛰어난 경전을 많이 산출하고 공의 철학이나 유식의 철학도 체계화했다. 7~8세기 이후의 인도에서는 대승불교를 계승하면서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성불의 방법론에서 독자적인 주장을 하는 밀교가 번성하게 된다.

책에서는 대승불교의 출현과 함께 대승불교의 경전인 〈반야경〉, 〈화엄경〉, 〈법화경〉, 〈무량수경〉을 소개하고 각 경전이 가지는 특징들을 알기 쉽게 풀이한다.

저자인 다케무라 마키오는 일본의 유식학자로 현재 도요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도불교의 역사〉는 그가 2004년 발간한 연구서로 현재 일본에선 17쇄까지 찍은 명저로 평가받고 있다.

신성민 기자

불교와 맑시즘 관계 고찰한다

한국불교학회, 12월 15일 추계학술대회

화이트헤드 · 신라 구법승 등
자유주제 발표 5편도 눈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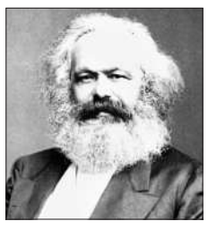
칼 맑스(Karl Marx, 1818~1883, 사진) 탄생 200주년이 되는 올해 마지막에 불교와 맑시즘의 상관 관계를 고찰하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사)한국불교학회(회장 김성철)는 12월 15일 오전 9시30분부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교와 Marxism’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불교와 맑시즘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전문가 4명의 발제가 이어진다.

〈원효와 마르크스의 대화〉의 저자인 이도흠 한양대 교수는 ‘포스트휴먼시대의 대안으로서 붓다와 마르크스의 대화’를 발표하며, 소설 〈디어 맑스〉를 내놓은 손석춘 건국대 교수는 ‘마르크스주의 종교 비판과 불교의 사회인식’을 소개한다.

불교사회학자인 유승무 중앙대 교수는 ‘맑스, 루만 그리고 붓다- 사회적인 것의 세 가지 관찰 형식을 중심으로’를, 철학자 이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연기법과 역사유물론- 외부성의 사유’를 각각 발표한다.



함께 발표되는 자유주제의 논문들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주제를 다룬다. 특히 화이트 헤드의 불교 인식을 다룬 박수영(동국대)의 발표와 인도네시아에서 병사한 신라 구법승 2명의 여정과 배경을 다루는 김영수 한 · 인니친선협회 사무총장의 발표는 눈길을 끈다.

김성철 한국불교학회장은 “올해가 칼 맑스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학술대회의 주제로 삼았다”면서 “불교적 사회참여를 모색할 때, 맑시즘은 반드시 넘어야 할 하나의 산이다. 불교와 맑시즘의 전문적 식견을 가진 학자들의 논의에 대중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주·야 상담합니다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 031)641-2747, 010-5302-1022
청동불 400여분 전시중!

九龍 의 소원...
사찰의 모든 장소 장식 가능, 분수 가능
소원당(소원지, 소원패등) 주작품
작품 소장사찰 : 여수 향일암, 강화보문사 등
크기 : 4,200(가로) × 1,000(세로) × 1,300(높이)mm
가격 : 상담 후 결정
기획불사상담문의
승원아트조형 010-9195-1044
네이버 : 승원아트조형


박재완의 PhotoEssay



저무는 시간

저무는 시간
태양은 스러지고
흘러가던 시간은
잠시 각자의 것
뒤돌아본다
지나온 시간은 그립고
지금 이 자리는 눈물겹다
저무는 시간
가슴은 스러지고
물 위의 법당으로
시간은 다시 흘러간다



정지천의
가족이 건강해지는 비법
⑯ 와사풍

와사풍(구안와사)의 주원인은 '찬 기운'

지난 1999년부터 2000년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허준〉을 본 사람이 많을 것이다. 무려 63.7%의 시청률로서 국내 사극 드라마 사상 최고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원작은 〈소설 동의보감〉이다. 그 중에서 허준 선생이 선조로부터 인정받은 사건이 바로 와사풍에 걸린 왕의 처남(공빈 김씨의 동생)을 완쾌시킨 것이다.

어의였던 양예수가 먼저 진찰을 했는데, "얼마간 치료하면 나을 수 있겠는가?"라는 왕의 질문에 "이레면 차도를 볼 것입니다"고 답했다. 게다가 와사풍은 풍(風)이 혈맥 속에 들어간 병이기에 그리 큰 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풍이 골수에까지 들었다고 겁을 주기까지 했다.

어의가 치료하던 왕의 처남을 어떻게 해서 허준 선생이 맡게 되었나?

어의의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내의원 판관으로 있었는데, 바로 '정작(鄭碏)'이라는 유의(儒醫)였다. 그는 혜민서에서 안면마비 병자를 나흘 만에 쉽게 완치시킨 허준 선생의 실력을 이미 보았기에 내의원의 총책임자인 도제조에게 확실히 치료할 수 있는 의원으로 허준 선생을 추천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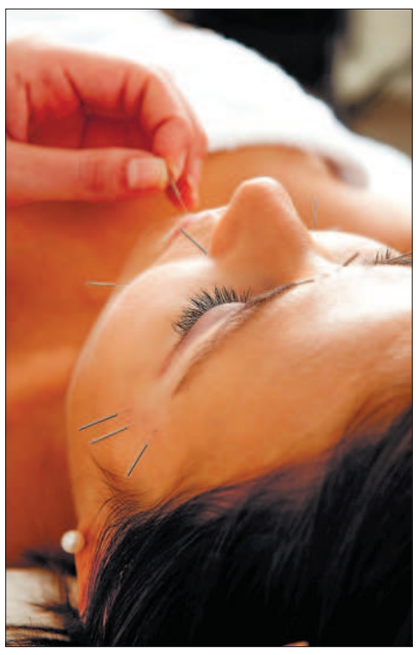
허준 선생은 병자를 진찰한 뒤 병의 근원이 '위장'이므로 우선 위장의 기능을 회복시킨 연후에 '뜸'으로서 병의 뿌리를 흩어낼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니 탕약도 어의가 쓰던 '청담순기탕(淸痰順氣湯)'이 아니라 위장을 다스리는 '양위이공탕(養胃異功湯)'이었던 것이다.

VIP 치료 중 허준 선생의 고충

병자가 왕이 가장 사랑하는 후궁의 동생이라는 위세를 믿고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바람에 어려움이 많았다. 약이 쓰다고 먹기를 거부하여 벼루를 던지는 바람에 허준 선생이 약과 먹물을 뒤집어쓰는가 하면, 병자가 던진 바둑판에 발등을 찍히는 일도 당했다. 게다가 허준 선생을 불신하고 치료를 거부하더니 언제까지 확실히 낫게 하겠다는 약조를 하라고 강요받는데, 허준 선생은 병자가 먹는 음식도 일일이 지시를 받고 지킨다면 사흘 만에 완쾌시키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그러다 병자의 마비된 얼굴이 제때 돌아오지 않아 허준 선생은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약속한 날짜의 정해진 시간에 병자의 비뚤어진 입이 돌아오지 못하자 오른손이 작두에 잘려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는데, 그 때 '멈-추-시오'라는 소리가 들렸다. 병자의 얼굴이 깨끗하게 돌아왔으니 형벌을 멈추라는 기별이 왔던 것이다.

그로 인해 허준 선생이 선조의 눈에 들어 혜민서에서 내의원으로 옮겨 왕이 총애하는 공빈김씨의 주치의가 되었고, 그래서 왕자였던 광해군과도 잘 알게 된다. 선조나 광해군이 허준 선생의 의술을 매우 신뢰했기에 뒷날 동의보감 편찬에 전폭적인 지원을 했던 것이다.



와사풍은 얼굴에만 풍을 맞은 병이다.

와사풍은 중풍과 달라
여러 풍병 중 가장 가벼워
입 비뚤어지고 눈 안 감겨
치료에 4~5주 소요

와사풍은 3,4일 혹은 5,6일 만에 낫게 되나?

드라마나 소설 속의 이야기는 실제와는 다르게 꾸며진 것이다. 와사풍은 적어도 4,5주는 치료해야 완치될 수 있고, 연세가 많거나 허약하거나 당뇨병, 고혈압 등이 있는 경우는 더 오래 걸린다.

'와사풍(喎斜風)'은 풍병(風病)의 여러 종류 가운데 가장 가벼운 것으로서 얼굴에만 풍을 맞은 병이기에 '입 비뚤어질 와' 자를 쓴 것이다.

풍은 갑작스레 발작하는 것이 특징이기에 별다른 징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다. 물론 며칠 전부터 마비된 쪽의 귀 뒤에 있는 튀어나온 뼈 주위로 통증을 느끼는 등 약간의 전구 증상이 있는 경우도 더러 있다. 와사풍은 중풍과는 다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대개 치료도 잘 된다. 서양의학에서는 '말초성 안면신경마비'라고 한다.

뇌신경은 12쌍의 말초신경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에 안면신경, 즉 7번째 뇌신경에 염증이나 바이러스 감염 등에 의해 손상이 온 것이다.

와사풍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

와사풍을 '구안와사'라고도 하듯이, 입이 비뚤어지고 한쪽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아 흰자위가 보이는 것이 주된 증상이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다가 발견하거나 혹은 양치질 하는데 입에서 물이 흐르거나 식사 도중에 음식물이 볼과 잇몸 사이에 고이거나 흘러서 발견되는 경우도 많다. 한쪽 이마의 주름이 잡히지 않고 코를 찡긋하지 못하게 되며 한쪽 얼굴 근육이 마비되어 볼의 감각이 둔해지고 입에 바람을 넣어도 새어나오고 휘파람이 불어지지 않는다. 또 눈물이 많이 나거나 반대로 눈물이 흐르지 않기도 하고, 반쪽 혀가 마비되면서 발음이 부정확하기도 하고, 맛을 잘 느끼지 못하기도 한다.

안면신경마비는 어떤 원인으로 해서 생기나?

한의학에서는 찬 기운을 주된 원인으로 본다. 찬바람을 맞거나 창문이나 방문 틈으로 찬바람이 새어 든 경우에 잘 생기므로 겨울에 많은 편이다. 술을 많이 마시고 밖을 돌아다닌 뒤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도 잘 생기고, 여름에도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틀어 놓고 자거나 찬 바닥에 얼굴을 대고 자거나 혹은 캠핑 등으로 야외에 나가 찬 곳에서 잔 뒤에 생길 수 있다. 물론 질병을 앓은 뒤나 과로 등으로 몸이 허약해져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잘 생긴다. 아울러 열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다.

서양의학적으로는 면역 기능 저하, 감기 등이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며, 중이염 등의 염증이나 바이러스 감염 등도 원인이다. 그밖에도 스트레스를 받아 짜증이나 화를 내는 것도 큰 원인이 되는데, 화가 치밀어 올라 얼굴에 열이 많이 생겼거나 오래도록 기분 나쁜 것이 지속된 경우 등에서 유발된다. 특히 젊은 여성에서는 시기심이나 질투 등 마음이 편치 않은 이유로 잘 생긴다.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한방내과 교수〉



